

시로 읽는 성보순례
백제의 미소
국보 제84호 서산 마애삼존불상
백제시대 ▶2면

현대불교

허망한 쾌락을 멀리하고
찌든 번뇌의 얼룩을 닦아
그대의 마음을 청정케 하라.
「법구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8월 2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09호 2012년 10월 10일 수요일

마음 치유 열기 뜨겁다

리카르 스님, 존 카밧진 등 서구 전문가 방한 연이어

올해 한국 사회는 '힐링'이라는 트렌드가 중심이 돼 움직인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정신이 많이 병들어 있다는 반증이다.

각종 문제로 신음하는 한국 사회에 세계적인 힐링 전문가들이 11월 줄지어 방한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승려와 철학자〉의 저자인 마티외 리카르 스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MBSR) 창시자 존 카밧진 박사, 미국 담마수카명상센터를 이끄는 위말라람시 스님이 바로 주인공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그들 나름의 독특한 마음치유법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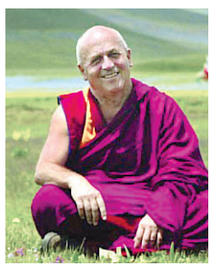
리카르 스님, 봉은사 등서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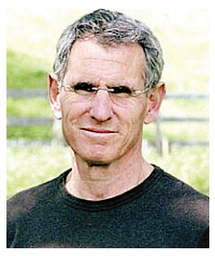
프랑스 국적인 마티외 리카르 스님은 11월 2일 12시 서울 사간동 법련사에서 방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후 7시 서울 봉은사에서 '마음을 훈련시켜 두뇌를 변화시키라' 특강을 갖는다. 3일과 4일에는 경기도 남양주 봉인사에서 티베트 전통수행법과 닝마파의 예비수행법을 주제로 명상워크숍을 진행한다. 5일과 6일에는 산사순례도 계획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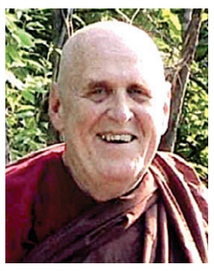
스님의 방한에 맞춰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는 사진전이 열린다.

리카르 스님의 방한에는 티베트 불교 닝마파 법왕이자 달라이라마의 스승이었던 딜고켄체 린포체의 후계자인 랍잠 린포체가 함께한다.

리카르 스님은 "마음수련은 대립적인 두 개의 심적 요소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는 사랑에서 증오로 옮겨 갈 수 있지만 동일한 사람이나 대상을 향해 그를 해하려는 마음과 위하려는 마음을 동시에 품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리카르 스님


존 카밧진 박사


위말라람시 스님

존 카밧진, 워크숍 · 대중특강

세계적인 심신의학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는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완화'(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MBSR)프로그램 창시자인 존 카밧진 박사(메사추세츠 의대 명예교수)의 방한도 주목할만 하다. 첫 방한이기는 하지만 그는 한국과는 남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다. 1974년 故 숭산 스님을 만나 참선을 배웠으며 스님의 주례로 결혼하기도 했다.

존 카밧진 박사는 11월5일부터 7일까지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워크숍을 진행한다. 5~6일 참가비는 60만원, 7일 하루 코스는 25만원이며 전체 참가비는 80만원이다.

대중을 위한 공개특강도 진행된다. 존 카밧진 박사는 대한불교진흥원과 한국심신치유학회가 10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공동 주최하는 대중 강좌에서 마음치유방법을 전한다.

위말라람시, 빨리 경전 명상법

위말라람시 스님은 상좌부계통의 주석서를 배제하고 팔리경전에 기초해 명상을 가르치며, 현대 미국에서 담마 수카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방한해 호두마을에서 2차에 걸쳐 14일씩 명상을 지도했고, 중앙승가대학에도 강연을 하기도 했다.

금년에는 11월 3일부터 경기도 용인 법륜사에서 2차례 10일간 특별 수행을 지도한다.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3일부터 12일,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10월 4일 미국 뉴욕 유엔 플라자 처치센터서 현지 종교인들에게 한국불교 정통수행법인 간화선의 핵심을 역설했다. 사진은 진제 스님이 법문 뒤 목사, 랍비 유대인 지도자 등 현지 주요 성직자들과 만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는 모습. 관련기사 2면

스님, 학자 2백여 명 "폐간 안돼"

불교학계, '불교평론' 폐간 반대 성명 발표

불교학계와 스님들이 〈불교평론〉 폐간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임승택 경북대 철학과 교수를 주축으로 한 불교학자와 스님 220명은 10월 5일 〈불교평론〉 폐간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학술적 논의의 장에서 자신의 입장에 반하는 논문이 등장하면 그것에 대해 학술적으로 반박하여 스스로를 변론하는 것이 옳다. '이미 배포된 책자의 전량 수거'라는 결정은 인터넷 시대에 걸맞지 않은 시대착오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음을 밝힌 덕숭총림에 대해서는 "총림의 문제제기로 발단이 된 만큼 덕숭총림 측도 이번의 사태에서 도의적 책임을 모면하기 힘들다"며 "덕숭총림은 지금과 같은 간섭이 건전한 학술적 담론의 분위기에 부당한 압력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와 〈불교평론〉 측에 대한 과오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미 배포된 정기 학술간행물의 회수는 그 심각성과 파장이 큰 만큼 이러한 사실을 덕숭총림 측에 충분히 인지시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 경주캠 총장에 이계영 교수

5일 법인 이사회서 만장일치 선임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에 이계영(58 · 사진)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정련)는 10월 5일 제 273회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계영 교수를 총장으로 선출했다.

이계영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12년 10월 5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다.

이계영 경주캠퍼스 총장은 1980년 동국대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단국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5년부터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수로 재직하며 공학대 학장, 교무처장, 전략기획본부장 등의 주요 보직을 맡았다.

이계영 경주캠퍼스 총장은 앞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발전 및 경영에 대한 소견서'에서 "전례없는 위기를 맞은 경주캠퍼스 모든 구성원들은 위기가 곧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사태극복에 온 힘을 모아야한다"며 "세상을 깨우는 글로벌 동국의 비전으로 '명품 동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경주캠퍼스 위기 극복을 위해 3단계로 제시했다. 2014년 2월까지 위기극복 시기로 지정하고 재정지원 조기 탈출을 위해 이미 지쇄신 및 홍보, 재원확보 등에 나설 예정이다.

2015년 2월까지는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구조개혁 및 기업 연계 교육 구축을 제시했으며 2016년 2월까지는 학제 및 행정조직 안정화와 지속경영 시스템 구축에 주안점을 두었다.

노덕현 기자

화엄사 각황전 방화 시도 '충격'

5일 새벽 발생… 방염처리로 피해는 적어

화엄사 "엄정한 수사 촉구"

최근 대구 동화사에서 개신교 목사의 훼불에 이어 이번에는 국보 불교문화재에 대한 방화가 시도돼 국민과 불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종삼)는 10월 5일 "국보 제67호 각황전을 거동 수상자의 방화로 전소될 위기에 처했었다"고 밝혔다.

화엄사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5일 새벽 2시 30분 경 각황전 뒷문에 의도적 방화가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문 절반이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 현재는 현장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초 발견자는 아침 예불을 위해 법당에 온 우승 스님으로 당시 신나 냄새가 심하게 났고, 잔불이 남아 있어 청수물로 급히 잔불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중에 설치된 폐쇄회로 TV를 확인한 결과 건장한 체격의 등산복 차림의 남자가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방화한 뒤 급히 도망치는 장면이 확인됐다.

화엄사는 "전소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던 것은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한 방염방재 처리사업 덕분"이라며 "하지만 소중한 민족문화유산인 각황전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한 점은 깊이 참회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 당국과 협력해 문화재 보존을 위한 더욱 강화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수사기관은 조속한 수사를 통해 범인을 색출해 일벌백계하길 바란다"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중일 기자


국보 제67호 각황전이 거동 수상자의 방화로 전소될 뻔 했다. 전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방염 처리때문이었다. 사진은 방화로 그을린 각황전 뒷문.

909호 INDEX

종합 2 · 3
조계종 원로의장 10일 선출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 UN서 법문
태고종 제37기 합동득도수계식
문화재 관리 허술 국감서 지적
동화사 총림지정 본격화

학술 · 문화재 6
용성 스님 역경 사업 의미 조명
〈대승기신론〉최고본 주석서 발견
석가탑 해체 복원 7

문화 15
울산박물관 임강사 종 전시





사단법인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제2대 회장 각운 대종사 취임법회

일시_ 2012년 10월 12일 (금요일) 14시
장소_ 국회의사당 헌정기념회관
문의_ 02)2198-5022~4. 010-4167-3666

전국 200개 회원 종단 대표자 및 신행 단체장,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본 법인 제2대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합니다. 공사간 다망하시더라도 뜻깊은 자리에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고, 부처님의 가피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합장 기원드립니다.

사단법인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회장 각운 합장

식 순
-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및 사홍서원
- 내빈소개 및 경과보고 (윤기순-본 법인 대표이사)
- 법어 (각성 - 본 법인 총재)
- 증명인준식 (혜암 - 본 법인 증명법사)
- 봉행사 (성철 월하 - 본 법인 대외협력위원장)
- 환영사 (무공 대성 - 본 법인 전국지부관리위원장)
- 축사 (법운 -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 청룡암 회주)
- 휘호전달 (황봉 - 대한불교연지조계종 종정)
- 회장 취임사
- 발원문 (무아심 - (사)한국불교조계종 무무암 총무)

후원 : 사단법인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신앙총연합회 종교세계신문사 巫教新聞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84호 서산 마애삼존불상



백제의 미소

김 지 헌

가야산 수정봉 처마 바위에
천년을 갇혀 살고 있는 마애 삼존불
인간세상 희로애락 모두 외면하고
그렇게 웃고만 계시다가,

제화보살
억겁의 돌을 깨고 인간세상 나와서
서산 저잣거리 중생들 만나보니
마타세계 다른 게 아니었구나
산벚꽃 분분하던 어느 봄날
곰곰 생각에 잠긴 미륵보살님은
천지간에 꽃시절 잠깐인데
산문 환히 열어놓고
구름 탁발,
바람 탁발,

먼 서역에서 걸어와
돌 속 고행으로 화엄세계 이룬 이여
미륵보살 제화보살 양 옆에 거느리고
중생제도 뜻하심인가

산등땅 오가던 백제인 고된 뱃길
만리 밖 밝히돌혹
천년을 둥글고 환하게 웃고 계시는
석가여래님,

빼어난 명품 하나 주고 간
백제인의 지문이었던가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김지헌 시인은… 충남 강경 출생. 1997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집 〈회중시계〉, 〈황금빛 가창오리떼〉 등

차기 원로의장 밀운·월서·월탄·종하·현해 스님 물망

조계종 대표 원로 스님들의 기구인 원로회의를 이끌 새 의장 선출에 종단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로회의는 종법 상 종정 추대권을 비롯해 ▷종헌 개정안 인준권 ▷총무원장 인준 및 불신임 결의권 ▷종단 비상시 중앙종회 해산권 등의 권한이 있어 향후 종단 정책 방향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10월 10일 제41차 회의를 개최하고 원로회의 의장과 부의장 선출의 건을 다룬다. 현 의장 종산 스님의 임기는 12월 10일까지다.

현재 차기 원로의장에는 현 부의장 밀운 스님을 비롯해 월서, 월탄, 종하, 현해 스님이 거론되고 있다(가나다순). 이들은 모두 원로회의 소위원회 구성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종헌·산중총회법·원로회의법 개정안 성안을 주도해 왔다.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조계종 전 계대화상 고산 스님은 스스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소위 핵심 인원 다섯 명으로 후보군이 좁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후보군에서 차기 원로의장이 선출된다는 것은 종단 정책 변화도 있을 것으로 예고된다.

현재 원로의원은 종산, 지혜, 밀운, 초우, 고산, 도문, 원명, 명선, 월서, 혜승, 현해, 고우, 법흥, 월파, 무진장, 종하, 월탄, 인환, 정관, 암도, 근일, 세민, 정련, 지성 스님 등 24명으로, 후보가 단일화되지 못할 경우 호선을 해서 의장을 선출하게 된다.

10일 회의서 차기의장 선출
향후 종단 정책 방향에 영향
소위, 6일 종헌 개정 세미나
멸쟁위 신설 타당성 등 논의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종헌을 비롯해 산중총회법, 원로회의법 개정안 성안에 대한 인준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원로회의 소위원회는 10월 6일 서울 그랜드 앰버서더 호텔에서 세미나를 열고 종정 자문위원회·멸쟁위원회 등 조계종 새 기구 신설에 대한 계율적 타당성을 검토했다. 〈차주 상보〉


밀운 스님


월서 스님


월탄 스님


종하 스님


현해 스님

특히 멸쟁위원회 설치 부분은 징계에 대한 제재심의란 점에서 교계의 관심을 받았다. 멸쟁위원회는 조계종 원로의원, 호계의원, 종회의원 등 2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통과 후 종정 스님에게 사면재청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계종 원로 스님들과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을 비롯한 율사 스님들, 관련 학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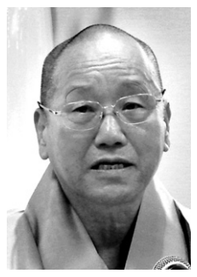
원로회의 소위원회 위원장 현해 스님은 "1969년 이후 50년 동안 중징계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주로 총무원과 감정적 대립으로 인한 것들이 많았다"며 "초심·재심 호계원 제도가 있지만 보다 계율에 근간해 억울한 이를 복권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현재 종단의 선거 또한 사회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와 발생한 폐단이 많다"며 "불교에 갈마법이란 전통이 있는 만큼 이에 근간해 대중의 공의를 모을수 있는 불교만의 새 제도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노장들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신중일 · 노덕현 기자

"온 세상은 하나… 환경 파괴는 인류 재앙"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UN 세계종교지도자모임서 법문

10월 4일 UN플라자 빌딩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세계종교지도자들에게 환경과 생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진제 스님〈사진〉은 10월 4일 오후 1시(현지 시간) 밀레니엄 UN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UN 세계종교지도자 모임'에서 '세계평화와 생태학적 위기'를 주제로 초청 법문을 진행했다.

진제 스님은 법문을 통해 "세계 종교간 대화는 인류평화를 위한 정신적 토대이며, 밝은 미래로 인도하는 희망"이라며 "앞으로도 종교인들이 앞장서 굶주림과 병고를 극복하는 것과 더불어 환경과 생태계를 회복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는 2600년 동안 인류의 문화적, 정신적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1600년 정통법맥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불교도 세계평화 실현을 목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개인 마음 닦는 수행을 통해 갈등을 잠재우고 지구촌 평화와 건강한 생태환경을 지킬 수 있다"고 설했다.

이와 함께 간화선 수행법을 소개하고 개개인 직분이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실참해볼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온 세상은 하나이다. 만물은 나와 너와 더불어 둘이 아니다"며 "환경과 생태의 파괴는 인류의 위기이다. 산, 물과 같은 덕행을 행해 우리의 터전을 육성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제 스님은 법문에 앞서 3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담임목사 더글라스 코어 주최 만찬과 5일(현지시간) 이슬람지도자 초청 만찬 등의 일정을 갖고 10월 7일(한국시간) 귀국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회기 불출석 종회의원 제재 필요"

NGO모니터단, 제191회 중앙종회 평가결과 발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들의 저조한 회기 출석률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교계 NGO 활동가들로 구성된 중앙종회 NGO모니터단은 지난 9월18~19일 열린 제191회 중앙종회임시회 모니터링 결과를 10월 4일 발표했다. **〈23면 결과문 요약게재〉**

모니터단은 평가서를 통해 "중앙종회가 임시회를 여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 회기 종회의원 평균 출석률은 66%에 불과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리를 떠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월과 6월, 9월 회기동안 중앙종회를 지켜본 결과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적지 않다. 종도들의 민의를 외면한 중앙종회의원은 종회 차원의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모니터단은 원로회의 인준 여부가 불확실해 종헌 개정을 미룬 부분도 지적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이들은 "중앙종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중차대한 역할을 포기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원로회의도 입법기관이 아닌 만큼 상정한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 의견을 중앙종회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종헌개정에 관한 논의는 중앙종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니터단은 이날 올 3월과 6월, 9월 중앙종회 모니터 결과, 문제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중앙종회 사무처에 접수시키고, 10월12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신중일 기자**

태고종 제37기 합동득도수계식 봉행

9월 26일 순천 선암사서

한국불교 태고종(총무원장 인공)는 9월 26일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에 중앙금강계단을 열고 제37기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수계식에는 전계아사리 총무원장 인공스님, 교수아사리 종회의장 도산 스님, 갈마아사리 호법원장 운곡 스님을 계사(戒師)로 전체 137명(사미 88명, 사미니 49명)의 스님이 탄생했다.

태고종 종정 혜초스님은 법문에서 "일체 악한 일을 하지 말며, 선(善)을 실천하여,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워달라"고 수계자에게 당부했다.

이날 수계행자는 지난 9월 5일 부터 3주간의 연수교육을 통해 예경의식, 불교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등을 이수했다. 또한 3주간 매일 새벽 3시부터 새벽예불과 정근, 강의, 운력, 참선수행, 저녁예불 및 참회 정진 등의 교육일정과 수계식에 앞서 18일에는 경내 중간부도탑에서 대웅전앞 특설도량까지 1.2Km를 일보일배 했다. **양행선 광주지사장**


태고종은 9월 26일 선암사에서 합동득도수계법회를 봉행했다.

www.kwanum.kr


열반 전의 태허 조사

태허조사 탄신 108주년 학술대회

이것이 참불교다

태허조사 一大事因緣을 말하다.

대한불교관음종을 창종한 태허 홍선 조사 탄신 108주년을 맞이하여 국가가 어려운 시절 국민의 안정을 위해 거리에서 설법하시고, 1만 여 쪽의 육필원고로 후학에게 가르침을 남기신 개산조 태허조사스님의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태허조사 스님의 크신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 일 시 : 불기2556(2012)년 10월 10일(음8.25) 오후 2시
- 장 소 : 대한불교관음종 총본산 낙산 묘각사 대불보전
  서울 종로구 숭인동 178-3 / T: 02)763-0054
- 주 최 : (재)대한불교관음종
- 주 관 : 현대불교문화학술원
- 후 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문화체육관광부

대한불교관음종

도난~재해까지 성보문화재 관리 '허술'

국회 문방위,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서 정부 정책 질타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재 정책의 허술함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5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도난 문화재 현황, 재해 관리 등 문화재 정책 전반이 문제가 됐다.

이재영(새누리당)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문화재 불법유통 등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459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65명에서 2009년 90명, 2010년 102명, 2011년 128명에 이어 올해는 7월 말 현재 74명이 검거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적발된 사범이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불법 유통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03년 226점에 불과했던 불법 유통이 올해는 7월말 현재 4,634점으로 최근 10년 사이 2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의원은 문화재의 보안을 위해 설치한 무인경비시스템인 폐쇄회로(CCTV)가 많이 설치돼 있지만, 이마저도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점검결과 CCTV 126대 중 25대(19.8%)가 2010년에는 141대 중 30대(21.3%)가 고장을 일으켜 수리를 했지만, 지난해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현장 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재영 의원은 "문화재는 한번 반출되면 회수하기가 힘든 만큼 불법유통에 대해선 철저히 단속과 관리를 해야 한다"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훔쳐 불법으로 유통시킨다는 것은 민족과 역사를 부정하는 부도덕한 범죄행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재사범 3년간 2배 증가
CCTV 5대 중 1대 '고장'
풍수해 복구 비용 26억원
사전 점검 필요성 확대


이재영 의원


주호영 의원


남경필 의원


김장실 의원

주호영(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문화재 영문 안내판 조사 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국보 제120호 용주사 범종의 경우 'National Treasure(국보)'라고 표기해야 하지만 'Natural Monument(천연기념물)'로 표기하는 등 다수의 문화재의 영문 안내판의 오류가 나타났다.

국보 제6호 중원 탑평리 7층 석탑의 경우 '신라탑 중 유일한 7층 석탑'을 'typical of the Silla stone pagoda art(전형적인 신라 석탑)'으로 번역됐다.

이 같은 오류들에 대해 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을 생각할 때 이런 실수들은 정말 부끄러운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국보 안내판이라도 전수조사를 하여 오류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 변화로 풍수해 피해에 대한 문화재 보존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남경필(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08년 18건에 불과했던 풍수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가 2009년 27건, 2010년 73건, 2011년 92건, 2012년 현재 113건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국보 제24호인 석굴암 석굴은 진입로 사면 유실, 입구 석축 유실되고 보물 924호인 구례 천은사 극락전 등의 기와가 유실, 파손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25억 7천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문화재가 훼손됐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문화재청은 보다 신속히 복구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풍수해 피해에 대한 문화재 사전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김장실(새누리당)의원은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기후 변화에 따라 향후 20년 뒤에는 태풍의 발생 빈도가 11% 늘어나고, 강도도 12%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향후 풍수해 위기 대응 매뉴얼에 사전 점검 내용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매뉴얼을 갖춰 사전 검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모범 불자 교정인 이유수, 김행규 교도관

조계종 포교원 5일 시상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0월 5일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올해의 교정기관 모범 불자교도관에 이유수 원주교도소 교도관과 김행규 서울구치소 교도관을 선정, 시상했다.

이유수 교도관은 원주교도소 사회복지과 불교담당 교사로 불교신자들을 발굴해 불자간 화합을 도모하고 불교신앙을 통한 수용자 교정교화에 매진, 전법포교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번 표창을 수상했다.

김행규 교도관은 서울구치소 교정교화 불교분과 교위로, 구치소내 직원불자회인 불심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사형수 교정교화에 힘쓰는 한편 불우 수용자 영치금을 지원하고 경비교도대 구도회 사회봉사활동을 이끄는 등 불심에 기반한 다양한 실천행을 펼치고 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정어린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야말로 수형자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참회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이자 포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포교원은 모범 불자교도관에 이유수, 김행규 교도관을 선정하고 5일 시상했다.

대한불교청년회 새 회장 선출한다

오는 21일 대의원총회서… 전준호, 정우식 경선

대한불교청년회가 신임 제27대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대한불교청년회는 10월 4일 임시대의원총회 공고를 발표하고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신임 중앙회장을 선출할 것을 밝혔다.

이번 중앙회장 선출은 경선으로 치러진다. 현재 전준호 前 대불청 사무총장(기호 1번)과 정우식 현 회장(기호 2번)이 후보로 나선 상황이다.

전준호 前 사무총장은 후보 공약으로 ▷교육 관련 사회적기업 설립 ▷사이버평생교육기관 운영 통한 재원 확보 ▷외부기관 모금 공모 사업 응모 ▷연꽃생활협동조합 재 컨설팅 등 단체 자립도 방안을 내세웠다.

정우식 현 회장도 26대 집행부가 불청운동의 위상강화를 이룬 만큼 대불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것을 밝혔다.

특히 심우장 일대를 '만해공원'으로 조성하고 각 지역 공공시설 수탁, CMS 후원자 1천명 달성을 주요 사업으로 내세웠다.

한편, 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 권, 조계종 신도증, 포교사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신중일 기자

불출협, 제9회 출판문화상

10월 10일까지 접수 마감

불교출판문화협회는 2011년 10월1일부터 지난 9월30일까지 1년간 국내서 초판 발행된 불교관련 도서중 우수 도서를 선정해 불교출판문화상을 준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제 9회 불교출판문화상에는 대상과 우수상 및 '올해의 불서 10종'을 선정해 각각 시상한다.

올해 시상은 대상의 경우 500만원, 우수상은 2종에 각 300만원을 저자와 출판사가 공동으로 수상하게 되며, 올해의 불서 10종은 출판사 수상으로 예년과 같다.

신청은 기본 서지정보 및 개요(500자 이내)를 작성해 신청도서 종별 5부를 출판문화협회로 오는 10월 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오는 11월 말이며 시상식은 12월 12일이다. (02)3672-7181~5

김주일 기자

동화사, 총림 지정 행보 본격화

오는 10월 22일, 관련 주제 심포지엄 개최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성문)가 총림 지정을 위한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동화사는 오는 10월 22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율장정신과 종단징계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팔공총림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정종섭 서울대 교수의 '바람직한 종교지도자 선출 방안'을 비롯해 조계종 교수아사리 자현 스님의 '율장 정신과 원융화합 종단 구현의 선결 과제', 차차석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율장에 근거한 종헌종법상 징계제도의 문제점 고찰', 이자랑 동국대 HK연구교수의 '율장의 근본 이념에 입각한 청규제정의 방향' 등이 발표된다.

이에 앞서 동화사는 지난 9월 18일 교구종무회의에서 총림 추진을 공식 결의했으며, 10월 9일 교구종회에서도 이에 대한 뜻을 모았다.

한편, 총림 지정을 위해서는 선원과 율원·강원·염불원 등을 갖춰야 한다. 본사가 총림 지정을 신청할 경우,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에 제청하고 종회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림 지정을 결정한다.

신중일 기자

마주협 이주민 정책 토론회 개최

10월 12일 광주 시민문화회관서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대표 도제)가 '한국사회의 이주현상과 불교적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마주협은 아시아밝음공동체와 함께 10월 12일 광주 남구 시민문화회관 별관 소극장에서 토론회를 갖고 이주민 정책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정책토론회에는 김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오산 행복한이주민센터 등 전국 20개 단체 80명의 NGO활동가들이 참여해 주민 현황과 해결책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도제스님(마주협 상임대표)의 '한국사회의 제노포비아 현상'을 주제로 하는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이주성(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의 '외국인력 정책과 만족도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김남옥(조선대 법학과 교수)의 '다문화 한부모가정에 대한 해법 모색' 등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남북공동선언문 적극 실천할 터"

민추본 10.4 선언 5주년 성명…5일 개성 방문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가 10월 5일 개성을 방문 북한수해지원 문제 등을 논의한다. 민추본은 10.4공동선언 발표 5주년을 맞아 북한을 방문 남북불교교류 실무회담을 갖고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위원장 심상진)와 '10.4선언 발표 5주년기념 남북(북남)불교도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남북은 남북공동선언문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남북불교도는 선언문을 통해 "남과 북(북과 남)의 전체 불교도들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역사적인 남북(북남)공동선언고수 이행을 위한 실천행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추본은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한 수해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혜숙 기자

남한산성
의승군
문화제

남한산성 장경사가 각고의 뜻이 영그는 중추의 계절을 맞아 남한산성 의승군 문화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의승군의 뜻을 기리는 수많은 행사가 있으나, 남한산성 의승군 문화제는 우리 역사 속의 한 켠으로 남아있는 남한산성과 의승군을 역사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처럼 뜻깊은 불사에 함께 하는 법연을 이어가시길 간절히 앙망합니다.

2012. 10. 13.(土) _ 10. 16.(火)
남한산성 · 장경사 일대

의승군 추모 남한산성 걷기대회
남한산성, 역사숨결 따라 걷고 느끼기
10월 13일 오전 8시/남한산성 남문주차장

별밤 숲속 음악회
의승군 이야기를 엮은 작은 음악회
10월 13일 오후 5시 30분/장경사

의승군 추모 수륙무차대법회
10월 16일 오후 1시/장경사

남한산성 의승군 학술세미나
11월 23일 오후 1시/남한산성 행궁

주 최 | 광주시 세계속의 경기도
주 관 | 남한산성 의승군 문화제 봉행위원회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남한산성 의승군 문화제 봉행위원회
464-816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22-1 Tel. 031·743·6547~8 Fax. 031·744·9197

일 주 문



신라불교문화 영산재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10월 12일 불국사 범영루 앞에서 신라불교문화 영산대재 및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전국 금강경 강송대회

서울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은 10월 13일 제2회 전국금강경 강송대회를 개최한다.



개산대재 법요식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10월 26일 오전 10시 범어사 대웅전에서 개산대재 법요식을 봉행한다.



숲 속 힐링 프로그램

보은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은 10월 21일부터 매월 셋째주 일요일 가족과 연인 등이 함께 명상하는 '숲 속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손주와 소통해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은 10월 17일부터 매주 수요일 '손주와 소통해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법향나눔 영산재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법향나눔 국화영산재를 봉행한다.



한마음선원 수계법회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은 11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안양 본원 5층 대법당에서 제24회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031)470-3100



초기면접상담기법 강연

불교상담개발원장 담교 스님은 10월 11일 오후 1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초기면접상담기법' 강연을 개최한다. (02)737-7378



자비도량참법 천도법회

경주 법장사 주지 철우스님은 10월 6일부터 2015년 7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자비도량참법으로 조상천도법회를 봉행한다.



명상 & 경영강좌

김규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10월 22일~11월 26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문화공간 숨도에서 '명상 & 경영강좌'를 진행한다. (02)719-2606

"전등사, 신행 사찰로 변모시킬 것"

전등사 주지 범우 스님

"강화 전등사는 인천과 수도권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이지만, 관광사찰로서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이제는 전등사가 신행 중심의 사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5월 강화 전등사 주지에 임명된 범우 스님〈사진〉이 내놓은 전등사의 발전 방안이다. 관광사찰로서 전등사가 아니라 불교세가 열약한 인천 지역 불교를 위해 신행과 수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강화 전등사는 오는 10월 설법전 낙성 및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이에 맞춰 '금강경 3년 독송기도법회'도 함께 입재하게 된다.

"3년 결사로 진행되는 금강경 독송 기도법회는 경전 독송과 강의가 함께 진행됩니다. 또한 경전에 기록된 수행법을 실천하는 새로운 신행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3년 결사를 마치면 〈금강경〉 설법을 듣고 깨달은 1250비구와 같이 1250명의 금강행자를 배출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금강경 3년 독송결사'는 매월 한 차례 점검을 위한 법회와 강의 외에도 일반 신도들이 일상 생활에서 경전을 수지 독송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실제 신행활동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약 5분 간 독송할 수 있는 〈금강경 약본〉을 제작해 기도 동참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23일 금강경 독송기도 입재

3년 결사… 설법전 낙성법회

30대 위한 템플스테이도 진행

"현재 한국불자들은 신행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습니다. 이대로는 한국불교에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한국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님이 아니라 부처님 정법에 기대어 신행이 진행돼야 합니다. 이제 시작 단계지만, 3년간 열심히 하다보면 길은 보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등사는 일반인들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그래서 새롭게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세대별 템플스테이 '어깨동무'다. 11월부터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간 세대별로 진행하는 '어깨동무'는 기존 1박 2일의 짧은 일정의 템플스테이에 아쉬움을 느낀 참가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현대인은 삶의 여유를 느낄 새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호 소통과 이해가 부족한 시대에 같은 세대부터라도 툭 터놓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불교 체험이외에도 직접 음식을 준비하는 협동 공양과 대화마당 등 서로 간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처음 시작하는 11월은 30대가 대상이며. 12월은 20대, 내년 1월은 40대 등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학명 스님, 동국대에 1000만 원 기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되기를 기원합니다."

3억원을 넘는 금액을 동국대에 기부해 온 성남 성불사 주지 학명(學明)스님이 또 다시 동국대에 제2건학기금으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학명 스님은 9월 25일 동국대가 기부자들을 위해 마련한 연극 〈아버지〉 공연을 앞두고 김희옥 총장에게 제2건학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동문이기도 한 학명 스님이 동국대에 기부해 온 기금은 불교대학원 발전기금, 벽담장학, 교지매입기금, 교육연구환경 개선기금 등으로 총 3억원이 넘는다.

동국대는 지난 2010년 스님의 이같은 나눔정신과 공로를 기리기 위해 동국대 문화관에 스님의 법명을 딴 '학명세미나실'을 개원하기도 했다.

학명 스님은 이날 "불교계 스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동국대 인재불사에 동참한다면 대학발전과 함께 불교발전에도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옥 총장도 "동국 구성원 모두가 학교 발전을 위해 더욱 진력해 보내주시는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노덕현 기자



학명 스님(오른쪽)이 김희옥 동국대 총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화순 도원사 청소년 장학금 수여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산사음악회가 개최됐다. 전남 화순의 도원사(주지 진철)는 지난 10월 1일 도원사 특설무대에서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돕기 및 개원 6주년 기념 음악회를 봉행했다. 이날 음악회에서 도원사 주지 진철 스님은 지역내에서 힘든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 가장 8가구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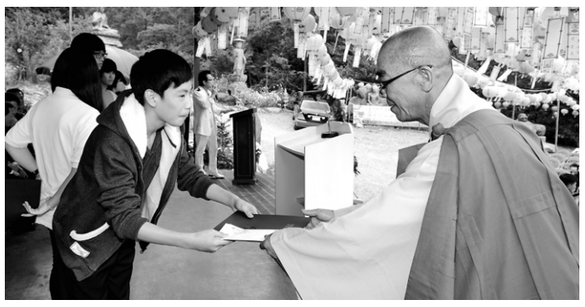
행사는 정암 스님(선각종 총무원장), 진철스님, 홍의식 화순군수, 오방록 화순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500여명의 신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 기념식, 신도 노래자랑, 초청가수 공연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 진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가정은 힘들지만 항상 밝게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작은 희망과 선물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정암 스님도 격려사에서 "산속의 사찰이 지역민들과 늘 함께하는 공간이 되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좋은 음악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올해 개원 6주년을 맞이하는 도원사는 지난 2007년 창건한 후 매년 영산대재를 봉행하고, 지역 불교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도원사 주지 진철 스님(오른쪽)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장경사 승영사찰 옛 모습 찾기



남한산성 장경사(주지 경우)가 10월 4일 설선당 상량식을 열고 승영(僧營)사찰 복원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설선당은 7억2천여 만원을 들여 60평 규모 전통 목조 맞배양식으로 건립되는 첫 승영공간이다.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가 6억원을 지원하고 장경사가 자부담 1억2천만원을 투입했다.

장경사는 일제강점기와 정화 시기를 지나면서 도량이 대폭으로 축소돼 대웅전과 산신각, 요사 등으로 이뤄진 조그만 사찰로 남아 있다.

이날 상량식과 함께 10월 13일 의승군 추모 남한산성 걷기대회와 별밤 숲속 음악회, 16일 수륙무차대법회 등으로 구성되는 남한산성 의승군 문화제의 막이 올랐다.

장경사 주지 경우 스님은 "장경사의 옛 모습 복원을 바라는 많은 이들의 원력으로 설선당 건립불사가 원만히 진행돼 상량식을 맞게 됐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이자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전주교도소 재소자에 송편 전달



임진년 추석 한가위를 앞둔 지난 9월 28일 전주교도소(소장 김준겸) 불교교정위원회는 재소자들을 위해 1400명분의 송편 도시락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포항사암聯, 종교편향 감시

포항사암연합회는 9월 27일 포항 문수사에서 20여명의 스님 및 재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독교성시화대회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포항사암연합회장 효웅 스님은 인사말에서 "기독교 행사인 성시화대회에 포항시장이 참석하는 것은 공무원의 종교 중립에 어긋나며 우리는 포항시의 이러한 자세를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항사암연합회는 대책회의 결과 범불교종교편향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훼불행위 및 공직자의 종교편향 등을 감시하기로 했다.

한편 범불교종교편향대책위원회는 등대사 주지 혜성 스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금당암 주지 법륜 스님 길상사 주지 혜광 스님 원해사주지 대광 스님 정국사주지 진문 스님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팔공총림 설치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
'율장정신과 종단징계제도의 문제점'

1. 기조강연 : 바람직한 종교지도자 선출방안에 대하여(정종섭 서울대 법대교수)
2. 주제발표
   1) 제 1주제 : 율장정신과 원융화합 종단구현의 선결과제 – 조계종 교수아사리(월정사 교무국장 자현스님)
   2) 제 2주제 : 율장에 근거한 종헌종법상 징계제도의 문제점 비교고찰 – 동방대학원대학교 차차석 교수
   3) 제 3주제 : 율장의 근본이념에 입각한 조계종 청규제정의 방향 – 동국대 HK연구교수 이자랑 박사

■ 일 시 : **불기 2556(2012)년 10월 22일(월) 오후 2시 – 5시 (3시간)**
■ 장 소 :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 문 의 : 전화 053)982-0101. 홈페이지 www.donghwasa.net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10월 중
◆ 개강일시 : 2012년 10월 개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분노 휩싸인 '나' 파고들면 '참나' 만나

세상은 지금 마음공부에 주목

하루 종일 분노, 화, 우울, 짜증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휩싸여 있지는 않은가? 혹은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마음이 아프다든가 이런 감정들을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지는 않았는가? 불가에서는 이 모두를 마음 탓이라고 얘기한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마음을 잘 들여다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마음 관련 프로그램들이 인기다. 이들은 모두 일상에서 지치고 상처입은 자신의 마음을 잘 보듬어 주고 다스려 행복한 삶을 찾아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종교를 초월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교계 마음 관련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현대인들은 왜 마음 프로그램에 관심갖게 된 것일까?



자기 내면을 치유하는 마음수행 프로그램이 인기다. 이는 분노와 우울 등으로 휩싸인 자신을 들여다 봄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데서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안성 활인선원 수행장면

자기 문제에 빠진 현대인
내면 치유 통해 참나 찾아
종교 초월 대중에게 인기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제따와나 선원의 '팔정도 집중수행'은 4단계 4개월 코스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제1부 '붓다의 호흡명상과 걷기명상' -마음 보호하기 ▷제2부 '생활 속의 알아차림' -생각 멈추기 ▷제3부 '자애명상과 붓다에 대한 명상' -성냄 버리기 ▷제4부 '부정관과 죽음에 대한 명상' -탐욕 버리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로그램은 목·금·토 3일 과정과 주말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법문과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준다.

선원장 일묵 스님은 "우리나라는 현재 자살 이혼률 저출산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호소할 길이 없다. 정신과 의사를 찾는 것도 부담스러울 뿐더러 타인과의 대화도 대부분 단절된 상태다. 이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마음공부다. 닫혔던 마음을 열고 내면을 관찰해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한다. 앞으로 제따와나는 왕초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중적인 수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토수련원의 '깨달음의 장'은 매주 4박5일 과정으로 열리고 있다. 이는 이후 나눔의 장, 백일 출가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며 마음을 관찰하고 치유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안내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현재 11월까지 다 예약 될 만큼 세간의 화제를 모으며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깨달음의 장이다.

정토수련원장 유수 스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의 고뇌를 음주가무 혹은 레저 등으로 풀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물질적 방법으로는 온전히 해소될 수 없는 것이 또한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 치유 프로그램으로 몰리고 있는 듯하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자신의 문제를 외부에서 찾지 않고, 진정 몸과 마음을 열어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를 풀어가고자 하는 의지의 반증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활인선원 수행 프로그램도 인기다. 선회는 3일 동안 법문과 참선을 통해 참나를 찾는 프로그램으로 지친 현대인들의 심신을 깨워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삼매체험 참선·단식 등으로 짜여진 수련회 및 단기출가, 행복 참선학교 등도 호응을 얻고 있다.

선원장 대효 스님은 "현대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맹목적으로 추구해 나가려고 한다. 가령 돈을 벌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지만 그 사람은 왜 그 돈이 자신에게 필요한지 모를 수 있다. 거기에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상황을 원망까지 하면 자기 조절에 실패하게 된다. 마음공부는 최상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훈련이다. 수행을 통해 진정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고 설명한다.

10월 17일 개강을 앞둔 한산사 용성선원 '간화선 수행학교'는 4단계 과정을 통해 초심자들의 수행을 돕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제1단계 '기본과정(4박5일)' -통찰지(通察智: 알아차림, 생각 바라보기 등) 개발 ▷제2단계 '심화과정(6박7일)' -보리심(菩提心: 바라밀) 수행 ▷제3단계 '화두수행 과정(8박9일)' -불이중도(不二中道: 본래면목) 체득 ▷제4단계 '지도자 과정' -선수행 지도 인턴십 개발, 평화의 봉사자 및 깨달음의 리더십 육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

17일 1단계 과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무아 무소유 연기 존재 등에 대한 명상이 끝날 때마다 선원장 월암 스님 등의 질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월암 스님은 "초심자들이 간화선 수행에 입문하고자 해도 자세한 이론과 실참 지도를 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일방적 지도 방식에서 벗어나 이론과 실참을 단계적으로 지도해 생활 속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개설 취지를 전했다.

이밖에도 10월 4일 10기 수강생을 맞는 상도선원의 '마음수행학교'도 연기 중도를 통해 마음 수행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다. 집중강의와 연기맵 그리기, 과제를 통한 마음수행 코칭 등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공부해 나갈 수 있다.

생활속 참선을 표방하는 한마음선원의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지난 2001년 개설돼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고 있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이다. 믿고 맡기기-지켜보기-중간점검-참구하기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탐구 더나아가 마음비움으로 자성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

화, 불안, 짜증에 휩싸여 있던 당신이라면 이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나서 보자. 그리고 마음 안에 들끓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꺼내 힘들었던 자신을 위로하며 안아보자. 그러면 어느새 문제는 사라지고 온전하고도 사랑스러운 '나'만이 남을 것이다.

물론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일시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자만하지 말자는 것이다. 꾸준한 수행을 통해 일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지 말자.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마음공부 프로그램 개설한 곳

단 체	프로그램명	전 화
제따와나선원	팔정도 집중수행	(02)595-5115
정토수련원	깨달음의 장	(054)571-6031
활인선원	선회	(070)-7519-9929
한산사	간화선 수행학교	(070)-8878-9415
상도선원	마음수행학교	(02)815-3391
한마음선원	한마음공생실천과정	(031)471-6926

선재스님, 사찰음식 무료 특강

불교여성개발원 채식강좌

불교여성개발원 사찰음식문화센터가 젊은 세대 채식문화 확산운동을 위한 두번째 특강을 연다.

선재 스님이 진행하는 강좌는 10월 9일 저녁 7시 마포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무료강좌로 열린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음식이란 그저 입맛을 즐겁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건강한 채식위주의 생활과 발효식품을 소재로 하는 슬로우푸드 사찰음식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가치를 젊은 세대들에게 전하고자 특강을 마련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채식의 의미를 체득하고 주위에 널리 알려 20·30대의 채식 홍보대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선재 스님과 함께하는 젊은 세대 채식문화 확산을 위한 템플스테이'는 12월에 열린다. (02)722-2101

정혜숙 기자

그리기 수행 지도자 수강생 모집

10월 12일 템플스테이정보관서 개강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은 가족소통을 위한 '그리기 수행' 지도자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특강은 10월 12일, 19일, 26일 오후 1시~5시까지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3층 보현실에서 진행된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이번 특강은 어린이 청소년과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의 인성발달과 함께 적개심과 일탈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기획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참가비는 15만원이며 관심 있는 사부대중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 16명까지 신청받으며 접수는 10월 8일까지다. (02)737-7378

정혜숙 기자

불교 용어 영어로 말해요

봉은사 영어 강좌 10월 9일부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불교영어강좌가 마련됐다. 봉은사(주지 진화스님)가 10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 불교 영어강좌를 실시한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봉은사 수련원에서 실시되는 강좌는 총 11강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부처님의 일생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발전과 형태 ▷오온과 연기법 ▷한국의 불교 및 각 국의 불교 입문 단계의 강좌가 영어로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무상사 국제선원 주지 대진 스님의 특강도 마련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60 명이며 외국인과의 대화 및 영어 해석이 가능한 불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봉은사는 "템플스테이 봉사자 양성을 위해 마련된 강좌다. 영어는 잘해도 불교용어를 모르면 설명을 못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영어가 가능한 봉사자들이 불교 전반적 용어를 익혀 외국인들을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양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조계사, 베이비부머 세대 특강 마련

황금빛 후반전… 10월 10일부터

조계사 불교대학은 종로구건강지원센터와 함께 중년기 가족생활교육 '황금빛 후반전'을 실시한다.

10월 10일~24일 실시되는 이 강좌는 베이비부머 세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강의는 ▷즐거운 우리 가족의 역할을 찾아볼까요?(10월 10일) ▷가족의 중심, 부부(10월 17일) ▷자녀와의 대화, 잘할 수 있어요(10월 24일) 등으로 진행된다. 강사로는 권희정 부모교육전문강사가 초빙됐으며 강의료는 전액 무료다.

조계사는 "자녀의 독립으로 변화되는 가족체계를 이해하고 다가오는 노년기에 부부를 중심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강좌"라며 취지를 전했다. (02)720-1390

정혜숙 기자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길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타종교 선교 위기감이 한글 역경 불러"

보광 스님, 용성 스님 역경 사업 원인 분석

한국불교 역경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근대 용성 스님의 한글역경 사업이다. 용성 스님은 서대문 감옥에서 옥살이 후 출옥한 1921년 '삼장역회'를 조직해 불교경전의 한글화에 들어갔다. 불교가 대중 속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선글 화엄경〉 등 불경 30여 종을 번역했다. 용성 스님이 경전 한글화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대각사상연구원 원장 보광 스님은 10월 7일 구례 화엄사에서 열린 '용성 스님과 한글 화엄경' 주제 학술대회에서 용성 스님의 한글 역경 원인을 밝혔다.

보광 스님은 "용성 스님은 독립선언서 발표의 일인으로 서대문 감옥서 삼년을 사셨다. 당시 타종교는 한글서적이 대부분임에 반해 불교경전은 한글로 된 서적이 별로 없었던 상황"이라며 "당시 사범들이 한글로 번역된 타 종교 서적을 공부하는 것을 보며 한글화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보광 스님은 "이후 용성 스님은 적극적인 도시포교와 경전이나 포교서의 한글화 원력을 세웠다"고 말했다.

스님은 "용성 스님은 '일요일이면 각 교회당에서는 종소리를 쟁쟁히 울리면서 인산인해로 사람이 모여들지만, 하나밖에 없는 각황사에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 '선종이라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포교를 하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러 주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개탄하셨다"고 소개했다.

보광 스님은 용성 스님이 경전을 한글로 번역할 당시 주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고 전했다. 당시 천한 것으로 취급받던 한글로 불경을 번역하게 되면 품위가 떨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1921년 4월 경전 번역을 위해 조직된 삼장역회(三藏譯會)는 용성 스님의 지도를 받으며 주야로 역경 불사에 매달려 첫 한글판 경전인 〈금강경〉을 출간한다. 이후 〈심조만유론〉와 〈신역대장경〉, 〈수심정로〉, 〈선문촬요편집의역〉, 〈대방광불화엄경〉 등 수 많은 한글 경전들이 편찬됐다. 총 30여 종의 불경이 우리말로 번역됐으며, 불교계에 처음으로 '찬불가'도 제작돼 보급됐다.



〈우리말 화엄경〉 편찬의 의미 조명
형무소서 한글 성경 보고 자극
30여종 불경 한글로 번역

보광 스님은 당시 타종교의 선교가 활발했음을 들며 용성 스님의 신심과 타종교의 범람에 대한 위기감에서 스님의 역경원력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시대변화에 따른 한문경전의 무용론, 한글세대의 확산, 민족적인 감정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되며 사업이 본격 전개됐다고 분석했다.

보광 스님은 "〈조선글 화엄경〉의 번역과 출판은 한국불교사에서 큰 변화이며, 한국불교 역경사에서 큰 족적"이라며 "한글 최초의 〈화엄경〉 편찬은 오늘날 한국불교에서 화엄학 연구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고 평했다.

한편, 이날 학술행사에서는 동국대 명예교수 도업 스님의 '화엄사상 법신불 사상',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한국불교에서 〈화엄경〉의 위상과 한글번역',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의 '근현대 화엄사의 사격과 진진응 · 이동헌스님'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 · 중 · 일 고판화 보러 보세요"

원주 고판화박물관 200여 점 전시… 학술대회도 열려

원주 고판화 축제가 12일부터 3일간 강원도 원주 치악산 고판화박물관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번 축제에서는 학술대회, 음악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이 중 학술대회는 국내 최초의 고판화 관련 국제학술대회여서 관심을 더한다.

주심혜 북경수도도서관 부관장을 비롯한 중국측 2명, 이리구치 아츠시 국립국문학연구자료관 교수를 비롯한 일본측 2명, 남권희 경북대 교수 등 한국측 3명이 발표하는 이번 자리에서는 한국 · 일본 · 중국의 목판본과 그 삽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논문이 발표된다.

200여점의 판화로 구성된 전시회는 특별전 형식으로 진행된다. 일반시민을 위한 판화체험교실은 연말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중국 고판화계에서 유일하게 인간문화재에 등록된 마습흠 선생이 직접 지도하는 판화전문가와 교사, 서지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한 · 중 전통 판화 워크숍도 고판화박물관 전통판화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12일 저녁 야외마당에서는 판화와 함께하는 산사 작은음악회도 열릴 예정이다.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은 "고려시대까지 중국과 일본보다 앞섰던 한국의 판화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판화 축제가 판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본다"고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2011년 열린 제2회 고판화축제서 높은 호응을 얻은 판화시연회 모습

〈대승기신론〉 최고본(最古本) 주석서 발견

금강대 불문연, '불교문헌의 번역과 유통' 주제 학술대회서

금강대(총장 정병조)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학연구센터가 10월 9일 금강대에서 개최한 '불교문헌의 번역과 유통' 학술대회에서 〈대승기신론〉 최고본 주석서가 공개됐다.

〈대승기신론〉 주석서는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소〉와 〈대승기신론별기〉가 중국 법장 스님의 〈대승기신론의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명하다.

그동안 중국 열반학파 스님인 담연(曇延) 스님의 〈대승기신론의소〉(6세기)가 〈대승기신론〉 주석서 중 최고본으로 인정돼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이케다 마사노리(池田 將則) HK연구교수는 담연 스님의 주석서에 선행하는 주석서가 돈황사본 중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하나조노대학 오오타케 스스무(大竹 晋)박사는 '〈대승기신론〉에 진제의 영향은 있는가?' 발표를 통해 〈대승기신론〉이 인도삼장의 구술을 기본으로 하여 중국에서 찬술되었음을 밝혀 〈대승기신론〉 찬술 문제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 외에 △오사카대학 쇼노 마사노리(生野 昌範)박사가 '율장 관련 新 산스크리트어 사본_스코이엔 콜렉션과 미국 버지니아주 개인 콜렉션', △고마자와대학 후지이 준(藤井 淳)박사가 '일본에 현존하는 불교 사본 문헌 -수감(手鑑)과 주경(注經)-' △금강대 김성철 HK교수가 '〈고트라〉의 번역 용례를 통해 본 진체 역 『불성론』의 불성 개념'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생명윤리협회 학술토론회 개최

불교생명윤리협회(공동대표 법응 · 박광서 교수)는 10월 12일 '불교생명학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토론회는 이도흠 교수(한양대)의 '불교생명학의 원리와 지향점'과 우희종 교수(서울대 수의학과)의 '21세기 현실에서 불교생명윤리의 과제' 양형진 교수(고려대 반도체물리학과)의 '자연과학 관점에서 본 탈해 · 탈원전)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등 4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실크로드와 한국불교' 국제학술대회

고려대 한국사연구소는 10월 12~13일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실크로드와 한국불교문화'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선 △조윤재 인제대 교수의 '고대 한국의 우조관(鳥羽冠)과 실크로드' △최석두 고려대 교수의 '근대 조선과 실크로드' △문무왕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연구원의 '실크로드 지역 조사를 통한 불교문화사적 고찰-실크로드 고대국가의 불교문화'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교수의 '7~10세기 실크로드 동단에 있어서 불교문화의 역류' △한지연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의 '동아시아 고성의 형성과 불교 전래의 연관성 재고-실크로드 사막남도와 동아시아의 고성 비교' △임상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원의 '고승법현전(高僧法顯傳)'의 간본에 관하여 등 논문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북한의 문화유산 학술세미나

문화유산연구소(소장 이태호)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최선일)는 12일 오후 1시 30분부터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북한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한경순 교수(건국대)가 '고구려 고분벽화의 제작 기술', 홍영의 교수(숙명여대)가 '개성의 사찰과 불교문화재', 최선일 소장이 '배천 강서사 조성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조각승 영철', 박정민 팀장(한울문화재연구원 유물보존팀)이 '북한의 도자가마터 발굴과 연구사적 검토'를 발표한다.

한편,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산하 작가모임 나우회는 불교문화의 둘레길 만들기 기획전 '보살, 마음을 담다'를 개최한다. 행사는 9일~다음달 11일 월정사 성보박물관, 내년 4월 20일~5월 31일 쾌연재미술관, 내년 9월 27일~10월 2일 충북대서 열린다. (070)4207-5674

노덕현 기자

종교와젠더硏, 10일 제2회 불교와젠더 포럼

종교와젠더연구소(소장 옥복연)는 10월 10일 서울 우리함께빌딩 3층에서 '티벳 비구니 수계 문제를 둘러싼 지역적 · 지구적 관점의 논쟁들'을 주제로 제2회 불교와 젠더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티벳에 비구니 계단이 성립되지 않은 원인에 대한 고찰이 진행된다. 미쉘 한나 호주 멜버른대 박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070)4193-9933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 창립 기념세미나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창립 3주년 기념세미나가 대구 한국불교대학교 대관음사에서 오는 10월 20일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불교호스피스협회 상임이사 능행 스님이 '나는 호스피스인 당신에게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를 발표하며 활동사례에서 김여환 대구의료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의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등이 진행된다.

지난 2009년 출범한 사단법인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KBHA)는 호스피스실천가 양성과 지속적 호스피스활동 지원을 위해 불교임종의식과 임상사례 연구 활동과 학술세미나를 병행하고 있다. 협회장 지현 스님은 부산 관음사 주지이며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대표다.

노덕현 기자

중앙승가대 대학원 불교학술대회

중앙승가대 대학원(원장 보각)은 10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중관사상의 원류와 변용'을 주제로 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남수영 동국대 교수의 '용수의 중송에서 상호의존적 연기의 논리와 형태' △이태승 위덕대 교수의 '후기 중관사상에 있어 이제설의 전개' △신상환 인도 비스바 대 교수의 '티베트 불교의 오해와 이해' △김성철 동국대 교수의 '인도 중관학의 동아시아적 변용'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다시 해체할 일 없도록 만전 기하자”

1270년만의 석가탑 전면 해체 복원을 보며

불탑(佛塔)은 산스크리트어로 ‘스투파(stupa)’라고 한다. 스투파는 원래 뼈를 담고 토석을 쌓아올린 묘란 의미로 부처님의 사리와 의복 등을 담은 근본불탑에서 시작됐다. **〈본지 908호 게재〉**

중국의 벽돌탑인 전탑(塼塔), 일본의 목탑과 달리 한국은 석탑이 대표적인 양식이다. 이런 한국 석탑의 대표주자인 불국사 석가탑이 9월 27일 전면적인 해체복원에 들어갔다. 이번 해체수리는 총 30억 원 규모로 석가탑 전체를 들어냈다가 다시 쌓아올리는 등 여타 석탑 해체수리와는 달리 그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석탑 아래 기단이 불안하다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실상 발굴조사가 유력시되고 있다. 석가탑 해체복원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은 조언을 들어보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배병선 정비사업단 단장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정영호 단국대 석좌교수

2014년까지 완벽한 복원

먼저 이번 해체수리를 지휘하는 배병선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 경주석조문화재보수정비사업단 단장은 완벽한 복원을 강조했다.

배 단장은 “해체수리가 문화재의 본 모습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며 “1966년에는 탑신과 옥개석이 빗겨져 있어 바로 잡으려 했으나 나무로 된 수리기구가 탑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탑이 많이 파괴됐다”고 말했다.

사업단이 공개한 탑의 무게는 탑신부 7.7톤, 1층 옥개석 7.1톤, 2층 옥개석 6톤 등 총 25톤에 달한다. 배 단장은 “이번 해체수리는 크레인 등을 이용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 과정을 덧집의 투명창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새로운 성보의 출토 가능성에 대해 배 단장은 탑의 복원을 우선시 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배 단장은 “신라시대에는 탑 주위에 공양물을 묻는 풍속이 있어 탑 하부에서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탑 해체수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내력을 검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보통 석탑 수리에는 6개월의 공기가 들지만 이번 석가탑은 총 3년 8개월의 공기가 잡혀있다. 2014년이 돼야 완벽히 복구된 본 모습을 대중에게 드러낸다.

조계사 성보위원이기도 한 배 단장은 “석가탑은 나라의 보물이면서도 선조들의 불심이 담긴 성보”라며 “불자 한명의 한명의 땀이 서린 당시 그 정성을 생각해 복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석가탑 신앙 의미에도 주목해야

석가탑이 위치한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이번 석가탑 해체 수리를 계기로 불자들이 국내 불탑들이 지닌 신앙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타 스님은 먼저 “성보는 손대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3년 전부터 기단석에서 균열이 발생해 부득이 하게 전면해체수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스님은 “이번 복원은 1966년 발견된 기록에 따르면 1038년 해체복원 이후 근 천년 만에 복원하는 의미를 지닌다”며 “석가탑이 수많은 불자들과 국민들의 정성과 관심이 있었기에 천년을 지탱해 올 수 있었다”며 그동안 석가탑 보존에 관심을 기울여온 많은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성타 스님은 석가탑이 단순한 삼층석탑이 아닌 1400개 한국석탑의 기준점이 되는 만큼 이번 복원을 계기로 한국석탑과 당시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했다.

스님은 “불국사에는 석가탑을 보기 위해 연 300만 명에 달하는 이들이 찾고 있다”며 “이는 탑 자체가 균형이 잡힌 예술가치도 있지만 당시 선조들의 신앙심과 예술혼이 아직도 흐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석가탑은 그 이름이 상징하듯 장엄물이 아닌 신앙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종교적 의미와 신성함도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1966년 수리 기록도 넣었으면

1966년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당시 부분 해체복원 작업에 참여한 정영호 단국대 석좌교수는 “이제는 다시는 석가탑이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박사는 “10월 경 사리장엄을 모셨다. 2층 옥개석이 땅으로 떨어져 현장이 아수라 장이었는데 제2 탑신에서 사리장엄구가 나타났다”고 1966년 부분수리 당시를 회고했다.

정 박사는 “이번 해체 수리 이후 탑신에 66년 당시의 수리기록과 이번 수리 기록을 함께 넣었으면 한다”며 바람을 밝혔다.

1962년 문화재 전문위원 1호로 위촉된 뒤 2003년까지 문화재위원을 지낸 정 교수는 문화재 복원의 1세대다.

광법사 고려불상 사실은 흥천사 불상

불교문화재연구소, 〈조선미술사〉 및 일제조사 자료 통해 밝혀

최근 성균관대박물관에 의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박물관장이었던 후지타 료사쿠(1892~1960)가 촬영한 유리원판이 복원 공개된 가운데 1937년 평양 광법사 천수관음보살좌상으로 소개된 보살좌상이 흥천사 극락보전 보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성균관대박물관은 “북한 제1사찰이며 1952년 소실된 평양 광법사 천수관음상”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본지 908호 게재)**

이에 대해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미등)는 10월 3일 “한국 사찰문화재 일제조사 결과 흥천사 극락보전에 봉안된 천수관음보살좌상과 동일한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유리 원판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1929년 발간된 〈조선미술사〉에 수록된 천수관음상 도판, 흥천사 소장 현판 기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조선미술사〉의 흥천사 천수관음상은 뒤쪽의 후불도, 본존불의 광배 등 성대 박물관이 공개한 유리 원판 사진과 동일하다. **노덕현 기자**




흥천사 소재 천수관음보살좌상(위)과 성균관대 박물관에서 유리원단 복원후 광법사 천수관음보살좌상으로 소개한 불상(아래)




곡성 관음사 대웅전

곡성 관음사 원통전 관음보살상


보주 해체 장면

석가탑 해체 순간, 원만회향 기원

석가탑 얼마나 훼손됐나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9월 27일 오후 1시 30분. 고요한 불국사 대웅전 안뜰에 목탁소리와 함께 반야심경이 울려퍼졌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층석탑인 석가탑(국보 제21호) 전면해체수리가 시작된 것이다. 미리 만들어진 덧집 사다리로 관계자들이 올라섰다. 이들은 맨 꼭대기에 있는 구슬모양 장식물인 보주(寶珠)를 흰 천에 싸 석탑에서 분리했다.

742년 신라 경덕왕 원년에 세워진 뒤 1024년 고려 현종 당시 전면 수리된 이후 988년 만에 전면 해체에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석가탑 앞에서는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보수작업의 원만 회향을 위해 기도했다.

성타 스님은 축사에서 “석가탑 전면 해체 수리는 1000년만의 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석가탑의 아름다움이 후대에 전해지도록 해체 수리에 원만 회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석가탑 전면 해체 수리는 2010년 12월 안전점검 당시 1층 탑 몸체를 받치는 상층 기단에 금(길이 1.32m, 최대폭 5㎜)이 발견되며 시작됐다. 기단 균열과 함께 상륜부 노반 모서리가 파손됐으며 보주 또한 금이간 상태.

46년 전인 1966년 탑신 1층 중앙 사리공(舍利孔 · 사리를 안치한 공간) 도굴 미수사건으로 탑 일부가 훼손돼 부분 수리했으나 완전히 해체 후 복원하는 방식으로는 1270년 만이다.

해체 수리 작업은 2013년 상반기 완전 해체 후 부재(部材)를 세척, 강화 처리로 진행된다. 2013년 하반기까지는 내부 적심이 보강되며 상층 기단 면석(面石 · 세움돌)과 갑석 사이에는 새로 만든 은장(부재를 연결하는 부속품)을 끼울 예정이다.

없어진 부재는 기존 부재와 같은 재질의 돌로 보강된다. 전면 해체 수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20호 이의상 석장의 자문을 받아 30억원을 들여 3년 8개월 뒤인 2014년 12월 마무리된다.

1962년 국보로 지정된 석가탑은 높이 10.8m의 화강암제 3층 석탑으로 1966년 석탑 보수 공사 도중 2층 탑신 윗면 사리공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국보 제126호)이 발견되기도 했다.

〈법화경〉 ‘견보탑품(見寶塔品)’의 석가여래와 다보여래 설화에서 연유한 불국사 석가탑과 다보탑. 석가여래가 설법할 때 다보여래가 높이 2만 리, 너비 1만 리의 거대한 탑이 돼 솟은 그 지혜가 서린 석가탑이 다시 본모습을 드러낼 그 날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덕현 기자

석가탑 보수 연혁

742년	석가탑 조성(신라 경덕왕 원년)
1024년	해체 수리(고려 현종 15년)
1036년	지진 피해 보수(고려 정종 2년)
1038년	지진 피해 보수(고려 정종 4년)
1596년	벼락으로 상륜부 손상 (조선 선조 20년)
1966년	도굴 시도로 훼손 부분 해체 수리
1970년	상륜부 복원
2012년	전면 해체 · 복원


해체 과정을 지켜보는 불국사 스님들


덧집에 둘러싸인 석가탑 모습



울도 담도 없는 절 입구에서 코스모스가…

⑬ 북한산 옛성길 그리고 각황사



한 해 중 가장 밝았던 저녁이 지나고, 지키며 견뎌야 하는 새로운 계절의 문턱에 선다. 영혼이 육신을 필요로 하듯 자연은 계절에 깃들어 있고, 영원한 육신이 없듯 자연은 새로운 계절에 깃들어 간다. 푸른 잎들이 푸른 과거를 놓고, 흙이 메운 곳엔 가을꽃이 돋아 있다. 폐부 끝까지 파고드는 대기와 망막의 구석구석을 걷어 젖히는 푸른 하늘을 대신할 말을 찾을 수 없다. 가을이다. 한가위 다음날인 10월 1일 북한산 둘레길 7구간인 옛성길을 걸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각황사를 만났다.

옛성길은 탕춘대성 암문 입구에서 북한산 생태공원 상단까지 걷는 약 2.7km 길이며, 모두 걷는 데는 약 1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옛성길은 성문을 통과하는 길이다. 부드러운 흙길을 밟으며 옛성길을 오르면 탕춘대성 암문을 지난다. 전망대에 이르면 족두리봉을 비롯해 향로봉과 비로봉, 사모바위, 승가봉, 나한봉, 문수봉, 보현봉 등 북한산의 봉우리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기자는 녹번동에서 시작되는 산책로를 통해 중간 지점인 전망대부터 걸었다. 전망대는 서울시가 지정한 우수조망명소다. 소나무 숲이 울창한 옛성길은 걷기 쉽고 곳곳에 쉼터가 있어 탐방객들이 많이 찾는 구간이다. 전망대를 지나 약 500m 정도 걸으면 구기터널과 연결된 대로와 만나게 된다. 거기서 둘레길을 버리고 대로를 건너 구기터널 쪽으로 걸으면 터널 입구에서 각황사 가는 길을 만난다.

각황사 가는 길은 터널 바로 앞의 계단길에서 시작되는데, 자동차들이 질주하는 아스팔트길에서 한 발작만 옮기면 숲길이 시작된다. 둘레길을 걷다가 걸어도 좋고, 처음부터 각황사길을 생각하고 시작해도 좋다. 서울 지하철 3호선 불광역에서 내려서 구기터널 쪽으로 700m 정도 걸으면 구기터널이 나온다. 터널에서 각황사까지는 약 900m다. 도심에서 갑자기 들어선 각황사 숲길은 문을 열고 들어온 길이 아니라 담을 뛰어 넘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길이다. 달리는 자동차의 굉음과 도심의 소음들이 갑자기 사라진다. 그리고 다가온다. 흙이, 가을꽃이, 숲이, 개울이, 시작된 가을이. 기자는 2006년 5월에 각황사를 찾은 적이 있다. 각황사 조실 의룡 스님을 뵙기 위해서였다. 각황사는 의룡 스님이 1966년에 세운 절이다. 흙 위로 드러난 소나무의 뿌리가 힘겨운 발밑을 받쳐주고, 숲 끝에 닿을 듯 서있는 깊은 하늘이 손목을 잡아끈다. 각황사 가는 길은 각황사를 지은 의룡 스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내리며 손수 낸 길이다. 각황사를 세웠던 그 때는 길이 없었다. 계곡을 따라 발을 적시며 다녔다고 했다. "차를 타고 들어가는 것보다 오솔길로 들어오는 것을 좋아해요. 개울로 다니던 것을 절을 지은 후 다음 해에 오솔길을 냈어요. 울도 담도 없으니까 계곡 전체가 도량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환하게 웃던 스님이 떠올랐다. 그렇게 스님의 발자국을 따라 20분 쯤 걸으면 각황사가 보이기 시작한다. 울도 담도 없는 각황사 입구에서 코스모스가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다. 조실 스님을 찾았던 그날, 코스모스 대신 그 자리에 조실 스님이 서 계셨었다. 경사진 길 끝에서 반갑게 웃고 계시던 스님이 다시 떠올랐다.

조망 좋고 걷기 편한 옛성길
한 걸음 안에 도심과 숲길 있어
대강백이 손수 낸 각황사 오솔길
"지혜란 물 건널 때 배를 타는 것"



서울시가 전망명소로 지정한 옛성길 전망대에 서면 북한산의 봉우리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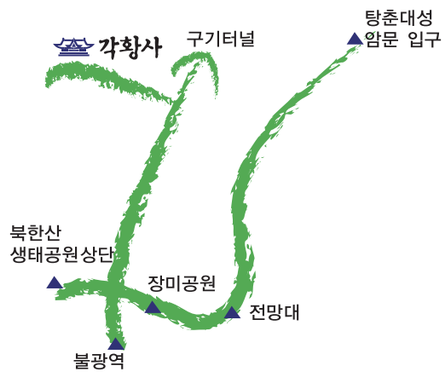


직지사 강원의 강주를 지낸 의룡 스님이 1966년에 북한산 기슭에 세운 각황사. 지나던 객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회랑에 앉았다.

"차란 별 것 아닙니다. 물을 건너갈 때는 배를 이용하고, 산을 올라갈 때는 자신의 다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또한 모래를 시루에 담고 떡이나 밥을 지으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들은 시루에 모래를 담고 불을 땝니다." 스님은 뵐 수 없었지만 각황사엔 대강백의 기억이 있었다.

마당에서 백구가 짖는다. 백구를 묶어놓은 줄이 풀려 백구 한 마리가 도량을 돌아다닌다. 묶여 있는 백구가 백구를 보며 짖는다. 등산객이 걱정스럽게 절 식구를 찾는다. "백구 줄이 풀렸어요. 달아나면 어떡해요. 빨리 나와 보세요." 공양주가 문밖으로 얼굴을 내며 말했다. "백구는 어디 안 가요." 백구는 풀린 줄 끝에 돌아와 있었다. 그랬다. 백구는 달아나지 않았다. 스스로를 묶어놓지 못해 어지럽고 걱정스러운 세상이다. 백구도 법문을 하고 있었다. 등산객은 다시 길을 시작했다. 각황사 뒤 쪽으로 등산로가 나 있다. 계속 걸으면 향로봉과 비봉 쪽으로 갈 수 있다. 등산에 뜻이 있다면 각황사를 들러 봉우리까지 올라가도 좋고, 다시 내려와 둘레길을 걸어도 좋다. 북한산 둘레길은 구간과 구간이 계속 이어지는 길이어서 걷고 싶은 만큼 걷고 내려오면 된다. 물론 시작도 편한 곳에서 시작하면 된다. 각황사를 뒤로하고 다시 오솔길을 걷는다. 다시 도심의 소음이 들려온다. 북한산 기슭 한 편엔 대강백이 손수 길을 내고 손수 지은 도량이 있다. 그리고 한국불교의 강맥을 이은 대강백의 이름이 그렇게 남아 있었다. 그 오솔길에.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북한산 옛성길과 각황사 가는 길〉



108일 강의
금강경 법화경 관음경 반야심경
2556년 전 부처님 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입제 : 양력 10월 20일(토)부터 108일 동안
(백일기도 경전강의 많은 동참 권합니다)

" 금강경중 수보리 심해의취 체루비읍"
서서 울고 엎드려 울고 부모처자식 죽은 것처럼 통곡하며 미친것처럼 울고 그 하늘에서
내리는 폭포수 같은 그 눈물은 지금도 바다 되어 유유히 그대 마음속에 흐른다.
여기 수보리 노인이 스승부처님 앞에서 그렇게 울었던 이유는 이것이다 즉생실상 으로....
(금강경 중에서)

반야심경 속 관자재보살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 내면에 있으며 그 자는 스스로 보는 눈이다.
인도어로는 아발로키테스바르(avalokita svara) 라 한다. 깨달음 무상정등정각은 거짓이며 속임수이다 그 실체
는 어디에도 없다. 아누다라삼막사보제만 비존재로 있다. 타인을 구제하기 전에 자신 스스로를 먼저 구제하라
법화경중에는 인간성과 성욕 섹스에 대한 설법이 있다.무량의경중 응당관찰 여시 관이 이입중생 제근성욕
성욕무량고 설법무량 설법무량고 의역무량 무량의자 종일법생 기일법자 즉무상야 여시무상 무상 불상 명위실상



"관음경중" 에는
약유중생 다어음욕 상념공경 관세음보살 변득이욕
너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탄생하여 살아가면서 무수히 일어
나고 쓰러 저 가는 성욕 남여간 애정 욕망 무량무수로 많다.
그 성욕 선악으로 나누어서 어느 편 에도 서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성욕을 공경하라
그 성욕 애욕에 동일시되지 말고 지켜보는 자로 남으라.
그러면 성욕 애욕이 변하여 기쁨으로 사라 저 갈 것이다.

명 상 사 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342
전화 033)521-1772. 010-7200-0943. 동암 붓다 합장

생태사회와 불교

생태위기를 초래한 세계관 – 직선적 시간관

순환적 시간관 회복해야 생태사회



지리산 한자락을 굽이도는 함양 오도재길(사진 왼쪽)과 미국의 대륙횡단 고속도로(사진 오른쪽). 자연의 굴곡을 잇는 곡선의 길은 현대사회가 걸어가야 할 미래의 길이다.

점과 점을 잇는 가장 짧은 길은 하나?

이 명제에 대해서 '유클리트 기하학'의 답은 '그렇다'이다. 그러나 비 유클리트 기하학 중 하나인 '리만기하학'의 답은 '아니다 무수히 많다'이다. 과거 지구는 평평했다고 생각했을 때와 같이 유클리트 기하학은 평면을 기준으로 공간을 정의하지만, 리만기하학은 공간이 평면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이 사실일까? 오늘날 리만기하학의 정의가 진실에 가깝다.

과거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여, 태양이나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프톨레마이오스는 천동설은 당연히 진리였다. 그리고 하나님 숭배외에는 모두 마녀, 사탄으로 몰렸던 봉건시대의 지배적 페러다임이었다. 그때 이와 반대의 주장을 한 이단아 코페니르쿠스는 신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해야 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이단아의 주장이 정설이 되었고, 당시의 봉건시대 주류의 세계관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오늘날 아무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 어리석었던 모든 생각을 다 벗어나 모두 옳은 사고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혹시 봉건시대와 같은 무지몽매한 세계관에 천착하여 실제의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매도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던가? 이 질문의 대답은 불행히도 '그렇다'이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감옥을 가고 왕따를 당하며, 과학발전이 극도에 다다른 지금도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이 사회의 천대받는 마이너이다. 그 마이너의 주장중에 하나가 바로 생태적 세계관이며, 그중에 하나가 직선적 세계관이다.

생활속에 베인 직선적 시간관

직선적 시간관은 시간이 직선으로 흐른다는 세계관이다. 그래서 직선상에 현재를 시점으로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다. 어제는 뒤라고 생각하고 내일은 앞이라고 생각한다. 비가역적이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을 그 직선상에 나열하고 서열화한다. 1등이 있고 꼴찌가 있다. 선(先)이 있고 후(後)가 있다. 앞선 나라를 선진국, 뒷선 나라를 후진국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식은 앞선 것은 좋은 것이며 뒷선 것은 후지고 나쁜 것이라는 관념을 갖게 한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좋은 것, 이름하여 진보(進步)라고 한다. 그래서 그 멀리 높이 나아가 있는 것이 선진, 늦게 나아가는 것이 후진이다. 이렇게 앞으로 높이 나아가는 일은 끝이 없다. 무한히 위로 위로 올라갈 뿐이다. 그래서 오늘날 경제성장은 무한성장은 지향한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나라가 미국, 유럽, 일본같은 선진을 따라가려고 한다.

순환적 시간관은 하나의 행위가 곧 복잡한 연관과 상호의존속에 나에게 돌아오고 언젠가 결국 영향을 내가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나 직선적 시간관은 반대이다. 나의 하나의 행위는 지나가면 그만인 것이다. 마치 강물처럼 흘러가버리면 나와 관계없는 것이다. '지나가면 그만', ' 내 손을 떠나면 나와 상관없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오늘날 '하나뿐인 지구'를 마치 무한한 것으로 착각하여 무한생산하고 무한소비하게 한다. 이것이 현재 경제학이다. 내가 쓰레기를 버리면 결국 멀어져 나와 관계없게 된다는 생각으로 함부로 버리고 쓰게 된다. 직선적인 시간관은 자원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무한정의 세계관이다. 그러나 순환적 시간관은 분명 '하나뿐인 지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한계를 인정하는 세계관'이다. 직선적인 시간관은 무한한 시작과 무한한 끝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작'과 '끝'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태초와 종말'이 있다. 앞서 썼던 글에서 순환적 시간관을 언급했다. 생태적 사회는 직선적 세계관을 넘어서서 순환적세계관, 순환적 시간관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선은 속도를 의미한다. 일점을 목표로 빨리 도착하려한다. 경쟁을 통해 남보다 빨라야 하며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직선은 효율을 의미한다. 그래서 과정은 생략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관계도 무시된다. 그래서 사람이 다치고 자연이 훼손되어도 문제삼지 않는다. "더 빨리, 더 먼저, 더 높이, 더 많이"의 세계는 바로 직선적 세계관이 오랫동안 인류에게 훈습되어 만들어진 문화인 것이다.

직선적 세계관…한계 불인정, 유시유종
순환적 세계관…한계 인정, 무시무종

"시간 직선으로 흘러 되돌릴 수 없다"
진보주의자, 직선적 패러다임에 갇혀

태초 · 종말로 이어지는 기독교적 세계관

린 화이트(Lyne White)는 "우리 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뿌리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1967)" 라는 논쟁적인 논문에서 기독교의 물질적 관점,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이 오늘날의 환경 파괴와 생태계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아놀드 토인비 역시 인류가 자연에 대해 가졌던 유익한 외경심이 이스라엘에서 발원한 유대교, 그리스도교 그리고 회교에 의해 추방당해 버렸다고 비판하였다.

부연하자면 환경문제의 원인이 된 서구적 세계관, 특히 그 기반이 된 유대 기독교전통을 문제삼고 있다. 모세5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은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교의 공통된 경전인데, 이중 창세기의 1장에 신은 인간을 창조할 때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것이 일단 인간이 다른 생물과 달리 신과 비슷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탈생물적 교만'의 출발이라고 한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그 인간에게 다른 생명, 무생명, 동물, 식물 등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지배의 명령을 내린 것이다. 결국 생물간의 '지배', '정복'이라는 개념이 역사속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태신학자들은 이를 인정하면서 그동안 인간의 잘못된 성경해석에 기인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생태신학자들의 해석은 '인간이 신의 피조물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준 것'으로 인식해야함에도 잘못된 해석해 온 인식이 바로 근대 서구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주면서 자원과 자연을 수탈하는 산업사회를 유지하게 만든 역사적 연원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리, 청지기'라는 용어도 또한 생명들과 평등하지 않은 우월적 존재임을 내포하고 있는 용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려는 것은 시간인식의 문제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태초가 있으면 종말이 있고, 결국 역사와 시간을 태초에서 시작하여 종말로 흘러가는 직선적인 시간관을 갖게한 것도 바로 유대기 독교적세계관이라는 점이다. 순환적 세계관은 시작도 끝도 없는 무시무종(無始無終)의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 말로 시작과 끝을 상정해야 하는 유시유종(有始有終)의 세계관이다. 그러면 오늘날의 환경위기는 결국 종말로 가는 것인가? 그 종말은 곧 개인의 죽음을 포함하여 집단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려운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생명을 개체생명단위로 사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죽음을 개체생명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나는 죽지 않겠다' 개인의 죽음에 대한 집착을 갖게 만든다. 태어나는 것이 고통이 아니듯, 죽음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생태위기가 주는 주요 메시지중요 하나이다.

"더 빨리, 더 먼저, 더 높이, 더 많이"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는 생산력의 수준을 줄이는 것이며, 청빈과 검약, 가난이 사회화되는 것을 궁극의 지향이라고 말할 때 가장 크게 부딪치는 문제가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라는 말이냐"이다. 그리고 그럴수는 없노라고 생각하면서 대안을 마련한다. 그러나 그 대안의 대부분은 현재의 소비수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산업사회의 부산물인 오염을 최소화하고 싶어하는 방법을 찾는다. 거의가 과학기술에 의존하거나 단순히 정책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알수 있다.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바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직선적인 시간관에 갇혀있는 것이다. 앞이 있고 뒤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은 직선으로 흐르기 때문에 비가역적이라는 것이다. 되돌릴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에겐 현재 아무리 환경오염이 심각해도 수직적인 경제성장의 방향을 바꿀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진보'주의자들도 이러한 직선적 페러다임에 갇혀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100년전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분명히 편리해진 측면이 있다. 10년전을 생각해보자. 그때 우리는 아주 불행했던가? 그때도 살만했다. 그러면 다시 20년전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조금 부족했고 불편했지만, 지금보다 심각하게 불행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살만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동안 좋은 것이라고 추구했던 삶,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행동이 우리를 위기로 빠트리게 했다면 우리는 보내버린 과거의 삶, 아니 잊혀진 과거의 삶을 다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편했지만 이웃과 자연이 더불어 공존하고 살았던 시절의 지혜과 경험을 다시 한번 되살려 우리의 미래의 삶이 되도록 해야한다.

그래서 '오래된 미래'라는 말을 사용한다. 과거속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상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태주의자들은 '진보'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대신 '전환', '공진화'라는 말은 종종쓰지만….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ø × 34㎝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ø × 34㎝



육각초 7.0ø × 34



연화 大 9.5ø × 11㎝, 연화 中 9ø × 10㎝, 연화 小 7ø × 6.5㎝



밀납연화 小 7ø × 6.5㎝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향수림



백목향,목향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일체유위법은 꿈·환상·이슬·번개와 같으니…”

⑤ 해공제일(解空第一) 수보리

〈하〉법을 청하다



그림 · 김홍인

지붕없는 암자에서 별 벗삼아 수행
이미 깨달았지만 중생위해 설법 요청
〈금강경〉서 부처님과 대화자로 등장
1250 대중에게 무상함 일깨워

수보리는 이미 공의 이치를 가장 잘 깨우친 존자였다. 그런 수보리를 부처님은 대중 앞에서 무쟁제일(無諍第一)이라고 칭송했다. 이에 걸맞게 수보리는 항상 자애와 함께하는 수행자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 또한 수보리는 〈금강경〉에서 공(空) 사상을 설하는 부처님과의 대화자로 등장한다. 부처님께 질문에 질문을 거듭해 우리들에게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닫게 해준다.

지붕없는 암자

수보리가 마가다국의 라자가하를 찾았을 때였다. 빔비사라왕은 수보리의 라자가하 방문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왔다. 수보리의 설법을 들은 왕은 크게 감동했고 답례로 정사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왕의 지시를 받은 부하들은 열심히 정사를 지었다. 하지만 당시 16대국 가운데 최강국으로 주변 국가의 병합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던 왕은 정사의 완성까지 세심하게 마음을 쓰지 못했다. 끝내 불사는 중지됐고, 지붕이 만들어지지 못한 채 정사는 몇 달 동안 방치됐다.

하지만 수보리는 불평 한 마디 없이 지붕없는 암자에 머물렀다. 수보리는 몇 달 동안 지붕 없는 암자에서 하늘의 별을 벗 삼아 평온하게 수행 정진하며 지냈다.

이 모습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수보리가 지붕 없는 암자에 머무는 동안 하늘에서는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마가다국 백성들은 타는 듯한 햇볕과 가뭄에 고통스러웠고, 보다 못한 왕은 비가 내리지 않는 연유를 알아보게 했다. 가뭄의 이유가 수보리의 정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왕은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서둘러 정사에 지붕을 올리도록 했다. 그러자 하늘에서 곧바로 비가 내렸고 마가다국은 다시 평온을 찾았다.

“지붕을 올려 주십시오.”

어렵지 않게 던질 수 있는 한마디였지만, 수보리는 하지 않았다. 지붕이 없어 비나 밤이슬은 피할 수 없지만, 벽이 있으니 바람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수보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또 공(空)의 진리를 체득한 수보리에게 지붕이 있고 없고는 대단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꿰뚫어보는 해공제일의 수보리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

왕이 지붕을 올린 뒤 수보리는 게송을 읊었다.

“나의 토굴이 완성되니 소란한 주위가 고요하고 마음이 평화로우니 여기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라네. 하늘이여, 비를 내려 주오. 나는 진리를 찾았거늘 비를 내려 주오.”

지붕 없는 토굴을 공양받아도 즐겁게 살던 수보리 존자. 그래서 그를 부를 때 피공제일(被供第一)이라고도 부른다.

한 번은 수보리가 삿다(Saddha · 信)라는 이름의 비구와 함께 부처님을 찾았을 때였다. 삿다 비구는 구족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비구였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이 비구는 누구인가?”

“세존이시여, 이 비구는 삿다라고 합니다. 신심이 두터운 재가신도의 아들입니다. 그 역시 신심이 두터워 출가해 비구가 됐습니다.”

“수보리여,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은 신심이 두텁다고 말할 수 있느냐?”

수보리는 분명하게 대답하기 어려웠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그 믿음의 특징에 관해 설해주십시오.”

부처님은 믿음이 지니는 특징에 관해 설했다.

“우선 계를 존중하고, 계를 잘 지키는 것이다. 이어 법을 듣고 그 법을 잘 기억해 수지하는 것이다. 또한 승가에서 도반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다. 교계를 받았을 때는 순수하게 받아들여 따르고, 수행에 있어서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법을 행할 때는 환희심을 갖고 해야 한다.”

믿음에 관한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며 곰곰이 생각한 수보리는 삿다 비구가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부처님이시여, 이 비구는 지금 말씀하신 믿음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얼굴 가득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잠시 수보리의 얼굴을 바라보셨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수보리야. 그렇다면 너는 이 비구와 함께 머물러라. 또한 나를 만나고 싶을 때는 이 비구와 함께 오너라.”

부처님께 법을 청하다

영취산에서 깨달음을 얻은 수보리는 사위성의 기원정사로 돌아왔다.

사위성은 초강대국의 수도답게 90여 만 호의 집들이 밀집돼 있는 대도시였다. 90여 만 호에 사는 시민들 중 3분의 1은 직접 부처님을 친견할 정도로 부처님의 교단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부처님은 사위성에 나가 탁발한 공양을 마치고 발을 씻은 다음 자리를 펴고 고요히 앉으셨다.

그때 1250명 대중 속에 있던 수보리가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상태로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합장하며 부처님께 말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을 잘 보살피시고 항상 챙겨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완전한 깨달음에 마음을 낸 착한 이들은 어떻게 마음을 챙기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매우 좋은 질문이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여래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피고 잘 당부하느니라.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선남자선여인 가운데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 지니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즐겁게 듣고자 하나이다.”

이미 깨달음을 얻은 수보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중생을 위해 부처님께 법을 청한 것이다. 부처님도 그러한 수보리의 뜻을 알아차리고 흔쾌히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했다.

이어서 부처님은 자신의 법신을 본 수보리의 깨달음을 확인하기 위해 말문을 열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른두 가지의 남다른 모습으로써 여래라고 미루어 볼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서른 두 가지의 남다른 모습으로써 여래라고 미루어 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서른 두가지의 남다른 모습으로서 여래라고 미루어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곧 여래라 하겠구나?”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에는 반드시 서른 두 가지의 남다른 모습으로써 여래라고 미루어 볼 수 없겠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서른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천하를 다스리는 전륜성왕도 32상을 갖추고 있었다. 전륜성왕은 인도인들이 바라던 가장 이상적인 군주였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덕을 닦아 생김새도 부처님과 똑같은 32길상을 갖추었다. 하지만 모습은 부처님과 같다 할지라도 깨달음은 이루지 못했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32상을 미루어서 여래라고 볼 수 있겠느냐 묻자, 수보리는 처음에 미루어서 볼 수는 있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전륜성왕도 곧 여래라 하겠구나”라는 부처님 말씀에 금세 깨닫고 아니라고 대답했다. 형상을 통해서 여래를 이해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이다.

相을 없애야 한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세계에 가득 찬 금은보화를 가지고 널리 보시한 이가 있고, 만약 또 다른 어떤 선남자선여인이 있어서 보살의 마음을 내어 이 경전을 가지고 네 글귀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다른 이를 위해서 설명해 준다면, 그 복이 앞의 복보다 훨씬 뛰어나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남을 위하여 설명해 주는 것’ 인가하면, 상(相)에 끌려 다니지 않고 여여하게 동요하지 않는 것이니라.”

“명심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1250 대중에게 상을 없애야만 한다고 일렀다.

“수보리여, 모든 작위(作爲)가 있는 것은 마치 꿈 같고, 환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반드시 이와 같이 관찰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 가르침이 있는 곳이면 모든 여래가 있는 것과 같음을 잊지 말거라.”

“하오면 지금 설하시는 경을 무어라 이름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겠습니까?”

“지금 설하는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니라. 수보리여, 여래가 어떤 진리를 말씀하신 바, 법이 있느냐 없느냐?

“여래께서는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이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임을 깨달아야 바른 법을 보느니라.”

부처님이 이 경을 다 말씀하자, 덕 높은 수보리와 여러 비구 비구니와 우바새 우바이와 일체 세간의 천신들과 아수라들이 크게 기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참고문헌

〈부처님의 십대제자〉(성각 스님 편저)〈부처님의 십대제자〉(성법 스님 편저)〈붓다를 만난 사람들(조계종 출판사)〉〈붓다를 만난 사람들(이자랑 동국대 박사)〉〈금강경〉〈무비스님 금강경강의(불광출판사)〉〈아함경〉〈장로게경〉〈유마경〉

藝園®
http://www.예원몰.com
법복/생활한복/단체복/기업체 유니폼/티셔츠



▷ 소백산 구인사 대조사전 “부산 삼광사 백만독 회향대법회” 납품사진 ◁

- 공장 직영 도소매 판매 / 온라인쇼핑몰 및 상설매장 년중운영 /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
- 브랜드 납품잔량 다운패딩 할인판매 / 단체복(티셔츠/모자/바람막이/유니폼/츄리닝) 상담환영
- 고객님과 불자님들의 상담방문을 환영합니다.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상담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앤씨드림타워 7차 1310호 수(秀)어패럴(株)
문의 TEL 070-4010-4800 / H.P 010-4660-8814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대한항공 취항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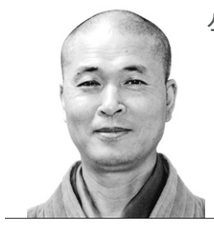
- 양곤 | 바고 | 시리암 10월 감사 특가 919,000원(유류할증료 불포함)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5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중국 지장도량(구화산|황산) 관음도량(보타산|낙가산) 7일 | 135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중국 지장도량(구화산 | 황산)	4일	요금문의
▣중국 관음도량(보타산.낙가산)	4일	요금문의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189만원(유류할증료 불포함)
▣라오스 직항	5일	129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인생의 의미를 묻지 말라

학승이 물었다.
"화상께서 학인에게 지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눈앞에 학인은 없다."
학승이 물었다.
"그러시면 세상에 나오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스님은 곧 '안녕히' 하고 헤어지는 인사를 했다.

問 如何是和尚示學人處 師云 目前無學人 云與麼即不出世也 師便珍重

조주 선사에게 학인은 없다. 누가 학인인가? 오로지 부처만 있을 뿐이다. 그런 조주 선사의 뜻을 모르고 학인은 "그러면 선사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묻었다. 그렇다. 선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는 없다. 다만 스스로 살아갈 뿐이다. 누가 물으면 대답해주고 묻지 않으면 조용히 풀이 돋아나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헤아리며 살아간다. 인생의 의미를 묻지 말라. 인생의 의미는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조사의 뜻[祖意]과 교리의 뜻[教意]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조주 스님은 주먹을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
학승이 말했다.
"화상께서도 그것이 있으시군요."
스님은 모자[주먹]를 내려놓으면서 이르기를
"자넨 내게 도대체 무엇이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問 祖意與教意同別 師作拳安頭上 云和尚猶有者箇在師?下帽子云 ?道老僧有箇什?

3천 년 전에 한 원숭이에게 길을 물으면 항상 머리에 주먹을 올려놓았는데, 이번에 조주 스님도 조사의 뜻과 부처의 뜻이 다른가같은가 묻는데 머리에 주먹을 올려놓다니, 이제 보니까 그 원숭이가 제대로 가리킨 것이었네.

학인이 물었다.
"마음이 머무르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은 살아있는 물건이야. 바로 심식(心識)에 사용당하고 있어."
학승이 물었다.
"어떻게 하여야 사용 당하지 않겠습니까?"
조주 스님은 곧 머리를 숙였다.

問 心不停不住時如何 師云 是活物是者箇 正被心識使在 云如何得不被心識使 師便低頭

마음은 한 날 한 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것은 심식의 사용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은 것은 그대가 곧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심식에 사용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검지와 중지로 V자를 그려 보이겠다. 빅토리[victory]라고 생각하지 말라. 적어도 선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단순한 뜻은 내보지 않는다.

학승이 물었다.
"도는 무엇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은 나오기는 하지만 도는 생멸에 속하는 것이 아니야."
학승이 물었다.
"그것은 천연적인 것이군요?"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은 천연적인 것이긴 하지만 도는 그렇지 않아."

問 道從何生 師云 者箇即生也 道不屬生滅 云莫是天然也無 師云 者箇是天然 道即不與麼

도라고 하면 벌써 형상이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도가 나온 곳은 이름도 없고 형체도 없으며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不生不滅 不垢不淨 不增不減)이다. 그것은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으므로 천연적인 것은 맞으나 도가 되어 나올 때는 천연적인 것이 아니다. 검은 색이 되었다가 흰 색이 되었다가, 동쪽이 되었다가 서쪽이 되는 등 자유자재로 변하고 바뀐다. 그러므로 선사가 말하고, 걷고, 일하고, 밭을 갈고, 비틀게 걸어가고, 옷을 입고, 세수할 때, 코를 풀 때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잘 보인다. 선사는 도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일상사에 절대 도가 들락거리지 않는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34〉

몸·입·뜻으로 짓는 10가지 악업과 선업

업-① 십업설(十業說)

불교에서 업(業, karma)은 일반적으로 업보(業報)라는 말로 통용된다. 업은 의도적으로 지어진 어떤 행위나 일을 뜻하고 보는 범어 '비빠까(vipāka)'의 번역으로 다르게 무르익어간다는 의미이다.

다르게 무르익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도적인 행위나 일을 원인으로 해서 그 원인과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는 뜻이다.

예컨대 불자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는 '선인락과(善因樂果) 악인고과(惡因苦果)'라는 말을 살펴보자. 상식적으로 선한 행동을 했다면 결과 또한 선한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악한 행동을 저질렀다면 응당 악한 과보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선인락과 악인고과'는 원인과 결과가 조금 다르다. 선한 행동이 원인이 되어 즐거움의 과보를 받고, 악한 행동이 원인이 되어 괴로움의 과보를 받는다. 이와 같이 선(善)이라는 원인이 낙(樂)이라는 결과를, 악(惡)이라는 원인이 고(苦)라는 결과를 낳는 과정을 '다르게 무르익어가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다르게 무르익어간다고 해서 원인과 완전히 별개의 속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 초래된 과보를 받기 때문이다.

고대 인도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낸 창조신[브라흐만]과 그 신을 위한 제식이 규정대로 바르게 행해졌는지 아닌지에 의해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었다. 제식만 규정대로 바르게 행하면 그것에 의해 나쁜 운명도 좋은 운명으로 바뀐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운명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모든 인간의 행위는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해 행해지고 그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의 과보 역시 자기가 지은 행위에 대한 책임과 보상으로 나타난다는 인과응보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업보설은 불교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렇다면 괴로움의 과보를 피하고 즐거움의 과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부처님은 선한행위를 하기에 앞서 먼저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행위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선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해진 것이 바로 십악업(十惡業), 혹은 십불선업(十不善業)이다.

십악업의 근원이 되는 것에는 몸으로 짓는 행위[身業], 입으로 짓는 행위[口業], 생각으로 짓는 행위[意業]의 세 가지가 있다. 이중에 몸으로 짓는 신업에는 살생(殺生)과 도둑질[偷盜], 사음(邪婬)이 해당되고 입으로 짓는 구업에는 거짓말[妄語], 이간질[兩舌], 욕설이나 험담[惡口], 궤변[綺語]의 네 가지가 해당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으로 짓는 의업에는 탐욕(貪慾)과 성냄[瞋恚], 그릇된 견해[邪見]가 포함된다. 그리고 이 십악업을 부정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십선업(十善業)이라 한다. 이와 같이 선업을 부정적인 어법으로 표현하는 것에 의해 악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선한 행위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마음으로 짓는 행위, 즉 의업(意業)이다. 불교에서는 의업이 신업과 구업의 근본이 된다는 의미로 의업을 생각의 업[思業]이라 하고 신업과 구업을 생각하고 난 뒤에 행하는 업[思已業]으로 분류한다. 결국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에 대한 우리의 윤리의식이 그 행위의 종류를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즘들어 범죄가 갈수록 잔인해지고 인심도 각박해졌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이 어찌 '요즘의 현상'에만 국한되겠는가. 이해하기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십악업과 십선업의 의미를 자각하고 악업을 행하지 않으려고만 해도 세상은 한결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㊴



여래에게 위대한 신통력이 있으니 이 얼마나 불가사의하고 희유한 일인가!

〈우다나(自說經)〉

인간 붓다, 라는 말이 있다. 고타마 붓다는 인간이라는 말이다. 참으로, 좋은 말이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한편으로는 인간을 초월한 존재로서의 붓다를 그리워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붓다를 좋아하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 붓다, 라는 말을 들으면 새롭게 들린다. 참신하게 느껴진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붓다라는 이미지는 사실 그 역사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80년대 초반부터 번역되기 시작한 일본의 종교학자 마스터니 후미오(增谷文雄)의 책이 끼친 영향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붓다를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재해석했다.

그러나 그 역시 원조는 아니다. 그의 책에서 여러 번 말하고 있지만, 그러한 해석은 유럽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빠알리성전협회"를 만든 리스 데이비스, 독일의 올덴베르히 같은 학자들이 붓다를 인간으로 보는 해석을 내놓았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법정 스님의 역서 〈불타 석가모니〉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 놓여있다. 그 저자 와타나베 쇼코(渡邊照宏)는 독일 유학파 출신이다. 그의 경우에는 인간 붓다라는 입장에서, 일본의 토착화된 불교(호넨, 신란, 니치렌의 불교)까지 매섭게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 붓다, 라는 불교관을 우리나라에서 좋아라 하신 분은 불교방송(BBS)을 설립한 장상문 거사님이셨다. 대원정사 출판부에서 마스터니 후미오의 책을 옮기고 소개하려 애쓰셨다. 그 뿐인가. 지금 회수와 폐간으로 문제되고 있는 〈불교평론〉 역시, "인간 붓다"의 입장에 서서 대승불교나 한국불교의 여러 현상들에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댔던 평론지이다.

나 역시 어렸을 적에(대학을 들어온 것이 78년이었으니, 그 80년대 초까지), 이러한 인간 붓다의 입장을 충분히(?) 섭취하였다. 그러면서도 나는 대승불교 내지 우리 불교의 전통으로부터 오는 영향사(影響史) 속에 놓여있었다. 의상, 원효, 보조지눌, 한암 --- 과 같은 스님들 덕분(혹은 때문)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 붓다'론이 불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결국 초기경전과 대승경전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었다. 하나의 목소리(一音)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불교관을 나는 일음교(一音教)라 부른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초기경전과 대승경전 사이에 차이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 예컨대 초기경전은 인간적인 붓다가 묘사되고, 대승경전은 신격화된 붓다가 묘사된다. 하지만 초기경전에도 등장하는 붓다의 신통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신통력을 부리는 붓다는 인간 붓다인가, 신격화된 붓다인가?

투나 마을의 바라문과 거사들은 붓다와 비구승단의 방문에 앞서, 우물에 풀과 쓰레기를 가득 채워넣었다. 물마저



그림 · 박구원

마시지 못하게 하려는 저의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다는 아난다에게 "저 우물물을 길어서 내게 가져오너라"라고 말한다. 빈 손으로 돌아온 아난다는 그 상황을 그대로 보고한다. 하지만 붓다는 연이어서, "아난다여! 저 우물물을 길어서 내게 가져오너라." 말씀하신다. 할 수 없이 다시 우물로 간 아난다는 입을 크게 벌리고 말았다.

"우물은 장로 아난다가 다가자 풀과 쓰레기를 모조리 뱉어내더니, 우물 속에서는 드맑고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물이 가득 채워져 넘쳐흐르고 있었다."(이미령 옮김, 〈기쁨의 언어, 진리의 언어〉, 민족사, p.140.)

신통은, 이렇게, 초기경전에도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붓다는 인간인가? 신인가? 붓다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인간을 초월한 존재가 아닐까.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57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최면학 교수(전)
국제 임상최면전문가(ICHT)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한국 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평생교육원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외 각종 케이블방송에 300회 이상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10월 22일 (월요일) 개강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전생 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몸은 왜 이렇게 아픈것일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당사자나 가족들이 어떤 영가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있는지, 원하는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한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사주속에 숨겨진 영가보는법"과 "사주로 심리적인 마음 까지 읽을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

안내자료 전생요법,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강의내용 등 자료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선화동 364-8(명상센터 3층)
042) 255-0734~5

왕따, 모두가 나서자



왕따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문재현 외 지음
살림터 펴냄
1만2천원

수철이는 학년 짱이다. 첫날부터 어떤 애를 괴롭힐까 물색 중이다. 드디어 희생양을 발견한 수철이가 100원짜리 동전을 내밀며 말했다. "야, 이거 가지고 빵 사와!" 한성이는 수철이의 눈길을 피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옆에 있던 은혁이가 인상을 쓰며 말했다. "너 수철이 얘기가 안 들리냐? 귀먹었어?" / "100원으로 어떻게 사와……." 기영이는 한성이를 손가락질하며 낄낄거리고 웃었다. 재성이는 속으로 재미있다고 생각하며 가끔 바라보았다. 현수는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책을 읽었다. 그 때 상호가 말했다. "네가 먹을 빵은 네가 사와야지. 왜 한성이한테 시키냐?" 수철이는 상호의 얼굴을 쳐다보며 주먹을 들어 보였다. "너 죽고 싶냐? 네가 사올래?" 상호의 짝꿍 준수는 안타깝지만 무서워서 가만히 앉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교사들은 어떻게 다룰까? 요즘 우리 사회의 아이, 부모, 교사들을 가장 절망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왕따 문제다. 하지만 교과부나 교육청 차원의 대책과 프로그램은 없거나 부실한 것이 현실이다. 책은 '왕따'를 없애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자 왕따 해결의 매뉴얼을 제시한다. '학교폭력 예방과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교사운동'의 시작을 알렸던 평화샘 모임에서 왕따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새로운 제안들은 담아 책을 냈다. 책은 일진문화 현상을 다룬 국내 최초의 단행본 〈학교폭력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교사를 위한 학교 폭력 예방대책 매뉴얼 〈학교 폭력, 멈춰!〉에 이은 평화샘 모임의 세 번째 프로젝트다.

왕따는 왕따돌림의 준말이다. 최고의 따돌림이라는 말이다. 피해자는 극도의 고립감, 좌절감, 불안 등으로 인해서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 자살하는 아이들 중 대다수가 왕따로 인한 것이다. 학교 당국은 문제를 드러내어 해결하려 하지 않고, 사회 인식도 문제의 심각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책은 "사회전체가 문제를 인식하고, 어른들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책은 두 가지를 말한다. 하나는 사회 전체의 왕따 문제에 대한 인식의 재고이다. 왕따 현상이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 학교, 군대 등 전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심각성을 구성원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어른들의 개입 의지이다. 왕따 문제가 심각한데도 어른들은 책임을 미룰 뿐 마음을 모아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교사, 부모, 상담가, 지역사회 구성원 등 모두의 집중적인 결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총 4개의 장과 사례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은 왕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선생님 반에 왕따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 "원칙을 합의하고 교사들이 공동 대응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 "왕따 문제가 생겨도 언제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피해 아이 상담과 진술서 작성요령, 피해 아이 보호 조치, 피해 아이 부모 상담, 백지 진술서 받기 등 책은 왕따를 발견했을 때 교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의 매뉴얼을 제시한다.

학교폭력의 뿌리는 '왕따'
심각성 인식 결여가 문제
구체적 방법의 메뉴얼 제시
사례 모아 현장성 높여


저자는 왕따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전체가 문제를 인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왕따, 이렇게 해결했어요' 사례모음 편에서는 저자가 학교에서 일어났던 왕따 사건과 그 해결 과정을 찬찬히 들려준다. 사례를 통해 마음을 모으면 왕따는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학교 폭력은 엉킨 실타래와 같다. 원인과 결과가 복잡하게 엉켜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난감하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진단 없이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다. 책은 학교 폭력에 대한 기존의 모델을 검토하고 우리 사회의 왕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모델 구성을 통해 왕따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26~10/2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4	영원에서 영원으로	불필	김영사
5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6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7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8	산사는 깊다	지안	불광출판사
9	백일법문	성철	장경각
10	일심정토 염불수행	정목	비움과소통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조국은 있어도 돌아갈 조국은 없었다

조선 사람

백종원 지음 | 삼천리 펴냄 | 1만4천원



'빼앗긴 조국', '유랑의 땅, 만주에서', '만주국의 실태',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제국주의와 항일무장투쟁', '이향란, 야마구치 요시코', '가나자와에서 보낸 청춘', '해방 전후의 나날', '리승기 박사와 류종묵 스님', '어머니 조국의 통일을 향하여' 책의 작은 제목들이다. 책은 올해 아흔이 된 재일동포 1세가 귀중한 체험을 바탕으로 써 내려간 재일조선인의 역사다.

"이 책은 복잡다난한 시대를 지나온 '살아남은 자'의 증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나는 재일조선인 1세로서 우리 세대가 전쟁과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던가에 관해 나름대로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고픈 마음이 간절하다." 1945년 해방 당시 독립된 조국에 돌아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번역하겠다는 꿈을 꾸던 교토대학 경제학부 학생이었던 저자는, 백발노인이 되어 책 한권을 펴내고(2012년) 위와 같은 소외를 밝혔다. 〈조선사람〉의 일본어판이다. 그리고 이번 책은 한국어판이다. 인생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보내고 어느덧 아흔이 된 저자는 의주에서 태어나 가족들과 함께 식민의 삶을 살았다. 압록강을 건너 만주국의 수도 선양 교외에 정착한 저자는 장꿔린 폭살 사건과 만주사변, 만보산 사건을 목격하며 소년 시절을 보냈고, 고등학교 시절엔 태평양전쟁으로 치닫는 군국주의 아래서 징병과 학도출진으로 학우들과 이별해야 했다. 그리고 대학 시절인 전쟁 말기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헌병대에 구속되어 감옥에서 조국의 해방을 맞이해야 했다.

"일본의 남쪽 규슈 탄광 지대의 지하 깊은 막장에는 지금도 무참히 희생된 수많은 동포들이 원한을 품은 채 파 묻혀 있습니다. 재일동포는 이러한 민족 수난의 역사를 전하는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은 조국을 빼앗기고 해방이 되었어도 조국에서 살 수 없었던 재일동포의 힘겨운 역사를 이야기해준다.


강제 부역에 동원된 조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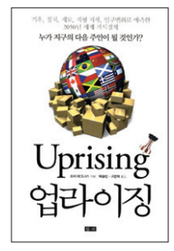
"현재 60만에 이르는 재일조선인은 토지나 삶의 기반을 잃고 일본으로 건너가거나 징용, 징병으로 끌려간 1세들의 후손들이다. 재일조선인 1세는 식민지 시대의 황국식민을 강요당했지만, 해방이 되어서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졸지에 국적을 박탈당하고 일본 속의 '난민' 신세가 되었다." 일본에서 출판된 이 책은 원래 재일동포 3세와 4세 그리고 일본 청년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다. 우리 겨레와 재일동포가 지나온 많은 곡절을 엮은 이 책은 암담한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과 만주, 일본에서 살아왔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체험한 한 동포의 증언이다. 저자는 "일제 식민통치 아래서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과 불행을 체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재일동포들의 역사와 삶, 그 염원들을 이해하는 데 책이 참고가 된다면 지은이로서 이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세계경제 승자가 되려면 숫자보다 다가올 '문제'들에 주목하라

업라이징

조지 매그너스 지음 | 백승민 · 구본혁 옮김 | 1만6천원



"누가 지구의 다음 주인이 될 것인가?" 책은 21세기 세계 경제의 핵심에 대해 이야기 한다. 저자는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시장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 중국과 신흥국들이 세계경제의 중요한 일원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 결론의 이유들이다.

저자는 "중요하다고 해서 모두 셀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셀 수 있다고 해서 모두 중요하지도 않다."라는 아인슈타인의 문구를 책머리에 인용하면서, 미래 세계경제의 승자를 결정하는 조건은 GDP(국민총생산)와 같은 통계적 수치나 선형회귀적인 모델이 제시하는 숫자가 아닌 지형과 지세, 제도와 인식의 개선 등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과대평가 및 왜곡될 있는 GDP로 승자를 예

미래 경제는 GDP보다
환경 · 고령화 해결해야

측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는 일이며, 그 근거로 구매력평가지수의 함정과 국가의 불필요한 시설 확충 및 그에 따른 원상복귀조차 GDP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그는 GDP와 같은 양적 요인보다는 제도, 인구구조, 지형, 기후 변화와 물 부족 현상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인식의 발달과 건전한 제도의 보완에 더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신흥시장 대 미국이라는 구도를 놓고 누가 지구의 다음 주인이 될 것이냐는 주제를 다루면서 2007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과거로 돌아가 유럽 중심의 지난 200년 역사와 경제발전이 2천년 경제사와 정치사 전체를 놓고 볼 때 짧은 일탈에 불과했는지를 살펴보고,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미국이 영원히 추락하고 중국이 다시 패권을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저자는 중국과 신흥시장을 향해 세계경제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직면한 고령화와 환경문제 혁신적 문화 창출에 투자하라고 말한다. 특히 고령화문제에 있어서, 인구 당 국민소득이 과거의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고령화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신흥국이 더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충고한다. 그리고 기후 온난화와 물 부족 현상 그리고 탄소배출과 관련해서 신흥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대처해야 하는지 밝히고 있다. 신흥시장, 특히 중국을 향해 던지는 충고는 신흥국들과 우리나라가 현재의 경제적 위상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귀담아 듣고 따라야 할 유익한 사안을 제시한다.

박재완 기자



망상서 벗어나려면 현재에 집중하라



생각사용설명서
전현수 지음
불광 펴냄
1만5천원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전현수 정신과 전문의

뇌과학자와 심리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우리는 하루 평균 약 7만가지 생각을 한다고 한다. 계산해 보면 1.2초당 한 가지씩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생각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생각이 떠오르거나 사라지는 방식 그리고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저자가 이렇듯 '생각'에 대해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진료실서 만난, 실패와 우울로 괴로워한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생각'이 많기 때문이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저자가 내리는 처방전은 '현재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 능력을 키우면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각'은 자기가 지어서 할 수 없다. 지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먼저 '앞의 생각'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걸 발견한 사람은 없다.

생각을 '나'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가' 하는 것일까? 저자는 생각은 그냥 '떠오르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도 과거에 입력된 것을 통해서다. 눈, 코, 입, 혀 등 세계와 접촉한 우리 신체를 통해 우리는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입력해 놓고 있다. 이것은 마치 기름 탱크에 저장된 무엇처럼 때가 되면 하나씩 떠오른다.

그렇다면 왜 어떤 특정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일까? 저자는 각 생각에는 서로 다른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건 안 좋은 과거다. 후회되고 화가 나고 아쉬움을 주는 과거는 가만히 있어도 떠오른다. 미래도 역시 좋은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는 안 좋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 훨씬 떠오르는 힘이 강하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또 부정적인 생각을 부르고 악순환을 만든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켜켜이 쌓여 우울증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정신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 생각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강박증 환자는 그 생각을 멈추지 못한다.

하지만 왜 우리는 생각을 내가 지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언어습관 때문이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생각한다.(I think), 네가 생각한다.(You think)'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렇게 당연히 '내가' '우리'가 생각한다고 무의식 중에 배워왔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의심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저자는 최초의 심리학 교과서 저술가인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의 의견처럼 생각하는 것도 'I think'가 아니라 'It thinks'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게 좀 더 진실에 가깝다.

두 번째는 생각이 우리가 관찰할 수 없을 만큼 빨리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루에 일어나는 7만 개의 생각을 우리는 쉽사리 관찰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생각은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연속성 때문에 우리는 생각은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에 대한 무지와 오해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병들게 한다. 특히 과거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것이 '생각'의 대부분을 지배한다. 하지만 과거에 일어난 일을 잊지 못할 때, 미래에 일어날 일이 걱정될 때 우리의 마음은 안정을 잃는다.

저자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한다. 현재(순간) 집중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이다. 명상을 하면 현재에 집중하면서 마음의 고요함과 안정을 얻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집착과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필요한 상상을 줄여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이 책의 첫 번째 목적은 생각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밖에도 이런 생각 때문에 생기는 강박증, 우울증 같은 심리적 정신적 문제에 대한 처방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첫 기억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든가, 자기분석을 통해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기도 한다.

김주일 기자

신화속에 나타난 불교 재해석

신화순례

김봉준 지음 | 미들하우스 펴냄 | 2만원



신화는 우리말로 '본풀이'이다. 생명의 고향(근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의 삶이란 집단적인 기억상실에 다름 아니다. 자신의 근원, 이 우주의 근원을 모른 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다. 이 집단 망각증은 사회체제의 이데올로기가 강제해온 것이요, 일상이 물질주의 생존양식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화, 신화의 해석, 재해석은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일이다. 이 일을 신화학자가 아닌 화가 김봉준이 시도한 것은 10여 년간 도시를 떠나 자발적 고립의 길을 천착한 데서 이유가 있다. 김봉준은 80년대 민족민중문화운동 창시자 중 한 사람이다.

김봉준 하면 떠오르는 것은 80년대 민주화운동 시절 각종 시위의 최전선을 지켰던 대형 그림막, 즉 걸개그림을 창시하고, 최초 민중만화 '농사꾼타령'으로 민중만화운동을 일으키고, 민주화운동, 노동, 농민 운동의 현장에서 우리 전통 목판화를 재창조하여 신명난 채색목판화 운동을 펼친다.

또한 우리 전통 붓을 되살려내 '한글붓그림' 시서화 운동, 옹기항아리 흙판말이 기법과 조형기술을 결합한 직조형 흙조각의 창작 등, 그는 우리 문화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우리문화 정체성 살리는 일을 줄기차게 해왔다.

그의 작품은 언제나 그의 치열한 사고의 산물로서 80년대 주창한 '신명론'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예술 사상은 세계여행과 암의 병고를 넘기면서 거듭 발전하여 10여 년 전부터 신화에 착근한다.

신화는 그의 사고와 예술창작의 원천지 같은 것이다. 그는 신화와 예술이 먼저 적극적으로 통섭해야 미래의 대안문명을 만들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개념주의가 지배하는 로고스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보잘 것 없는 한 영혼은 신화에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인류 최고의 이야기로 지금의 삶을 본풀이 하고 싶었습니다. 신화로 삶의 길을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신화는 나의 영혼, 너의 영혼, 미물과 우주 만물의 영혼까지도 인정하는 인류 사유의 가장 큰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신성하게 들릴 때까지 신화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손, 발, 몸이 알 수 있는 느낌을 찾아서 신화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나뉜다. 이중 특히 한국 문화의 원류 중 하나인 불교문화에서 러시아불교의 본산을 찾아가는 과정이 흥미롭다. 울란우데의 사원 '불긴스크 다짠'은 동북아시아 전통문화의 흐름 위에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다.

인구 37만의 도시인 치타시에 거주하는 약 9만의 부라야트인들에게서는 '러시아불교'의 흔적부터 티베트에서 건너 온 라마불교와 토착 샤먼문화의 혼재 등을 발견하게 된다.

부라야트공화국 수도 울란우데에서는 도시 절반 사람이 황인종 부리야트족이고, 종교의 60%는 라마불교이다. 현지인들은 부라야트를 동북아문명의 발원지로 보고 있다.

이곳 라마불교는 라마승들의 탁월한 치료술로 민중에 파고들었다. 저자는 라마불교의 문화가 생물처럼 자생력을 갖고 번식해 사회주의 유물론에서도 살아남은 것에서 동북아의 문화적 보편구조를 찾아낸다.

또한 흑수말갈족 오지마을과 연해주에서 바이칼까지 여행을 통해 취재한 동북 아시아의 신화를 통해 우리 문화와의 연관성, 특히 우리가 그동안 정확한 의미를 몰랐던 신화적 의례의 의미로 고수래, 샤만의 온고드, 아리랑 등의 의미를 확인한다.

'잃어버린 우리 신화를 찾아서'에서는 자청비, 선문대 할망, 환웅과 웅녀, 삼신할머니, 유화, 마고, 도깨비 등 잃어버린 우리의 신화들의 의미를 찾고 대보름맞이 등 의례놀이에 깃든 우리 문화의 정신을 찾는다. 마지막 '신화의 부활'장에선 신화와 예술과 의례와 교육과 과학기술의 신화적 통섭을 모색해본다. 저자에게 신화는 박제된 것이 아닌 지금 마을에서 굿과 의례와 함께 전통으로 내려오는 현재의 것이며 미래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는 이를 '오랜 미래의 신화'라고 부른다.

저자는 현재 원주 취병리 진밭 마을에 국내 최초로 신화미술관을 세우고 신화미술 교육을 하고 있으며, 신화를 코드로 의례, 예술, 농업, 생태기술, 생활문화를 통섭하는 신화마을을 제안하는 사회적 사업과 '다문화공생 지역문화 만들기'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스님이 전하는 청소년 문제 처방전

악동스님은 천사래요

히로나카 구니미츠 지음 | 도다이쿠코 역
토향 펴냄 | 1만5천원



18년 동안 무려 900명에 달하는 '문제아'들을 돌보아왔던 히로나카 스님은 일본에서 '괴짜 스님'으로 널리 알려진 스님이다. 스님 스스로 가난함에 시달려 비틀어진 과거를 가지고 있기에 아이들의 외롭고 힘든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스님의 절 '사이쿄인'에서는 식비나 숙박비를 일체 받지 않고 아이들을 받아주고 있다. "이곳은 보호시설이 아니라 개인 집이다"는 것이 히로나카 스님의 주장. 아이들은 마치 대가족과 같은 단체생활을 통해 가족의 정을 느끼며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받고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가거나 스스로 할 일을 찾아 자립해나간다.

사춘기의 반항이나 일탈, 왕따, 비행, 거식증, 자해 등 청소년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히로나카 스님은 가정 속에서 찾아보라고 제안한다. 학교에서 왕따 당하거나 등교거부가 된 아이의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비행의 길로 빠져 들은 아이를 구하는 방법은 어디 있을까?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한 어린 딸에게 부모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이 책에 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대부' 히로나카 스님은 때로는 위엄이 있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아픔을 감싸주는 어머니처럼, 그리고 때로는 장난 끼 넘치는 친구처럼 아이들을 대한다. '악동 스님'은 누구보다 더 아이들의 마음에 다가서는 방법을 알고 있다. 부모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친구가 나쁘다, 학교가 나쁘다, 사회가 나쁘다." 히로나카 스님은 말한다. "문제는 집안에 있다. 아이들은 가정을 비추는 거울이다. 부모는 아이들의 절실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마라. 길은 꼭 열린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군 체험 장편소설로 재구성

어느 이등병의 편지

문형렬 지음 | 다온북스 펴냄 | 1만2천원



시와 소설을 넘나들며 작품 활동을 해온 불교작가 문형렬씨가 1982년부터 한 편씩 쓰기 시작해 30년 만에 완성한 장편소설 〈어느 이등병의 편지〉를 출간했다.

이 소설의 화자는 하길오다. 그는 이 소설의 화자이면서 동시에 1970년대 후반 동부전선에서 군 생활을 했던 저자 자신이기도 하다.

동부전선(양구)의 전방부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소설에는 화자인 하길오와 고향 친구이자 입대 동기인 황동수, 선임하사 지중삼, 소대장 조 중위, 군수장교 백중기, 술집 주인 포 영감, 금옥이, 금출이, 계순이 그리고 그 밖의 수많은 병사가 등장한다. 이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에는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향한 그리움이 넘친다.

1970년대 말인 스물세 살부터 스물다섯 살까지 동부전선에 있었다는 작가는 신군부 시절인 1982년 이 소설을 시작해 30년 만에 끝냈다.

저자는 "1970년대 후반, 분홍빛 꿈으로 아롱져야 할 청춘을 소리 없이 떠나보냈던 그 시절은 이제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 남아 있다"고 머릿말에 썼다.

독자에겐 소설의 제목이 익숙할 것이다. 요절한 가수 김광석의 노래 '이등병의 편지'를 한번쯤은 듣고 부른 기억 때문이다. 저자는 불교방송국 기자로 일하던 시절 가수 김광석과 심야 생방송을 마치고 포장마차에서 소주 마시던 일을 기억 속에서 꺼내놓았다.

어느 이등병에 대한 소설을 쓰고 있다는 저자의 말에 김광석은 소설책이 나오면 기념으로 '이등병의 편지'를 불러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이제는 우리들 기억 저 멀리로 떠나버렸지만 소설 제목에 세상을 일찍 등진 김광석에 대한 회상이 비치는 것은 바로 이 추억 때문인 것 같다.

김주일 기자

www.minjoksa.org

경전 강의시리즈 출간!

그동안 수많은 불자님들의 염원이었던 본격적인 강의 교재

경전강의시리즈는 다른 책과 다릅니다.

1. 대강백 스님들의 경전 강의 내용을 한 권의 책에 온전히 담아냈다.
2. 경전 원문과 그 독음, 번역, 강설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3. 어려운 한자를 골라내어, 그 독음과 뜻을 원문 바로 옆에 달았다.
4. 경전 강의를 들으며 직접 필기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5. 한 권만 있으면 다른 메모지, 책은 필요 없다.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이메일. minjoksa@cho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교재_ 01



금강경
깨지지 않는 법

정가 25,000원

대학승이신 성본스님의 금강경 강의!

한국 불자들에게 가장 사랑 받는 경전이자 한국불교의 소의경전인 『금강경』 강의 교재가 출간되었다.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파괴되지 않는 견고한 반야의 지혜로 일체의 중생심을 끊어버리고 타파하는 경전이다. 성본스님은 절망과 무기력에 지친 현대인의 괴로움을 달래줄 긍정의 힘을 금강경에서 찾고 있다.

★ 민족사 경전강의시리즈는 그동안 출판사로 직 · 간접적으로 연락을 주셨던 수많은 독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획되었습니다. 경전 강의 수업을 들으며 불편했던 독자님들의 고충을 풀어드리기 위해, 한 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기획 · 제작되었습니다.
민족사 경전강의시리즈는 경전 원문 · 번역 · 스님의 강설 · 어려운 한자 풀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강의를 들으며 직접 필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 민족사 경전강의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 출간될 예정입니다.

교재_ 02



유마경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정가 28,000원

대강백이신 무비스님의 유마경 강의!

대승불교운동의 선언서이자 재가 불자인 유마힐을 주인공으로 한 경전인 『유마경』 강의 교재가 출간 되었다. 유마경은 출가 중심의 편협하고 왜곡된 불교를 철저하게 비판하여 대승불교의 참다운 뜻을 밝히고 있다. 무비스님은 갖가지 고민과 불행 속에서 헤엄치는 현대인의 아픔을 보듬어 공감하는 힘을 유마경에서 찾고 있다.

中 '천년고찰' 인근 스타벅스 개점에 논란

최근 중국 항저우(杭州)에 있는 천년 고찰인 링인쓰(靈隱寺 · 영은사) 인근에 스타벅스 매장이 개설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월 24일 중국언론(China.org.cn)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2일 항저우(杭州)에 있는 사찰인 영은사(靈隱寺) 인근에 스타벅스 매장을 열었다.

영은사는 중국 10대 사찰 중 하나로 꼽히는 선종 사찰로 326년 창건됐으며 현재 건물은 청나라 말기에 복구됐다.

영은사 스타벅스 지점은 사찰 느낌이 나는 간판을 내걸고 내부도 중국식으로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스타벅스 매장을 찾은 한 항저우 시민은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인지도와 링인쓰의 가호(加護)가 있으니 매장이 번성할 것"이라며 "사찰 느낌의 간판과 중국식 인테리어가 어우러져 특별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1600여년의 역사가 있는 사찰에 상업적 냄새가 짙은 외국 브랜드의 커피 매장을 연 것은 중국 전통과 문화와 충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 중국 누리꾼은 고통에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불교의 비(悲) 개념을 써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상황을 빗대 "여기 가면 직원이 '비(悲)'로 드릴까요, 대비(大悲)로 드릴까요, 아니면 대자대비(大慈大悲)로 드릴까요' 라고 물으면 손님은 '비(悲) 추가도 되나요'라고 하는 것이냐"며 비꼬았다.

또 다른 누리꾼은 "향불과 커피의 향이 혼재된 것이 진한 상업성의 냄새"라고 비판했다.

1500년 선종사찰 영은사 인근 입점
사찰 느낌 간판 걸고 중국식으로
"매장 번성할 것" VS "상업적이다"
"경제적 세계화에 관용적이어야"



영은사 스타벅스 지점의 점원이 판촉행사로 방문객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사찰 행정을 총괄하는 시후(西湖)관광구 관리소 측은 "스타벅스 매장이 사찰 안에 개설된 것이 아니라 인근 상업지구에 속해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상업 구역에는 이미 KFC 등과 같은 가게들이 이미 들어선 상황이다.

한편 스타벅스는 몇 년 전 베이징(北京) 쯔진청(紫禁城) 안에 개점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수한 바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왕핑(王平) 저장(浙江)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스타벅스와 영은사가 갖는 문화적 의미가 충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이라면서 "그러나 경제적으로 세계화되고 있는 오늘날에 이런 상행위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코란 불태웠다"소문…불교 사원에 방화

방글라데시 남부 무슬림 난동

방글라데시 남부 콕스바자에서 이슬람교도 수천 명이 불교 사원과 가옥 40여 동에 불을 지르는 등 난동을 일으켜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역 경찰에 따르면 무슬림들은 9월 30일(현지시간) 한 불교도 남자 어린이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슬람 성서 코란을 불태우는 사진이 실렸다는 소문이 돌면서 불교사원 등을 공격했다고 전해진다.

전날 밤 늦게 시작된 난동은 30일 오후 경찰이 추가로 배치되고 당국이 집회 금지 조치를 내린 다음에야 진압됐다.

현장을 둘러본 알람지르 내무부 장관은 "소수 민족에 대한 중대한 폭력 행위"라며 진상 조사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방글라데시 영자신문 데일리 스타는 "페이스북 계정 소유자인 불교도 어린이가 실수로 문제의 사진을 자신의 게시판에 연결시켰다"고 전했다.

약 1억 5천만 명인 방글라데시에서 이슬람교도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불교도 비율은 1%미만이다. 이나은 기자


무슬림 수천 명이 난동을 피우며 불태운 방글라데시의 한 불교 사원의 불상 앞에서 신도들이 기도하고 있다.

배우 패틴슨, 여친 불륜 불교로 달래

할리우드 배우 로버트 패틴슨(26)이 불륜설을 일으킨 여자친구 크리스틴 스튜어트(22)로 인한 슬픔을 불교로 달래고 있다고 전해진다.

美 라디오 진행자인 케네디 네이션은 10월 3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LA에서 가수 블래키즈와 주최한 프라이빗 콘서트에서 패틴슨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패틴슨과 술을 마시며 한 시간 동안 불교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패틴슨이 지난 7월 크리스틴 스튜어트와의 결별로 인한 상처를 불교로 달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로버트 패틴슨과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2008년 영화 '트와일라잇'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 그러다 스튜어트가 영화 감독 루퍼트 샌더스와 불륜스캔들로 패틴슨과 결별했으나 최근 패틴슨의 용서로 재결합했다. 이나은 기자


로버트 패틴슨(좌)과 크리스틴 스튜어트

티베트 시인 SNS에 독립 주장 후 분신자살

중국 시짱(西藏)자치구(티베트) 나취(那曲) 지역에 거주하는 티베트 작가가 자신의 SNS에 독립을 옹호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분신자살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티베트 독립을 옹호하는 웹사이트 '파율(phayul)'은 10월 4일(현지시간) "이날 오전 10시께 나취 지역 비루(比如)현의 구드루프〈사진〉라고 불리는 한 40대 남성이 분신자살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09년 티베트 인권 단체들이 분신자살에 대해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로 53번째의 분신자살이다.

목격자에 따르면 고인은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시짱자치구)로 돌아와야 한다" "(지금)어디로 가든 진정한 자유가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친 뒤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이나은 기자

일본 불교학의 새로운 시점 제공

세계의 불교학자(36)



이시이 코우세이
日 고마자와대 교수

이시이 코우세이(石井公成 · 62) 일본 고마자와대 교수는 해박한 지식을 기초로 일본 불교학의 새로운 시점을 제공하는 학자다.

그는 중국 화엄종 · 선종 · 지론종을 기본적으로 전공했으며 한국 · 일본 · 베트남의 불교사상과 역사 연구에도 관심을 보인다. 또한 순수 불교학에 머무르지 않고, 불교와 문학과의 관계, 근대 아시아 제국에서의 불교와 내셔널리즘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특히 그는 불교학연구에 컴퓨터를 도입해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1950년 도쿄에서 태어난 이시이 교수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 생명의 무상함에 대해 자주 생각했다. 근처 큰 묘지에 나가 유명한 사람의 묘비명(墓碑銘) 읽는 것을 좋아했다. 대학에 들어갈 무렵에는 메이지유신 · 중국혁명 · 인도혁명을 비교 검토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이러한 관심은 동양의 전통과 근대 서양의 충돌이라는 사태, 그리고 나라마다의 특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1976년 와세다대학 문학부에서 동양철학을 전공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시이 교수는 1985년 와세다대학 대학원에서 동양철학을 전공했으며 1988년에는 와세다대학 강사를 지냈다. 1994년에는 고마자와(駒澤)단기대학 불교과 조교수에 임용됐다. 같은해 '화엄교학의 연구'로 박사(문학) 학위 취득했고, 1996년 고마자와대 불교학부 교수가 됐다.

이시이 교수의 문제의식 및 연구방향은 주요 저서인 〈화엄사상의 연구〉(1996년)의 머리말에 잘 나타나있다.

그는 논문에서 "원래 화엄 교학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중국 화엄종의 조사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계통의 사상을 의식하면서 스스로의 교학을 구축했는지, 그리고 그 교학이 한국이나 일본에서 어떻게 전개됐는지 밝히려 했다"며 "하지만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그러한 문제의식 자체가 전통적인 불교학에 묶여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시이 교수는 일본의 전통적 불교학 안에 체계화돼 무의식적으로 고정화된 사고의 틀을 바꾸려 했다. 중국-한국-일본이라는 폐쇄된 지리적 영역과 인도-중국-일본으로 흐르는 일방적인 시간의 틀을 재검토함으로써 실제 문헌에 입각해 역사적 실정을 밝히는데 주력했다.

또한 이시이 교수는 주변지역 불교에 대한 연구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의상의 〈법계도〉, 원효의 화쟁사상 등 주제로 한국불교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그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종래에 지적된적이 없는 〈법계도〉의 반시(盤詩)라는 형식에 대해서, 중국의 회문시(回文詩)와의 관련을 지적했으며, 사상적으로도 지론종이나 초기선종과의 관련성을 밝혔다.

또한 원효의 연구에서는 화쟁사상을 배경으로 중국 사상이나 〈능가경〉 사상과의 관련을 지적했다. 이러한 의상 · 원효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이시이 교수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석마가연론(釋摩訶衍論)〉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의상과 원효의 양자의 사상이 융합한 것임을 논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시이 교수는 근대 아시아 제국의 불교와 내셔널리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대동아공영권의 합리화와 화엄철학' 시

중국 화엄종 선종 등 연구
한국 일본 베트남 불교도 연구
불교학연구에 컴퓨터 도입

리즈다. 이 논문은 제2차세계대전 중 일본이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이라는 생각을 합리화할 때, 기히라 다다요시(紀平正美)나 교토학파(京都學派) 등이 이용한 화엄철학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논하고 있다.

이시이 교수의 큰 업적으로는 불교학연구에 컴퓨터를 재빨리 도입했다는 것이다. 그는 타이쇼신수대장경(大正新脩大藏經)을 전자 텍스트화한 텍스트 데이터베이스(SAT)를 구축했다. 또한 일본 불교학관련 잡지의 논문 데이타베이스(INBUDS) 구축작업에도 참여했다.

불교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이시이 교수의 연구는 무궁무진하다. 그는 한 교계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불교학연구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헌을 정확하게 읽어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연구의 기본인 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 또한 대장경의 전자화에 오래 관련해 왔고, 이 만큼 전자 데이터가 갖추어져 왔는데도 젊은 연구자 중에서 뛰어난 연구가 별로 늘어나지 않은 것은 기본이 약하기 때문이다. 불교 뿐만 아니라, 고대 · 중세 · 근세의 사람들이 읽은 여러 문헌을 폭넓게 읽어, 연구대상의 인물에 가까운 교양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나은 기자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확인천도 비법전수

일반적인 천도재가 아닌 내가 보고 체험하는 확실한 영가천도방법을 전수합니다. **환자**와 **가족분들**이 **확인**이 **가능**

1. 영가는 있는데 확인을 해 줄수 없는 스님, 법사님.
2. 영가를 환자의 몸에서 확인.**(6하원칙에 의한 빙의 경로확인)**
3. 최면과 차원이 다른 기도를 통한 영적인 가르침.
4. 일반병. 정신병과 영가 장애 질환의 구분확인.**(질병의 원인 영가장애 확인)**
5. 난치병 뒤에 숨은 영가를 확인하여 본인이 알 수 있도록 영가를 몸으로 행동으로 표출한다.
6. 영가에게 말을 가르치는 방법과 빛을 보고 천도되게 하는 방법.
7. 스님의 고질병, 영가장애확인, 신도들의 영가확인.
8. 파동교감법, 영혼심령술, 자율신경계통제법, 오장육부파동교감법을 통한 확인 본인이 직접 천도확인 가능.
9. 암, 당뇨, 고혈압, 중풍, 치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불면증, 환청, 환시, 무속병, 대물림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원인 규명이 안되는 질환 (일반 불자님이나 스님의 난치병 상담) 사찰내 건강프로그램 운영하실분, 대체의학센타 운영에 관심있는 스님과 신도분, 우뇌교감 난치병치유방법 전수
10. **영가의 수준확인 저급영가 - 한과집착질병호소 중급영가-진리을 찾아 방황과혼돈 고급빙의-깨달음에 대한 갈망과열정**

◆ 10주과정 스님. 법사. 포교원. 퇴마공부 하시는분 약간명 모집 ◆

- 기도명상, 만다라진언수련, 영언수련 자신의 영혼과 교감으로 내가 이 세상이 온 목적과 이유 삶의 가치를 확립. 영혼이 윤회의 확실한 기억을 알게함.
- 교육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저녁 7시 스님과 조정후에 결정 개별지도 및 단체지도, 사찰 출장강의 지도합니다.
- 형편이 어려운 일반불자분은 재능봉사 기부를 통한 치유합니다.

※ 포교원 스님 영가확인 **천도 특별지도**해 드립니다.
※ 확인이 안된 영가질환은 치유 안합니다. 본인 확인 과정 꼭 거칩니다. - 원 장 여산법사 합장

인체전氣파동의학원 043)296-5258 / 010-9242-525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42-21 바우빌딩 5층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왜 단주를 돌리곤 했을까"

흥선대원군의 염주


평상복 입은 '흥선대원군' 영정

인사동의 끝자락에 위치한 안국역에 가면 사적 제 257호로 지정된 운현궁(雲峴宮)이 있다. 바로 이 곳이 원래는 흥선대원군의 사저였는데, 지금은 그 일부가 덕성여대의 교사(校舍)로 쓰이고 있다. 조선 26대 왕인 고종이 12세까지 자라던 장소이고, 명성황후가 세자빈이 된 후 거처하던 곳이다.

소설가 금동(琴童)김동인(金東仁)이 1933년에 조선일보에 연재한 그의 대표작인 소설이 바로 이 궁의 이름을 땄다. 〈운현궁의 봄〉이라는 이 소설에서 흥선군 이하응의 일대기를 흥미진진한 사건을 번갈아 연결하면서 재미있게 윤색해서 쓴 것을 어린 시절 읽은 적이 있다.

이 곳에서 흥선군은 서원을 철폐하고, 경복궁을 중건하고, 세제를 개혁하는 등의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금은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개방되어 유물전시관을 개관하고, 고종이나 명성

평상복 차림의 이하응 모습

염주는 복잡한 심정 보여줘

황후의 가례를 재현하고, 국악공연 등의 공연을 진행하는 곳이 되었다.

흥선대원군이 고종 2년(1865)에 절을 중창불사했는데 그곳이 바로 흥천사이다. 그의 지원으로 각도(各道)에서 시주를 받아 절을 다시 지었다. 이때 그는 흥천사라는 이름으로 복원하도록 하고, 휘호를 내렸으므로 지금도 만세루에 그 현판이 걸려 있다.

조선조 원찰중에 최초의 사찰인 이 절은 태고종의 노스님들이 거주하면서 퇴락했던 것을, 지금은 낙산사를 성공적으로 중창불사하신 정념 스님께서 중창을 맡아 강북을 새로이 대표하는 고찰로 만들어가고 있다.

사찰 내에는 아직도 보물로 지정될 만한 귀중한 불교문화재가 많이 남아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태조 이성계가 지었던 사리전이다. 중종 5년(1510) 3월에 중학의 유생들이 이단을 쓸어버린다고 불을 질러 보물, 불경과 통도사에서 전해오는 우리나라 유일의 석가여래의 사리만을 안치한 이 전각이 불타버렸다.

또 하나는 세조 7년(1461)에 제작한 흥천사 대종이다. 일제시대에 덕수궁에 옮겨져 현재까지 걸려 있는 것이다. 흥천사 종명(鐘銘)은 특히 세조 당시 최고의 명필이었던 정난종(1433~1489)의 글로 더욱 귀중한 종이다.

만약에 대종을 다시 절로 옮기고, 사리전을 다시 건립하고, 통도사의 진신사리를 다시 모신다면 한국의 중심인 서울에서 불교를 대표하는 대찰이 될 가능성이 많은 절이다. 한 때는 140명의 스님들이 거주하던 큰 절이였다니 지금 돌아보면 많이 아쉽다.

여기 소개하는 영정은 도화서 화원인 희원 이한철과 혜산 유숙이 1869년에 그린 그림이다. 비단에 담채로 아름답게 그린 이 영정은 평상복차림의 이하응이 의자에 좌정하고 앉아 그림을 그리고 낙관을 찍거나 사무를 본 흔적이 있다.

크기는 133.7×67.7㎝이고 보물 제1499호로 지정되어 지금은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된 그림이다. 이 영정이 특이한 것은 조선조에 그려진 많은 영정들과는 달리 고인의 평소 생활을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많은 지물(持物)들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칼자루 없는 장검이 책상에 비스듬이 기대있고, 책상위에는 인주함과 붓, 자명종과 찻잔, 안경과 향로 등이 있다. 여기서 유교를 국시(國是)로 한 조선의 군주로서 그가 항상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불교유물이 있다. 바로 염주다.

염주는 수주(數珠)·송주(誦珠)·주주(呪珠)라고도 하며 염불의 횟수를 기억하는 구슬들을 꿴 것이다. 〈목환자경〉에 의하면 "번뇌를 없애고자 하면 목환자 108개를 끼워서 항상 지니되, 앉거나 걷거나 눕거나를 막론하고 불법승(佛法僧)의 명칭을 외우고 외울 때마다 목환자 하나씩을 넘겨 그 수가 많아질수록 업장이 소멸되어 더없이 안락한 과보를 얻는다"한다.

이하응 거사가 손에 쥐고 돌리곤 했던 이 단주는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춘추전국시대처럼 파란이 많았던 조선왕조의 말년을 살았던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는 법구(法具)이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반쪽 몸으로 귀환한 "고려 범종"

울산박물관 임강사 종 전시

문화재는 지나간 시간을 온 몸으로 증명해준다. 어디에 있든 지나간 시간과 역사적 정황을 설명해주는 총체적 산물이 바로 문화재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 문화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생겼다. 바로 울산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임강사종이 그것이다.

고려시대 만들어진 울산 임강사종은 고려 후기 일본으로 반출됐다. 초창기에는 미야자키(宮崎)현의 평등사(平等寺)에 걸려 있다 이후 오사카로 흘러 들어가 1874년 정우사 주지스님이 구입해 소장하게 된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5년 3월 미군의 폭격을 맞아 안타깝게 일부가 소실되고 말았다. 종은 머물렀던 절 이름에 따라 '평등사종' '정우사종'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임강사종이었다.

임강사종이 고향 울산을 찾았다. 울산박물관은 내년 5월 중순까지 울산 임강사종을 전시한다. 비록 상처 입은 몸이지만 고려시대 울산 범종으로는 유일한 자료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에 있는 고려 범종 가운데 걸작으로 평가받아 국보로 지정됐다. 종의 크기는 높이 116.7cm, 지름 67.2cm, 무게 213kg이었다. 종 표면에는 고려 초기 울산의 지명인 '흥려부(興麗府)'와 종이 있었던 임강사, 종을 만든 사람들 이름, 제작 목적 등을 기록한 명문이 있었다. 그러나 명문 부분은 현재 사라져 버렸다.

일본으로 반출돼 2차 대전 중에 일부 파손된 임강사종(사진 왼쪽)이 고향 울산을 찾았다. 울산박물관은 내년 5월 중순까지 울산 임강사종을 전시한다. 사진 오른쪽은 정우사에 전시되고 있는 복원된 임강사종

고려후기 일본으로 반출

우수성 인정받아 국보 지정

2차 세계대전 일부 소실

울산박물관 조규성 학예연구관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탁본 사진과 흑백 사진을 보더라도 우수한 점을 알 수 있으며, 잔존 부분의 금강역사상 문양도 매우 뛰어나다. 오사카 교육위원회는 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2009년 10월 복제품을 만들어 2010년 4월 정우사에 기증했다. 그 후 임강사종은 정우사에서 복제품과 함께 나란히 놓여 있었다"고 전한다.

울산박물관은 재일교포 등의 도움을 얻어 올해 임강사종 실물과 함께 복원도를 전시하게 됐다. 조 학예연구관은 "종을 대여 전시하기까지 정우사 오오노(大野光輝) 주지스님의 협조와 오사카에 거주하는 재일교포 의사 강건영 박사의 도움을 받았다. 강건영 박사는 일본에 있는 한국 범종에 대해 연구하고 단행본을 출간했으며 임강사종을 국내에 널리 소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울산 박물관은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太和寺址 十二支像舍利塔) 보물 제441호도 전시한다. 이 사리탑은 1962년 태화동 반탕골에서 발견되었으며 선덕여왕 당시 창건된 태화사와 관련 유물로 보고 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태화사는 자장(慈藏)이 643년(선덕여왕 12) 당나라에서 가져온 석가여래의 진신사리 일부를 봉안했던 사찰이다. 탑신은 종 모양인데, 앞면에 감실을 설치했다. 표면에는 12간지에 나오는 열두 마리 동물을 돋을무늬로 새겼다.

지금까지 이를 선승의 탑으로 보고, 신라 하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보관하는 사리탑일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후자의 견해가 우세하여 2010년 12월 '부도'에서 '사리탑'이란 명칭으로 변경됐다. (052)222-850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둥글고 밝은 빛 세상에 전해"

동성스님 선화 초대전

'둥글고 밝은 빛 동성스님 선화 초대전'이 10월 3~6일까지 수원봉녕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달마도, 천진불, 미소동자, 관음도, 나한도 등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스님은 깨달음의 자유, 청정성의 본연, 무관심의 희열 등 모든 작품에 삶과 생명의 빛나는 장엄을 이루고자 하는 희망을 표현했다. 또한 '둥글고 밝은 빛'을 통해 부처님의 원만한 덕성과 지혜광명을 불어넣었다.

이번 전시는 수원 봉녕사 제4회 사찰음식 대향연에 맞춰 진행됐다. 10월 3일 전시 개막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 동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 종회의원 원학 스님, 범어사 박물관장 경선스님, 보광사 주지 종훈 스님, 봉녕사 주지 자연 스님, 학장 도혜 스님, 율원장 적연 스님, 김용정, 양형진, 조기숙 교수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봉녕사 주지 자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현대사회는 가치관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며 "이번 선화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고요한 마음을 이루고 참 나를 찾는 인연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동성 스님은 1964년 통도사에 입산득도한 이후 조계종 중앙교육원, 범어사 불교전문강원, 동국대 및 동 대학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에서 수학했다. 고천 배재식, 평보 서희환 선생으로 서법을 사사하며 운보 김기창 선생으로부터 화법을 개도 받고, 한국 중국 일본 티벳 등의 불교미술과 전통불화를 습득하며 붓다의 가르침과 화두가 있는 선화를 창작했다.

1978년부터 세계 주요도심에서 개최된



동성 스님 作 '천진불'

10여회의 기획전에 초대작가로 활동해 왔다. 또 '한 송이 연꽃이 되어, 깨달음과 자유의 달마도, 공 -다르마, 둥글고 밝은 빛'이라는 개인전 및 개인초대전 20여회를 개최하며 문화포교를 선도했다.

한편, 스님은 2013년 인도 델리대 및 뭄바이대에서 선화초대전을 열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손으로 만다라 만들어봐요"

문화공간 숨도 가을 강좌 진행

불교문화진흥원이 운영하는 문화공간 숨도에서 손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이 마련됐다. 숨도는 손으로 하는 수행, 색색 만다라 만들기 등 다양한 강좌를 마련 손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강연은 ▷손강연(10월 11일)·몸으로 생각하는 인간 ▷손연극(10/13)·손으로도 연극을 할 수 있다? ▷손글씨(10월 20일)·좋은 글은 손으로 읽으면 '더' 좋다! ▷손공작(10월 27일)·창고 속의 친구를 구하라! ▷손만다라(11월 3일)·손으로 하는 수행, 색색 만다라 만들기 등으로 구성된다.

수업은 문화공간 숨도 작은 강당에서 오후 1시에서 5시까지며 진행되며 참가비는 1일 1만원이다.

참가를 원한다면 이메일(soomdo@naver.com) 혹은 방문 접수하면 된다.

(02) 717-3535 정혜숙 기자

연꽃과 LED조명과의 만남!

수공예 창작 연꽃조명

생화와 흡사한 고무소재의 고급연꽃에 LED조명을 넣었습니다.
주로 법당에 부처님 좌우로 놓여지며, 재가불자님 가정에, 수행 하시는 스님법전에 놓여집니다.
고무재질의 고급 연꽃으로서 생화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며 연꽃, 연밥, 연잎, 극락조로 잘 조화된 100% 수공예 창작품입니다.

연등과는 달리 연꽃 자체에 LED조명이 켜지므로 신비롭고 영험함을 더해줍니다.
세속이 찌들고 더럽다 하여도 제한몸 정갈히 살고픈 불자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제작했습니다.
처염상정 연꽃에 등 밝히시어 부디 성불 하십시오.




꽃과조명 LED ART FLOWER
NAVER 카페 꽃과 조명 cafe.naver.com/flowernled

주문제작문의 010-2692-4632 / 010-9231-1192
네이버카페 꽃과조명 (http://cafe.naver.com/flowernled)
제휴쇼핑몰 불교TV(btn mall) / 사찰몰 종로불교 / 모란불교용품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개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의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신라의 황룡사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왕부터 서민까지 신라인 총동원 창건

과거 불국토사상

과거 불국토사상은 붓다가 태어난 인도 뿐만 아니라 이곳 신라도 과거부터 붓다와 인연이 있는 국토였다는 것이다. 불교의 『아함경』「대본경」에는 과거 7불사상의 원형이 투영되어 있다. "비구들이여! 지금부터 91겁 전에 비바시 여래지진(如來至眞)이라는 부처님이 있어 이 세상에 나오셨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31겁 전에 시기 여래지진이라는 부처님이 있어 이 세상에 나오셨다. 비구들이여! 또 그 다음에는 저 31겁 중에 비사바 여래지진이라는 부처님이 있어 세상에 나오셨다. 비구들이여! 또 그 다음에는 현재의 현겁 중에 구루(류)손이라는 부처님과 구나함이라는 부처님과 가섭이라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다. 그리고 나도 지금 이 현겁 중에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 여기서 비바시-시기-비사바[부]-구루[류]손-구나함-가섭-석가모니불로 이어지는 과거 7불은 법신-보신-화신 또는 자성신-수용신-변화신으로 구분되는 삼신(三身) 사상과 함께 대승불교의 불신관(佛身觀)으로 전개되었다.

대승불교에서는 붓다의 몸에 대해 깊이 사유하였다. 윤회를 벗어난 붓다의 몸은 시간과 공간에 걸림없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생의 세계에 나타나는 붓다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었다. 해서 시간적으로는 과거 장엄겁-현재 현겁-미래 성수겁의 부처로, 공간적으로는 법신-보신-화신 또는 자성신-수용신-변화신의 부처로 구분해 보았다. 삼세의 시간관으로는 과거의 연등불과 현재의 석가모니불과 미래의 미륵불로 구분된다. 그런데 미륵계통의 경전에서는 일곱 붓다 중 앞의 비바시-시기-비사부의 삼불은 과거 장엄겁(莊嚴劫)에 나툰 붓다라고 설한다. 그 뒤의 구류손-구나함-가섭-석가모니불은 현재 현겁(賢劫)에 나툰 부처라고 설한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성수겁(星宿劫)에는 미륵불이 나툰다고 설한다. 때문에 미륵경전에서는 과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가 사는 현재의 현겁 세상에는 구류손-구나함-가섭-석가불만이 오시며, 미래의 성수겁에 오실 붓다는 다섯 번째의 미륵불이라고 한다. 미륵 경전에서는 과거 장엄겁의 붓다를 제외하고 현재 현겁의 4불과 미래 성수겁의 1불을 세워 다섯 붓다를 등장시키기 때문이다.

대승 이전 불교에서는 역사적 붓다인 천백억화신(千百億化身) 석가모니불과 비역사적 붓다인 청정법신(淸淨法身) 비로자나불의 두 불신만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붓다의 화신인 보살의 존재가 등장하면서 보신불이 시설되었다. 해서 수행의 과보로서 받는 몸인 보신으로서의 붓다는 역사적 붓다인 석가모니불과 비역사적 붓다인 비로자나불의 두 측면을 아우르는 원만보신(圓滿報身) 노사나불 혹은 아미타불과 같은 존재로서 상정되었다. 때문에 보신불은 우리와 같은 색깔과 형상을 띠고 변화의 몸을 지닌 역사적 붓다와 진리의 육화로서의 자성의 몸을 지닌 비역사적 붓다를 모두 아우르는 수용의 몸을 지니고 있다. 이 수용신은 다시 깨달음의 법열을 자신을 위해 쓰는 자수용신(自受用身) 그 법열을 남을 위해 쓰는 타수용신(他受用身)으로 구분되었다.

그런데 신라의 수도 경주 황룡사 법당에 연좌를 잡았던 장육존상의 존호는 가섭불이었다. 이 연좌석의 시설은 역사적 존재이자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불(현재불)의 고국인 인도에 앞서 과거 여섯 번째 부처인 가섭불이 이곳에 와서 설법을 하였던 자리라는 것이다. 즉 석가모니불 이전의 붓다인 가섭불이 신라에 와서 불연(佛緣)을 맺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도보다 먼저 신라에는 불교가 이미 전해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불교적 통찰력과 예지력 위에서 신라 본위(本位, 중심)로 구축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붓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이다. 인도에 붓다가 있었다면 신라에도 붓다가 있을 수 있었다. 인도의 고타마 싯다르타가 출가 수행하여 얻은 깨달음이 가장 완벽하여 그는 석가불로 탈바꿈한 뒤 종래의 '붓다' 개념을 '독점' 하였을 뿐이다. 연기법(緣起法)이란 붓다가 이 세상에 오던 오지 않던 이미 있던 것이며, 붓다는 연기법을 발견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설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진흥왕과 황룡사 장육존상

〈삼국유사〉에서 '황룡사'를 조목명으로 하는 곳은 3곳이며 '가섭불 연좌석'까지 치면 4곳에 이른다.

황룡사 법당 장육존상 존호 가섭불
황룡사 조목…진흥 · 진평왕 등 등장
진흥왕의 역할 모델은 아쇼카왕
토착신앙 융합 · 정치대립 극복

고구려와 백제와 가야가 왕실의 적극적 지원에 의해 불교를 공인한 것과 달리 신라는 법흥왕의 출가와 이차돈의 순교라는 '신략'(神略)에 의해 불교를 공인하였다. 때문에 6부족들이 믿어온 고유신앙과 왕실이 지지한 불교신앙의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았다. 병부의 설치와 율령의 반포 및 공복의 제정을 꾀했던 법흥왕과 왕비는 만년에 몸소 출가까지 하였다. 그를 이은 진흥왕과 왕비 역시 만년에 출가를 하였지만 재위 시절에는 고유신앙과 불교신앙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진흥왕은 미소녀(美少女) 중심의 원화(源花)제를 시행했다가 폐지한 뒤 다시 미소년(美少年) 중심의 풍월도(風月道)를 시행하였다. 풍월도 역시 고유신앙과 불교신앙의 접점을 모색하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어 안장(安藏)법사를 대서성(大書省)에 임명(550)하였으며, 고구려에서 온 혜량(惠亮)을 승(국)통을 시켜 불교를 통관(551)하게 하였다. 혜량은 신라에서 처음으로 백고좌법회와 팔관회를 거행하였다.

이차돈의 순교와 법흥왕의 출가로 최초의 절인 '대왕흥륜사'가 창사되었다. 하지만 그곳은 신라의 성황당이었던 천경림(天鏡林)을 베어내고 불교의 사찰을 지은 곳이었다. 때문에 진흥왕에게는 보다 본격적인 창사가 필요하였다. 그는 먼저 월성 동쪽, 용궁 남쪽에 궁궐(紫宮)을 지으려 하였다. 황룡이 그 터에 나타나자 왕이 의아하게 여겨 다시 불사를 세우기(553)로 하고 17년 만에 공사를 마치고(569) 황룡사라 하였다. 재위 26(565)년에는 진나라 사신 유사(劉思)와 승 명관(明觀)이 경론 1,700여권을 가지고 왔다. 뒤이어 기원사(祇園寺)와 실제사(實際寺)도 창사하였다. 때마침 남쪽 바다로부터 큰 배 한 척이 와서 하곡현(울주)의 사포(谷浦)에 정박하였다. 배를 조사해 보니 첩문(牒文)이 있었다. 거기에는 "인도 아육왕이 황철 5만 7천 근과 황금 3만 푼을 모아 장차 석가삼존상을 주조하려다 이루지 못하고 배에 실어 바다에 띄우면서 축원하기를 '부디 인연 있는 나라에 가서 장육의 존귀한 모습을 이루소서'라 하였다"고 씌어 있었다. 아울러 부처상 하나와 보살상 둘의 견본도 함께 실려 있었다.



신라의 국찰이었던 황룡사의 9층목탑터. 현재 옛 모습을 되살리기 위한 발굴과 복원 작업이 한창이다.

고을의 관리가 실상을 글로 써서 왕에게 보고하자 왕이 칙사를 보내 그 고을의 성 동쪽에 높고 밝은 땅을 골라 동축사(東竺寺)를 세우고 세 불상을 모셔 안치했다. 금과 철은 서울로 실어가 태건 6년 갑오(574)년 3월에 장육존상(丈六尊像)의 주조가 단번에 이루어졌다. 무게가 3만 5,007근으로 황금이 1만 198푼이 들었고, 두 보살은 철 1만 2천근, 황금 1만 136푼이 들었다. 황룡사에 모시자 이듬해 불상에서는 눈물이 발꿈치까지 흘러 땅이 한 자나 젖었으니 대왕이 세상을 떠날 징조였다. 일연은 이 사실이 진평왕 시대의 기록이라는 일부 주장을 틀렸다고 하였다. 어떤 책에서는 인도의 전륜성왕이자 진흥왕의 역할 모델이었던 아육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아육왕이 인도 대향화국(大香華國)에서 석존이 입멸한 뒤 1백 년만에 태어났다. 그는 석존께 공양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겨 금과 철을 조금 모아 세 번이나 불상을 주조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때 왕의 태자가 홀로 이 일에 참여하지 않자 왕이 태자를 힐책하였다. 태자가 말씀드리기를 '혼자 힘으로 될 일이 아니므로 일찍이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사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즉시 그것을 배에 실어 바다에 띄워 남염부제 16개의 큰 나라와 5백의 중간 크기의 나라와 1만의 작은 나라, 8만이나 되는 촌락을 두루 돌아다니지 아니한 곳이 없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라국에 도착하자 진흥왕이 문잉림(文仍林)에서 주조하여 불상을 완성하니 상호가 다 갖추어졌다. 이로써 아육왕의 근심이 없어지게[無憂] 되었다." 신라에서 장육존상이 주조됨으로써 저 8백 여년 전 인도의 아쇼카왕 이름처럼 진흥왕이 '근심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흥왕의 이미지가 그의 역할 모델이었던 아쇼카왕의 이미지와 겹쳐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진흥왕은 왕자 이름도 아쇼카왕을 따라 사륜(金輪, 舍輪), 동륜(銅輪)으로 지었다.

자장과 황룡사 구층탑

신라의 국찰이었던 황룡사 관련 조목에는 진흥왕뿐만 아니라 진평왕과 선덕여왕도 등장하고 있다. 황룡사가 국가의 대찰이었던만큼 이 절과 관련된 왕들과 고승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자장은 황룡사와 가장 깊은 인연을 가진 고승이었다. 1) 자장은 선덕여왕 때에 당나라로 유학하여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감응하여 비결을 받았다. 문수보살이 부촉하여 말하기를 "너희 나라의 황룡사는 바로 석가와 가섭불이 강연하시던 곳으로 연좌석이 아직도 거기에 있다. 이 때문에 인도의 아육왕이 황철을 조금 모아 바다에 띄워서 1천 3백여 년이 지난 뒤에 그것이 너희 나라에 닿아 불상이 이루어지고 그 절에 모시게 되었으니 대개 부처님의 위엄과 인연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고 했다. 불상이 완성된 뒤에 동축사의 삼존상도 이 절로 옮겨 모셨다.

문수보살은 또 말하였다. 2) "너희 나라 왕은 바로 인도의 크샤트리아 종족의 왕족으로서 이미 부처님의 수기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인연이 있으므로 동쪽의 오랑캐나 공공(共工, 야만족)과는 다르다. 그러나 산천이 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성격이 거칠고 사나우며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믿어서 이따금 천신이 화를 내린다. 하지만 다문비구가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들이 매우 편안하고 모든 백성들도 평화롭다"고 하였다. 말을 마치자 문수보살이 보이지 않아 자장은 이것이 바로 보살의 화신임을 알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물러나왔다. 또 3) 중국 태화지(太和池) 옆을 지나는데 홀연히 신인(神人)이 나와 묻기를 "어찌하여 이곳에 왔소?"라고 하였다. 자장이 대답하기를 "깨달음을 구하려고 왔습니다"라고 하자 신인이 그에게 절하며 다시 묻기를 "그대의 나라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소?"라고 하였다. 자장이 말하기를 "저의 나라는 북쪽으로는 말갈에 닿아 있으며 남쪽으로는 왜나라 사람들과 접해 있고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가 번갈아 국경을 침범하여 이웃나라 적들이 함부로 날뛰니 이것이 백성들의 걱정입니다"라고 하였다. 신인이 말하기를 "그대의 나라는 여자를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덕은 있으나 위엄이 없소. 그래서 이웃 나라가 침략을 도모하는 것이니 속히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오"라고 하였다.

자장이 묻기를 4) "본국으로 돌아가 무엇을 해야 이익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신인이 말하기를 "황룡사의 불법을 옹호하는 용이 나의 맏아들로 범천왕의 명령을 받고 가서 이 절을 보호하고 있소. 본국에 돌아가 절 안에 9층 탑을 세우면 이웃 나라들은 항복할 것이고 9한(韓)이 와서 조공할 것이며 왕위가 길이 편안할 것이오. 탑을 세운 뒤에는 팔관회를 열고 죄인들을 용서하여 석방하여 주면 외국의 적들이 침해할 수 없을 것이요. 또 나를 위해 서울 부근 지방의 남쪽 언덕에 절 한 채를 지어 내 복을 빌면 나 역시 그 은덕에 보답하겠소"하고 말을 마치자 드디어 옥을 받들어 바치고 홀연히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자장이 만난 문수보살의 이야기에서 1) 아쇼카왕와 진흥왕의 재위는 약 8백 여년의 거리가 있을 뿐인데도 1천 3백 여년이라고 한 것은 시대상으로 따지면 맞지가 않다. 1), 2)의 문수보살과 3)의 태화지에서 만난 신인이 같은 인물인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

다만 4) 신라의 국가 대찰 황룡사 창건과정과 구층탑 조성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찰의 창사에 위로는 불보살을 비롯하여 왕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신라인들이 총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흥왕의 불교 공인과 진흥왕의 불교 흥법과 영토 확장 이래 신라는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이 문예부흥의 에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의 대찰인 황룡사의 창사를 도모하였다. 진흥왕은 이 국찰의 창사에 저 인도와 중국 및 주변의 여러 나라들까지 동원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황룡사 창건을 통하여 대외적으로는 신라문화의 우수성을 만천하에 공표할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불교의 통합원리에 기초하여 토착신앙을 융합하고 있으며, 정치집단 사이의 대립들을 극복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황룡사 창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재래신앙과 불교신앙의 갈등을 해소하는 주역이 '다문비구'였다는 점과 안함과 자장과 같은 선지식들이 주역이었다는 사실이다. 자장이 만난 오대산의 문수보살과 중국 태화지의 신인 및 강원도 갈반사의 노인 등은 모두 불교와 재래신앙의 화해와 통합을 상징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분단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안함과 자장과 같이 통효한 다문비구들을 학수고대하는 것은 무리한 일일까?

참고문헌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하)』(민족사, 2005; 2007).
고영섭, 『불교적 인간』(신아사, 2010).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 진(眞) 참회문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배와 함께 하면 전생의 악연이
사라져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하는
108 참회문 - 108 진참회문
☏ 031-534-3373

지혜와 공덕, 깨달음
성취하는 생산적인 도道!



불교TV 방송강의中

타방정토와
유심정토를 포용하는
《일심정토 염불수행》
정목스님 지음
변형 신국판 | 칼라 | 232쪽
13,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우리 시대의 원효 정목 스님이 들려주는 정정취의 깨달음
환경과 의식을 창조하는, 체험으로 증명되는 마음의 과학!

원효 대사의 일심정토 염불수행은 독창적인 정토사상이요 순수한 한국불교이며, 중생을 구제하는 가장 대중적인 수행법이다. 염불삼매와 관불삼매를 성취한 정목 스님은 누구든지 염불수행을 통해 안심을 얻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대승불교의 신행체계를 확립했다.

양산 정토원: T.055-375-5844, 아미타파
(cafe.daum.net/amitapa)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신을 잘 지켜야 하리라.
평생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한 시기는 마음공부를 해야 하리라
-법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무속 선, 앉은거리 장단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양 도 공 고

(법인 등기된 종무법인임)
법인불교단체 양도
법인종단 양도
불교법인 양도
011-412-8040 법광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산신제 불공

산신제 불공 월 1회
미리 접수
바랍니다
010-8676-6132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수익사업 공고

1. 연못장 가족화분 납골묘 설치
개별납골 그 위에 연꽃을 심어드림
500~2천만원(유리뚜껑은 선택)
2. 기일제사 안하고 명절재사만 지낼 집
3. 육지 부주갱이 나물 튀각용, 효소 주문용
울릉도 부지갱이와 같은 종류 부주갱이 나물
4. 전자납골당 500~1천만원 활용 1년
041)544-4441 한학선원
충남 아산시 도고면 신룡길 192-21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지장대사 원력 천도법

1. 조상빙의와 대화를 통한 천도재
2. 빙의 퇴마 치료전문
3. 가정우환, 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4. 엑소시스트도 치료 못한 환자도 치료
금 강 사
010-2418-6222

어찌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가?

<대구 남구 대명동>
한제원
053)623-2202
010-7507-2105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쉼 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립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번뇌의 굴레에서 해탈을 생활의 고통을 벗어나는 생명의 글문 비방

• 불치병상담(병명이 안나오는병)
• 야토피 질환 해탈법 • 산소탈이나 풍수탈 해탈
• 사업성취, 소원성취 상담 • 가정사 상담
• 생활속에 활력을 찾는 달마상
(작은곳에서 큰 희망의 기쁨을 안으시길)
대한불교 불정사 도정스님
051)558-5585
010-4593-2918

조계종 고려고찰 산자수려하고 조용하고 깨끗한 산내암자인 내원암에서 본 종 비구니 40~60대 조석예불 및 자기기도, 참선수행 정진할 비구니 부전을 속히 구함. 그리고 큰스님 시봉 겸 공양받들 40~50대 보살님을 속히 구함 (사원 답사 후 보수는 상담 후 결정함) 국내 제2지장보궁 및 국민대참회도량 내원암

경북 054-653-1180
010-6353-118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신도시 지역)
011-9514-372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189-8745

공양주 모십니다

(충북 보은 속리산)
010-4502-6537

염불 잘하는 스님이 의식 집전해 드립니다

천도재,49재,바라,
나비, 회심곡
010-6569-10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합천)
010-9506-570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안양시)
031)471-597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2234-2198
010-8721-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1-764-3661

심 와 기 도

• 소원을 성취시키는 기도가 심와기도며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부산영산제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 사물 ❁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부 전 스 님 안 내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부전 사찰이 필요한 스님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010-5511-7000 (사주, 명리, 영가천는법 개인지도)
전통불교조계종에서는 종도 여러분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서귀포 정방사)
010-5219-7021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
031)585-4626

기도 스님 모십니다

(경주지역, 면접장소-서울)
011-417-6800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 051)721-6444

비구니 행자(예비스님) 모집

1. 부처님 공부는 큰 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철저한 행자(예비스님). 자율교육
3. 2년 공부 후 주지발령
4. 학력, 나이에 관계없음
010-2669-1800

보은영옥(자성사리) 사업공고

화장된 고인의 유골에 어떠한 광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혼합하지
않고 섭씨 2,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약30분내에
순수한 고인 의 유골만을 생성하는 기계입니다.
납골사리 1기당 130-150만원 / 지사 및 사업동반자 환영
1899-1042. 010-3679-1080
(주)보은의 사랑. 정각사 _ 대전시 중구 대흥동 468-1

단씨맹파명리 전문교육처

맹파명리 원저자 중국 단건업 선생 혼인응기특강
일 시 : 10월 27일 ~ 11월 3일 (토,일 : 주간 6시간, 평일야간 : 3시간)
내 용 : 다혼, 독신, 도화, 데릴사위, 부모반대결혼, 남편.
처를 극하는 명, 나쁜혼인, 좋은혼인, 음란명.
강의장소 : 서울 / 홈페이지 : www.mangpa.com
학산맹파명리연구원 011-1743-0543
한국단씨맹파명리학회 031)918-7550

한국불교대학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

http://cafe.daum.net/indelamang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은 장소, 시간, 남녀노소 어느것 하나에도
구애됨 없는 우리불교인 모두의 인터넷 사이버법당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053)474-8228, 010-9562-8228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해광 하순천 지음 .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값 15,000원 / 410면 / 전화 063)643-7285
◉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법문DVD와 CD무료보시



예천 법연선원 대공스님은
불교TV무상사 초청
일요법문 내용을 담은
DVD와CD를 무료 보시합니다.
011-861-6252

강 화 고 려 사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시 간 : 21 : 00 ~ 03 : 30
■ 내 용 : 법화경 전품 독송
■ 동 참 금 : 성의껏

천일동안 법화경 일천번 독송

한 가족 매일 축원 : 한 달 30,000
(전화/팩스 접수 가능)

■ 기도 · 요양 하실 분 환영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고려산에 소나무가 많아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3km 거리에 강화 해안도로가 있고,
15분 정도 절 뒤편의 산으로 오르면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법화경 독송 수행 도량입니다

■ 전화 032)932-3525 FAX : 032)934-3525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수행기간 중 대념처경 특강)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과 대념처경 특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념처경은 위빠사나 수행의 근거가 되는 경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전통으로 바라는 수행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전입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을 통해 행복의 삶을 바라신다면 지금 이 수행에 동참해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인 원	대 상
2012년 10월 20일 - 10월 26일 [6박 7일]	우 또다나 사야도 [통역:일창스님]	20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대념처경 특강 및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대념처경 특강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의 면담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 시 작 날 -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10월 26일 금요일 오전 12시
■ 참 가 비: 20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담마선원)
■ 준 비 물 : 수행에 편한 복장, 방한 쇼올, 필기도구, 세면도구는 선원에 비치됨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dhamma53@hanmail.net

탈종정정공고

현대불교신문 903호(8/29)
하단 광고에 게재된
약수선원(주지 오성)의
탈종공고를 정정하고
탈종취소를 공고합니다.
약수선원 (주지 오성)의 착오로
탈종공고가 잘못 게재되었으며
게재된 탈종공고를
정정하고 취소합니다.

2012년 10월 5일

약수선원 주지 오성(정영훈) 합장
충남 금산군 진산면 지방2리 84번

모 집 심인불교대학 제2기생

근본불교(根本佛教)와 기본교리(基本教理)는
밀교사상(密教思想)의 진리(眞理)속에 있다

◆과 정 : 2012년 10월 ~ 2013년 10월 (1년과정)
◆대 상 : 남녀노소(男女老少) 누구나 환영합니다.
◆과 목 : (1) 불교의 기본교리,
(2) 밀교사상과 수행법.
(3) 만다라의 세계,
(4) 현밀(顯密)의 성불론(成佛論)
◆강 의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2시 30분
◆준 비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신청서 제출
◆등록금 : 100,000원
◆교재비 : 30,000원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5-3번지 송화빌딩 2층

무 애 정 사 〈심인불교대학〉
전화 031)692-3653 / 팩스 031)692-365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20평
- 요사 : 35평
- 부지 : 700평
- 가액 : 12억 5천

- 위치 : 부산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
- 부지 : 2,600평
- 가액 : 9억

- 위치 : 강원도
- 법당 : 15평
- 요사 : 35평
- 부지 : 640평
- 가액 : 3억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전망 좋은 절

- 총 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 7억 (은행 3억 가능)

바다전망 아름다운 대사찰

- 총부지 : 약 2500평
- 목조법당 32평(아파트 대단지 인접)
- 공양간 50평, 요사채, 대종각 외 건물 5동
- 주차장 300평, 텃밭 1200평
- 총가액: 13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 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도심안의 산중사찰

- 부산 (구 보림극장 위)
- 대: 97평(계단 약간 있음)
- 1층65평(법당 및 공양간)
- 2층 35평 (큰법당)
- 텃밭(20평)
- 급양도가: 2억9천만원

- 8m 옆 나대지
- 평당 240만(36평)
- 현재 유료주차장
- 부산 범일동 (지분등기) (부산진 시장 10분거리)
- 가액 : 8700만원

부산 동구 범일동 010-5511-7000 스님

사찰부지(급)안내

- 도심속 조용한 기도도량
- 대지:300평, 30평형 주택 1동 (방3,거실,주방, 화장실, 욕실)
- 임시 컨테이너로 법당을 마련, 부처님 모시고 기도 하면서 넓은 텃밭과 일급수 지하수 음용하고 있음
- 급양도가 : 3억 6천만원(조절가능)

- 제주도 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소재
- 임야: 3,455평(계획관리지역으로 사찰부지로 적합한 청정지역임)
- 급 양도가: 3억 4천만원
- 조상대대로 물려 받은 부지로 가정 형편상 급 양도 하는 관계로 가액 조정 불가 및 부동산 사절

010-4743-8540

포교원안내

- 위치: 서대문 홍은동
- 3층 건물 중 3층, 50평, 옥상전체 사용
- 삼존불, 후불, 108불 소불, 산신각 방2, 접견실, 샤워실, 화장실
- 에어컨 2대포함,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7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4500만원

010-9231-4600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북구 칠성시장 부근
- 상가건물 4층, 65평, 옥상사용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산신, 칠성, 용왕, 영가단, 법당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시설: 도시가스, 아주 깨끗함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10-2542-2227

토굴·암자 안내

- 경북 영천시 화산면 부개리
- 대지 143평
- 건물 : 법당 가능 8평, 요사채 6평
- 주차장완비
- 대숲 좋음, 비구니스님 환영
- 가액: 4천 8백만원(꼭 사실분)

054)336-0890
010-2772-5656

땅(급)안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 (고령IC 근접 30m)
- 대지 180평, 임야 3600평
- 사찰터로 최적임

010-5626-6001
서 숙 광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터미널에서 3분거리
- 대지 : 총 1320평
- 대웅전 1동, 요사채 3동,
- 부속건물 등등,관광버스6대 주차 충분
- 방10개,심야보일러, 경비시스템
- 가액: 3억 3천만원 (대출 7500포함)

010-2775-3373

사 찰 안 내

-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서 7분거리
- 대지 505평 반(등기필)
- 와가법당 20평 2층 (단청필)
- 요사채 38평
- 창고 15평, 옥외화장실, 창고 6평 (6층석탑 제주석)
- 특히 불필요 전화 사절
- 가액: 방문시 절충요

010-7517-7037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시장 입구
- 4층 건물 중 2층
- 평수 45평
-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7495-7896

토굴(급)안내

- 위치: 대구 팔공산 갓바위길
- 사용대지 200평
- 텃밭有 건평 약 70평 중 법당 안채 분리
- 넓은 마루, 화장실 2
- 공기좋고 살기 좋은 조용한 절
- 보증금 2천 3백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600만원(조정가능)

017-217-1919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사하구 역세권
- 대지 : 23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각 40평
- 은행융자 3억원
- 가액 : 7억 9천만원 (절충가능)

010-6237-5964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180(팔도시장내)
- 평수 : 35평 법당 . 소불 100불
- 에어콘완비, 즉시입주가능
- 전세 : 1,000만원, 월세 35만원 시설비 : 1,200만원

010-8664-4223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시 연제구 연산3동 159-4번지
- 평수 : 120평
- 가액 : 3억
- 시설 일체 완비, 즉시 법회 가능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51)862-1834
010-7675-1834

사찰전세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시
- 면적 300평
- 대웅전 22평, 목조
- 요사 방2개 , 옥외화장실 2칸, 창고
- 미륵불 입상 4M, 창건 45년
- 전세: 4500만원

031)535-8120
010-8831-4800

방생용왕기도 도량안내

- 위치: 전남
- 땅 2000평 • 법당 약25평,
- 약사여래전10평
- 요사채 30평
- 주변 바로 푸른바다
- 실버타운이나 복지관 운영하실분
- 가액: 6억

016-614-8730

포교원안내

- 위치:경남 거제 시내
- 3층 건물중 2층 50평
- 접견실, 부엌
- 보증금 1500만원, 월 90만원
- 6자부처님 8불
- 시설비 1000만원(답사후 절충가능)
- 앰프시설, 에어컨 2대
- 스님. 몸만 오시면 됨

010-4344-9222

암자(급)안내

- 위치: 충북 보은
- 대지 300평
- 인법당
- 가액: 1억 2천만원

043)543-7928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가야초등학교 정문 앞
- 4층의 2층 .• 약 20평
- 전세 3500만원 달세 無
- 시설비 3,000만원
- 아미타불, 관음, 지장, 후불탱화
- 꼭 하실 분 몸만 오시면 됨

010-7929-7790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시 온천동
- 3층 약 50평
- 모든 시설 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051)506-4038

사 찰 안 내

- 위치: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 단독 2층 중 1층 전부 50평
- 모든 시설완비
-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010-4553-9797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공업 로터리 부근
- 10층 빌딩의 3층
- 평수 : 60평
- 시설 A급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9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1-9335-5535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 위치 조건이 좋은 대로변
- 평수 약 30평
- 3층 건물 중 2층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결정
- 꼭 하실분만 연락 요망

010-3572-8426

포교원(급)안내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 상가건물 3층 90평
- 4층 30평 요사, 옥상사용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내부시설완비, 15년 이상된 포교원,납골사리 불사관계로 떠남
-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3679-1080

터 건물 안내

- 위치: 경북 영덕군 관내
- 대지 560평, 건물 60평 밭 650평
- 지방도 접한 최상의 조건
- 다목적 인연 찾음
- 가액: 1억 3천만원

010-8899-8899

포교원안내

- 위치 : 산신 동래구 온천장 시장 부근 • 평수 30평
- 시설 일체 완비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4432-2700

사찰(급)안내

- 경기도 의정부 호원1동
- 대지 27평
- 법당 2층 조립식 약 20평
- 요사 1층 방3개 화장실-세탁실
- 창고-소각장
- 부처님6분, 신중, 칠성, 산신, 영가단
- 교통편리 - 전철 10분, 버스 2분
- 주변에 주차할 수 있음
- 양도가액: 2억 5천만원

010-8900-4874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산및 부지 : 220평
- 법당 : 30평
- 건물 : 3채
- 가액 : 6억3천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120평
- 법당 : 50평
- 요사 : 100평
- 가액 : 20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및 산 168-2
- 종교부지: 5,577 ㎡, 산 168-2 : 13, 640㎡ 합계 19,217㎡ (5,830평)
- 건물 4개동 : 대웅전 1동, 요사채(2층) 1동, 부속건물 1동, 스님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02)403-3333 / 031)771-1816

사찰(급)안내

- 경남 의령군 궁유면 운계리 871-2
- 총평수 1700평중 대지 54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포함 70평, 준공필
- 사찰앞 계곡이 수려하고 청정지역임
- 가액: 3억 5천만원
- 타건물 교환 환영
- 스님 건강관계로 (급)양도

055)572-0405
011-9850-8208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 인근 서울 1시간 거리
- 건평 146평 (전각, 요사채, 종각)
- 부지 1690평(관리지역)
- 종교용지 364평(사용료 연 40만원)
- 양도가액: 5억 3천만원
- 방문 상담, 절충가능

010-9669-135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군 화왕산 및 부곡온천관광단지, IC에서 8분거리
- 평수: 530평(종교부지) 법당 30평(목조단청) 산신각, 칠성각
- 요사채: (60평, 방4개, 화장실2개) 가액: 4억 2천 5백만원(답사 후 조정)

포교원(급)안내

- 위치: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광덕시장대로변, 4층건물 중 4층
- 총 60평중 법당 40, 공양간, 주지실, 신도실, 다용도실, 바닥양탄 특별주문
- 즉시법회보3000, 월 50, 시설비 2500(방문절충가능)즉시법회가능

010-3468-392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명장2동 조양맨션상가3층
- 평수: 42평. 삼존불,지장정,신중단,방2칸 (공양간,친견실)
- 고)박정희,육영수 영전을 모시고 있음
- 가액 : 전세 2000만원, 월세 35만원
- 시설비: 2500만원(가격절충)

011-574-8886

도심속의 사찰안내

- 위치: 부산시 청학2동
- 평수:57평
- 완벽한 시설로써 비구니 스님 적격임
- 1층:요사채(도시가스 시설)
- 2층: 법당과 스님방
- 가액: 3억5천만원(시설비 포함)

010-3732-5237

도심 속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 대지 75평
- 건물 : 법당 50평 (2층)
- 요사 50평(1층)
- 최고의 포교 요람지, 전통 30년
- 법당, 요사 내 외부 최상급
- 급 사정상 헐값
- 가액: 3억 5천만원

010-3621-874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 소재 황간 IC에서 10분거리
- 가액 : 6억(절충가능)
- 대지 600평, 목조법당 30평
- 산신각 3평, 요사채 3동, 진신사리탑

011-510-6014
010-2210-515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 평수 : 대지 ,63평
- 법당 : 11평, 요사채 25평
- 전세 : 3,000만원

(몸만들어와도 됩니다)

010- 7459-297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부지 2,000평
- 법당 조립식 16평, 요사채 30평
- 가액 : 2억 1천만원

010-7188-7723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둔전리 여수시내에서 20분거리
- 땅 : 총 250평, 요사채 1동
-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동
- 양도가액 : 2억(절충가능)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765-5302

포교원안내

- 위치: 경북 구미 시내
- 3층중 3층 50평, 옥상 50평 사용가
- 법당, 방4개, 샤워실2, 공양간
- 보증금 500만원,월 40만원
- 사찰소임관계로 시설비절충
- 대형사우나연접 유동인구 많음
- 역학, 치유스님, 법사, 보살편리

010-8248-1313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 평수 : 대지 150평
- 법당 : 30평
- 요사채 : 30평
- 가액 : 3억 5천만원

010-3497-1471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 달성군 현풍면소재
- 상가4층 건물 3층
- 3층 총평수 62평
- 법당 30평,공양간20평, 방 2개, 창고,
- 기타 부대시설완비
- 보증금1천만원,월30만원
- 시설비는 답사후 결정

010-5040-2727
053)611-2929

포교원안내

- 경남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 대지 : 98평
- 요사채: 방3칸 거실:1 화장실 :1
- 법당 : 30평
- 보증금: 500 만원, 월세 30만
- 시설비 : 1,300만원 (절충가능)

010- 4753-8289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송현동
- 3층건물중 2층 건평 50평
- 빈점포안에 방3칸 모두 보일러시설 완비
- 화장실2개,욕실, 아파트식 시설완비
- 법당 대형, 에어컨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45만원
- 인테리어 시설비 2천2백만원
- 불상, 탱화는 보시합니다

010-4056-5677

포교원안내

큰절 소임 관계로 포교원 양도 합니다

- 위치: 부산시 사하구
- 평수 180평 (5층 =90평. 6층=90평
- 옥상 = 80평 사용
- 6층, 법당 친견실, 종무소
- 5층 = 공양실, 방6개
- 보증금=1억 월 1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6575-1719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 전철역에서 2분거리, 대로변
- 최고시설, 좋은 위치
- 5층 건물 중 3,4,5층 총 15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5000만원(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010-3198-8988

밥을 먹을 때는 몸과 마음 전체가 밥이 되어 밥을 되어라. 이런 식으로 삶의 순간 순간을 살아라. 그대의 몸과 마음 전체를 집중하게 되면 명상이 따로 없고 수행이 따로 없다. - 십이시법어 -

선과 뇌 - 좌선은 위대한 뇌훈련법이다

아리타 히데호(日 동방대 생리학 교수) · 겐유 소큐(日 복취사 부주지)

〈2〉 호흡법이 뇌에 좋은 이유

복식호흡하면 '상쾌한 알파파' 나온다

좌선에서 뇌의 상태

겐유: 선의 세계는 역시 체험해야만 알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승 중에는 뇌파를 이용해서 선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아리타: 히라이 선생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는 뇌에서 알파(α)파가 나오지만 고승에서는 알파파보다 주파수가 느린 세타(θ)파가 나옵니다. 이 파는 보통 수면하는 동안에 나오는 파입니다.

겐유: 신출내기 운수승이 졸고 있을 때 세타파가 나오고 경책(警策)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급히 베타(β)파가 나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리타: 보통의 호흡은 횡경막으로 하는 호흡입니다. 그러나 호흡법의 경우는 복근의 수축에 의한 호흡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복근 근전도(筋電圖)를 실제로 눈앞에서 보게 하면서 호흡법을 훈련시킵니다. 즉, 숨을 천천히 토해 내면 복근 근전도에서 파가 나옵니다. 이렇게 복근 수축을 스스로 보게 하면서 천천히 복식 호흡을 시킵니다. 그때 '가능한 한 복근 수축을 오래 하세요' 라는 것만 지시합니다. 그러면 대개 10초에서 15초 정도에 숨을 토해냅니다.

좌선과 호흡법도 전혀 모르는 학생에게 단지 그것만 지시하고 20분내지 30분간 호흡법을 시킵니다. 그러면 확실히 뇌파가 변합니다. 각성 때는 베타파의 뇌파가 나오지만 호흡법을 5~6분 시키면 알파파가 조금씩 나옵니다. 10분 정도 경과하면 알파파의 빈도와 유지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요컨대 호흡법을 실행함으로써 각성 때의 뇌파인 베타파가 나오는 곳에서 알파파라는 대뇌피질의 활동을 억제시키는 뇌파가 혼합돼 나옵니다.

이 같이 복근을 수축시키는 것만으로 의식을 집중하고 호흡법을 행하면 스님이 행하는 좌선의 의식 상태에 초보자도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후속 연구에서는 눈을 감을 때 나오는 알파파와 호흡법에서 나오는 알파파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고 그 결과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처음 눈을 감고 호흡하면 곧 알파파가 나옵니다. 그러나 4~5분이 지나면 처음 눈을 감았을 때의 알파파가 사라지고 다른 알파파가 나옵니다.

대뇌피질을 조절해 상쾌한 뇌파를 낸다

겐유: '느린 알파파' 에서 '빠른 알파파' 로 전환하는 것이죠?

아리타: '빠른 알파파' 가 4~5분 지나면 나옵니다. 눈을 감으면 즉시 나오는 알파파와는 다른 알파파가 나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대뇌피질의 활동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뇌피질 전체를 조절하는 신경계의 경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뇌간 망상(網狀) 활성계입니다. 뇌간에서 시상을 거쳐 대뇌 피질에 이르는 각성 경로입니다. 대뇌피질에는 신체의 어딘가를 자극하면 그 자극이 어디에서 자극된 것인가를 인식하는 부위(체성 감각 부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극 부위와 반응하는 뇌 부위 사이에 국소적인 대응 관계가 있습니다.

겐유: 결국 뇌간을 지나가는 경로이네요.

아리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대뇌피질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있습니다. 대뇌피질 안쪽에 전뇌기저부(前腦基底部)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신경이 대뇌피질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입니다.

전뇌 기저부의 신경은 아세틸콜린(acetylcholine)이라는 물질을 신경전달물질로 사용하기 때문에 콜린 작동성 신경이라 부릅니다. 그 경로가 작동함으로써 대뇌 전체의 활동 수준이 변합니다. 이 전뇌 기저부가 손상되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됩니다.

겐유: 그 전뇌 기저부는 대뇌피질보다 오래된 것이네요?

아리타: 오래된 것입니다. 대뇌변연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대뇌 전체에 축색을 보내 대뇌 전체의 활성을 변화시킵니다. 물론 혈류도 변합니다.

거기에 세로토닌 신경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그 전뇌 기저부의 신경이 억제되면 알파파가 나오는데, 그 억제를 가하는 신경의 하나가 세로토닌 신경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면 전뇌 기저부의 신경활동이 억제되고, 그 결과 대뇌피질 전체의 활동이 억제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겐유: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은 좌선의 알파파를 릴렉스relax한(편안한) 알파파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아리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알파파는 릴렉스한 알파파입니다. 그것은 눈을 감으면 릴렉스되고, 그대로 눈을 계속 감고 있으면 세타파가 되고, 델타파가 되어 잠들게 됩니다. 그것은 졸린 기운(졸음)입니다. 그 릴렉스한 알파파는 좌선과 같은 수행에서 나오는 알파파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빠른 알파파' 는 졸린 기운이 아니라 상쾌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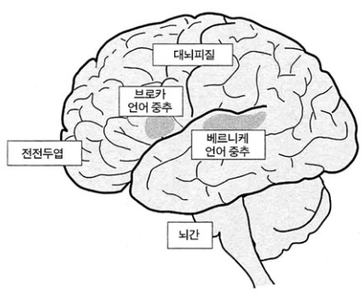
명상은 언어의 기능을 쉬게 하는 것

겐유: 눈을 감을 때 잠깐 릴렉스 된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눈을 감고 언어를 머리에 떠올리고 이런저런은 생각을 해도 알파파가 나옵니까?

아리타: 언어 기능은 억제될 수 있습니다.

겐유: 아마도 언어 기능이 억제된 상태에서 알파파가 나오겠지요. 언어 기능을 쉬게 하면 공간 인식을 담당하는 기능, 이것이 풍부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석가모니 시대에는 좌선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 '명상' 이었습니다. 그것이 달마대사라는 약삭빠른 이가 나타나서 좌선을 만들었습니다. 왜 약삭빠르냐고 하면 오랜 시간에 걸쳐 겨우 도달한 그 지점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가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지름길을 발견한 것이지요. 초보자에게 좌선이 어려운 이유는 도중의 경



왼쪽에서 본 뇌

전뇌 기저부가 손상되면
알츠하이머 치매 오게 돼

음운의 '다라니' 독경 할때는
복식호흡처럼 알파파 나와

과를 생략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기에는 보행 명상이라든지,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명상도 있습니다. 물론 호흡도 명상의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보행 명상이란 걸으면서 뭔가를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걷고 있을 때의 보행…다리를 올리고 내리고 또 이것을 올리고 내리고…라고. 그 과정에서 내부의 근육과 허리에서 내려가는 근육의 감각의 변화를 가능한 한 세밀하게 언어로가 아니라 몸 전체로 느낍니다.

아리타: 뇌파를 쭉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은 호흡법만으로 의식을 집중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겐유: 언어를 떠올리지 않기 위해서는 언어 대신 다른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좌선은 명상보다 어렵습니다. 언어를 버리기 위해 '이미지만 세밀하게 떠올리는 것' 은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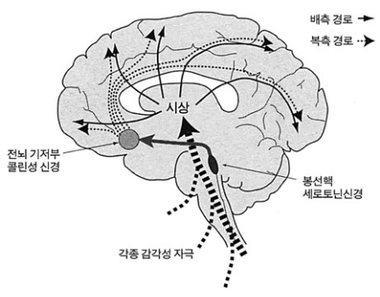
아리타: 이미지를 그리는 대신 몸을 움직이는 데 집중해도 좋겠지요.

겐유: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호흡법은 오래된 뇌로 들어가는 입구

겐유: 선정상태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 우리들이 항상 실시하고 있는 전체 호흡법이라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신의 몸을 텅 빈 그릇이라고 간주



대뇌피질을 활성화시키는 두 경로

합니다. 발뒤꿈치도 좋고 정수리도 좋습니다. 텅 빈 그릇인 나의 몸 속에 숨을 쉬면 물이 들어가는 이미지를 머리에 떠올립니다. 물이 들어가는 곳은 발뒤꿈치에서 시작해도 좋고 정수리에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때로는 그 이미지를 떠올릴 때 물이 아니라 빛이 들어가는 이미지를 떠올려도 좋습니다.

그 이미지에서 홀수선(역자주: 물에 떠 있는 배가 물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선)을 계속 머리에 그립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속도가 빠르므로 홀수선이 쑥 하고 다리에서 정수리까지 한 번에 옵니다. 그리고 숨을 토해 내면서 그 홀수선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이미지를 가능한 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가져갑니다. 홀수선을 이미지로 머릿속에서 그려봅니다. 명치까지 왔는지 위까지 왔는지 그려봅니다. 보통 때는 의식하지도 않았던 장기도 의식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하면 할수록 점점 자세하게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 이미지 감각이 오래된 뇌로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어를 떠올리는 그 순간에 오래된 뇌로 들어가는 입구가 막혀버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리타: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과 언어 기능을 셧아웃(shutout) 하는 것,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런 지적은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경을 읊을 때 나오는 알파파

아리타: 독경의 뇌파를 측정하면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파파가 나올 때 주기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불경을 읊을 때의 복근 근전도와 호흡법의 복근 근전도도 같이 측정해서 비교했습니다. 그것들은 아주 유사했습니다. 불경을 읊는 시간은 15~20초 정도입니다. 그 동안은 복근을 사용해서 숨을 쭉 내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단숨에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 또 숨을 내쉬면서 불경을 읊게 됩니다. 이것은 호흡법의 패턴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과정을 약 30분 정도 시킵니다. 그 후 뇌파 결과를 보면 알파파가 아주 잘 나올 때도 있고 그렇게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알파파가 잘 나올 때는 다섯 문자 정도의 운을 읊조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한 부분을 읽을 때는 알파파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내용이 있는 것을 읊을 때는 좌뇌가 작동합니다. 그러나 운을 밟을 때는 알파파가 많이 나옵니다.

겐유: 우리는 법회에서 게송만 읊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암기한 것을 읊으면 즉시 알파파가 나오지만, 불경을 보면서 읽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리타: 몸에만 의식을 집중시켜 언어 기능을 억제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네요.

겐유: 불경의 경우 인도라는 나라는 음운에 대한 배려가 대단합니다. 음운 그대로의 불경을 '다라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 의 마지막에 있는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라는 이 부분만은 다라니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음운에 대한 배려를 무시하고 의미를 중시해 번역하는 것은 음 자체가 변해서 다른 것이 돼 버립니다.

언어뇌를 계속 쉬게 하면 의식이 집중된다

겐유: 명상상태에서는 아마도 세로토닌이 많이 방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리타: 명상의 집중 상태가 아니면 방출되지 않습니다. 의식을 집중시키지 않고 리듬 운동만 하는 경우, 세로토닌의 활성화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리듬운동만 아니라 대뇌피질이 상당히 제어된 상태, 즉 어느 하나에 집중된 상태, 그리고 대뇌피질에서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이성이 관여하는 부위가 의식적으로 억제돼 있어야 세로토닌의 방출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겐유: 언어 기능을 억제하기 위해서 앞의 홀수선 같이 이미지를 그리는 방법과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지이든 리듬이든 언어 능력을 억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4단계 의식

아리타: 스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좌선으로 들어갑니까?

겐유: 좌선에 들어가 수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명상입니다. 즉, 움직이면서 명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보행(步行)명상이라든지.

아리타: 저는 명상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에도 명상이 있습니다. 이때의 기도에서는 머릿속에서 동일한 것만 결국 반복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겐유: 명상을 중시하는 것은 주로 가톨릭입니다. 주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한 구절을 명상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반복할 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리얼하게 머리에 떠올린다고 합니다.

머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네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단계는 뭔가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기에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사고라고 합니다. 좌선이나 명상에서 사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사고' 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사고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흘려보내면서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이미지네이션입니다. '상상하는 것' 입니다. 이미지를 그린다는 것은 좋습니다. 리얼하게 세부까지 이미지를 그리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아갑니다. '회(懷)' 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요컨대 전체를 안아버리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명상' 이고 '좌선' 입니다.

우리가 선문답의 문제를 받을 때 머리 속에서 역시 반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라' 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후지산을 거친 밧줄로 묶어서 가져와라' 라는 문제를 받으면 후지산과 나라는 세계를 한덩어리로 품게 됩니다. 하나의 삼매가 찾아옵니다. 자신이 후지산이 되면 좋습니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운주사에서 펴낸 〈선과 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❺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설법 · 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종 합 반 : 00명
■ 소수정예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연수안내
■ 자 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 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8시
소수정예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강사소개
[설법연수원 회장 우불 김 철 회 박사]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최면시술사
40년 노하우를 지닌 우불 전문가인 김철회 박사 특별지도
[설법연수원 원장 처 명(선광)]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동방불교대학 졸업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한 국 설 법 연 수 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

'현우경' 이야기 (41)

대시의 깨달음 ㊤

세상 구경하다 거지 패거리를 만나다

옛날 니구루타라는 바라문이 있었다. 그는 총명하였고 여러 학문에 두루 통달하였으며 타고난 재주가 뛰어났다. 왕 또한 그를 존경하여 받들어 스승으로 섬겼다.

그 바라문은 가진 재산이 왕과 다름없을 만큼 부자였으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다. 바라문은 고민 끝에 범천, 제석천 사왕천 마혜발라천과 그밖의 여러 하늘과 해 달 별과 산 강 나무들의 신 등 어디에나 두루 기도하고 제사를 올리고 정성을 다해 공덕을 쌓았다.

그의 기도는 십년 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어느날 부인은 태기를 느꼈다.

"아무래도 큰 용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아서는 사내 아이인듯 싶습니다"

바라문은 부인의 손을 덥썩 잡았다.

"고맙소. 드디어 대를 이을 자손을 얻게 되는구려"

바라문은 하녀에게 명하여 부인을 극진히 보살피게 했다. 부인이 움직일 때에는 부축하고 음식은 더욱 맛난 걸로 차려주었으며, 자리는 아주 곱고 부드럽게 하는 등 온갖 정성을 쏟았다.

그렇게 열 달이 지났고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났다. 아기는 예상대로 사내였다. 몸은 자금색이요 머리털은 검푸르며 얼굴은 단정하고 반듯한 용모는 누가 봐도 귀상이었다. 바라문은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보고 기쁨에 넘쳤다. 그리고 곧장 관상가들을 불러 함께 상을 봤다. 그들은 아들의 용모를 자세히 살펴보고, 매우 기이한 상이라 찬탄했다.

"이 아기의 생김새에 복덕이 철철 넘칩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으며 천하가 우러러 보는 큰 일을 할 상입니다"

바라문은 매우 기뻐하여 그들에게 이름을 짓게 했다.

"그렇다면 우리 아들에게 맞는 이름을 하나 지어 주게"

"이 아기를 잉태한 뒤로 부인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없었습니까?"

"이 아이 어미는 본래부터 남을 미워하며 인자한 마음이 적고 지혜를 닦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를 잉태한 뒤 심성이 달라져 남의 고난을 가엾이 여기기를 마치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고 보시하기를 좋아하여 탐하거나 아끼는 일이 없었다"



삽화 · 강병호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말했다.

"산모가 그렇게 변한 것은 이 아기의 뜻이 그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크게 베풀라는 뜻의 대시(大施)라 하소서"

대시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아버지는 아들을 매우 사랑하여 사시사철 살 집을 따로 지었다. 겨울에는 따뜻한 집, 여름에는 시원한 집, 봄과 가을에는 또 그에 맞는 집에서 살게 했고 많은 시녀들이 두루 시중들게 했다. 아이는 총명했고 학문을 좋아했다. 온갖 책을 섭렵해 문장에 통달했고 그 뜻도 깊이 새겼다. 그리고 많은 기술을 배워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많은 것을 익힌 대시는 세상이 궁금해졌다. 밖에 나가 세상을 보고 싶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합니다. 밖으로 구경을 나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분부했다.

"내 아들 대시가 밖에 나가 보고 싶어한다. 거리를 깨끗이 쓸어 온갖 더러운 것을 치우고 여러 가지 기를 세우고 꽃을 뿌리고 향을 사르고 길을 장식하여 아주 청결하게 하라"

준비가 끝나자 대시는 일곱 가지 보석으로 장식한 흰 코끼리를 타고 나갔다. 종을 치고 북을 울리며 행진곡을 연주했다. 천대의 수레와 만 마리의 말이 앞뒤로 호위하면서 큰 길을 지나 성 밖으로 나갔다. 그때에 온 나라 백성들은 누각 위, 혹은 길 양쪽을 끼고, 서로 다투어 구경했다. 그들은 대시의 모습을 보고 저마다 감탄했다.

"참으로 놀랍고 장하다. 저 위엄과 생김새는 마치 범천 같구나"

그렇게 위풍당당히 걸어가는 대시의 행렬에 불청객이 끼어들었다. 해진 옷을 입고, 부서진 그릇을 들고 상스런 말로 구걸하는 거지 패거리들이었다.

"적선 좀 하십쇼"

대시는 그들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너희들은 어찌 이런 몰골로 다니며 고생을 하고 있느냐"

그들은 대답했다.

"저는 어렸을 적 버려져 부모 형제도 친척도 없습니다. 빈궁하고 고독하여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저는 오랜 병이 있어서 노동할 수 없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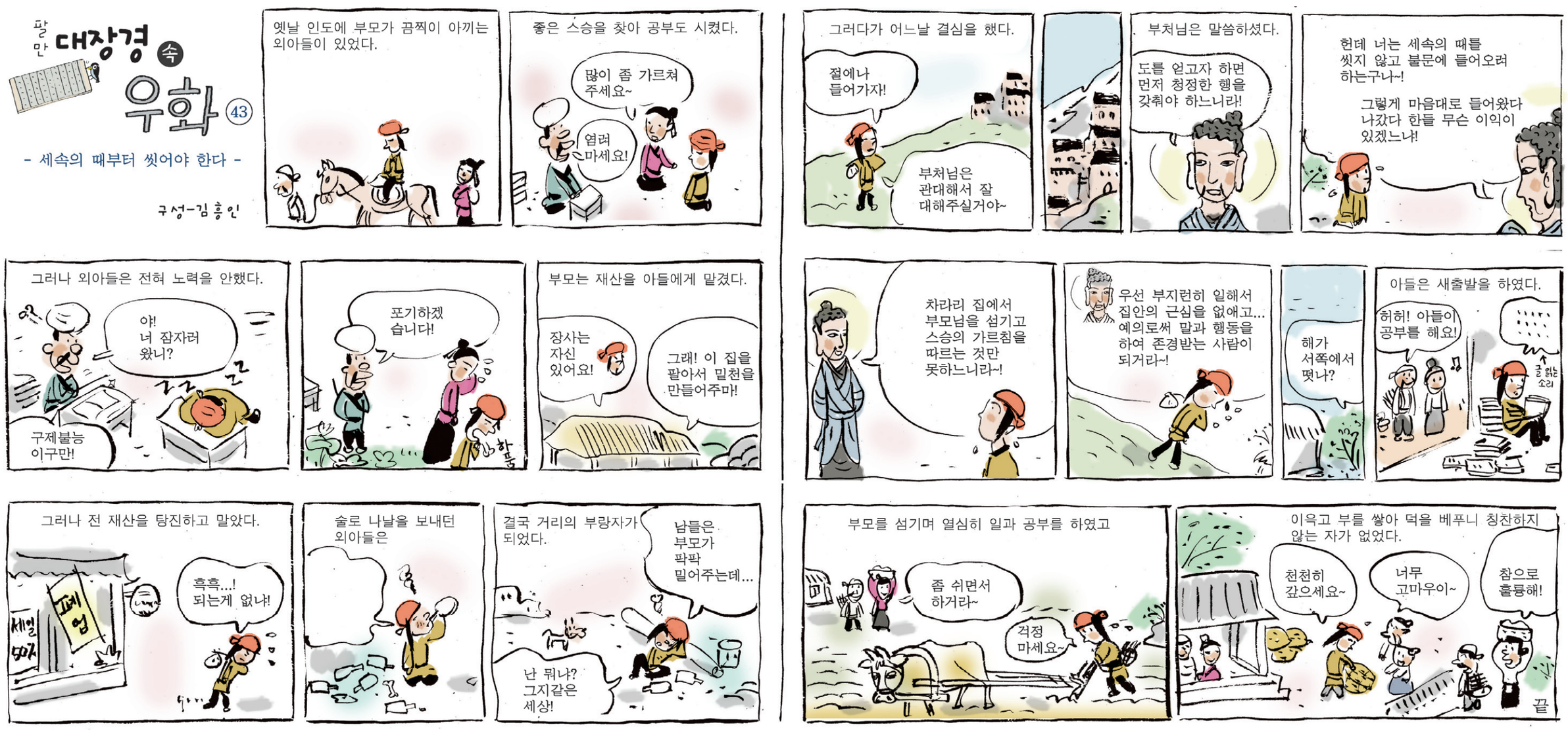
"저는 여러 번 파산을 당하고 빚만 잔뜩 져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어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걸하고 다니면서 남은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대시는 이들의 모습이 그저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

"세상에 이런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 참으로 슬프구나"

〈다음 호에 계속〉

구성=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성지순례는 미암사로, 방생은 백마강으로

세계최대 와불, 의자왕 출가한 곳, 소원성취 쌀바위, 진신사리증과, 인체에 효험약수 (점심공양, 입장료 무료, 단체 및 개인 성지순례 불자님을 환영합니다)

미암사의 연혁

미암사는 부여에서 서쪽 보령 방향으로 16km쯤 되는데, 부여에서 15분쯤 가다가 구룡천을 따라 40번 국도로 4km정도 올라가면 왼쪽으로 금북정맥 계향산이라는 아름다운 명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백제시대 침류왕때 쌀바위에 유씨 부인이 공을 들여 쌀도 나오고, 자손도얻어 소원도 성취했다 하여 큰 영험이 있으므로 쌀바위(충남도지방 문화재 제371호) 이름을 따서 무왕께서 쌀미(米), 바위암(岩), 미암사(米岩寺)라 하였다. 사촌마을을 미암부락이라고 했다.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응용 평가센터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원적외선이 92.1% 방출 됨으로 노화방지, 성인병 제거, 중금속제거, 곰팡이 번식방지, 신진대사 촉진,혈액순환 등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미암사 만청스님은 그 후 몇차례 전소되어 일부 복원 하고 있으며, 지금은 다시 전통사찰 양식으로 고증받아 복원 불사 중에 있다. 또한 1998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던 바, 2004년 납월 친견당시 자연적으로 3과로 자리를 옮겨 증과된 신비한 기적을 일으켰으며 2010년 9월 10일 진신사리 1과를 부여 백제 재현단지 능사에 기증 하였다.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백제권 불교 문화가 중심이 되도록 부동정심의 대원력을 세워 국운융창, 국민화합을 위한 대자대비하신 삼계의 도사 큰 스승이신 석가모니부처님 세계최대열반상을 2005년 4월 17일 미암사 도량에 전국사부대중의 동참으로 원만성취 조성을 회향하게 되어 점안식을 봉행하게되었다.

소원성취기도도량 불교성지 미암사에 오셔서 악업은 소멸하고, 무량공덕 쌓으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요. 적멸보궁 세계최대열반상 불교성지 미암사는 성지순례코스로 가장 적당하며, 찾아오시는 불자님들께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암사 TV. 라디오방영 사례

mbc 드라마계백 / kbs2 전설의고향 / mbc 라디오 전설따라삼천리 / sbs 생방송투데이 / kbs1 쾌지나칭칭 / kbs2 생생정보통 / mbc 공감특별한세상 / kbs, vj특공대 / mbc TV특종놀라운세상 / sbs 출발모닝와이드 / kbs2 굿모닝 대한민국 / kbs2 생생정보통 / 불교tv / cmb생방송뉴스 / 실버TV만청문화행사 / tjb 특집프로


▷세계최대와불


▷진신사리 증과


▷만사형통 문수동자

▷쌀바위(운수대통)


▷미암사 부처님 공원


▷10년만의 자손득남


▷33층 석탑 진신사리 점안식


▷효험 산신불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 / 팩스 041)832-1187



대행 스님

이것저것 다 일일이 따진다면 길은 언제 가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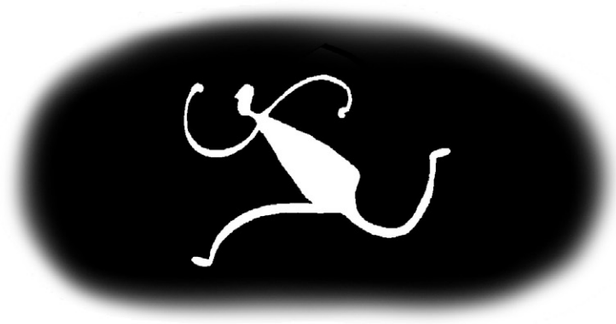
인생은 각본대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문) 세월이 흐를수록 모두 자기 팔자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에 부닥치면 내 팔자가 그런가보다 하고 또 낙담을 하게 되지요. 정말 제 생각이 맞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각본대로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답) 이것은 지금 윗눈썹에서 밑의 눈썹을 내려다보지 못하는 격이나 마찬가집니다. 각본대로 마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고정됨이 없다고 그러죠? 각본대로 주어져 있는 것이 마음이 아니고 각본에서 벗어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음도 쓰고 저 마음도 쓸 수 있는, 체가 없는 것이 이 마음이다 이겁니다. 만 가지 마음을 낼 수도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음식을 갖다 놨을 때도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이게 물로 생기고 뭘로 생기고, 다 알아도 그걸 집어먹고 줄 줄 모른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 알아도. 그와 똑같은 겁니다. 도라는 것은 한생각에 의해서, 밀접한 문제가 있는 거는 한생각에 의해서 자기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의 문제에 있는 거고 참, 이거를 얘기를 해도 버선목이라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참 큰 문젭니다. 어떤 사람은 각본대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스스로서 각본대로 주어져 있다는 걸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못한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건 이렇게밖엔 될 수 없다.' 라는 게 스스로서 주어져요, 자기한테. 이건 색을 보고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 체 없는 그 마음에 한 찰나의 부동자세한 그 에너지의 뜻은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 나와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큰 그릇을 들이대면 큰 그릇에 담기고 작은 그릇을 들이대면 작은 그릇에 담긴다 이 소립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에너지는 항상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항상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큰 그릇을 대면 큰 그릇에 담기고 작은 그릇을 대면, 용도에 따라서 대면은 작은 그릇에 담긴다. 이 담기는 이 자체가 무엇이라고 비유를 할까? 내 한생각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한생각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이 이 지금 색을 보고 취하고 물질세계로서의 이 용도에 따라서 수없이 보고, 내고 들이고 내고 들이고 살면서 이게 습이 됐단 말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회전은 한 번도 해 보지 못했거든요. 생각조차도 해 보지 못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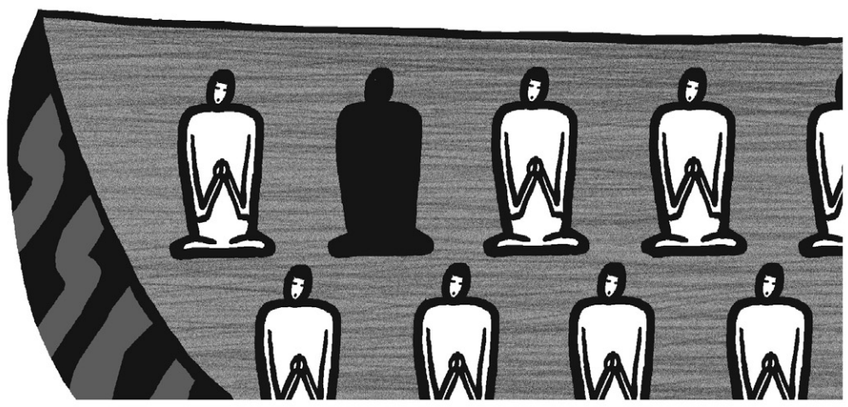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이 보이는 데 지금 우리가 법도가 이렇고 몇 항 몇 조에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아주 각본대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건 각본대로 아니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팔자 운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팔자 운명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팔자 운명 속에서 어떡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바로 생각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이것이 이렇게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수박은 수박씨가 자기를 자기 안에다 넣어 놓고도 바깥에서 수박씨를 찾는 겁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어떤 청년이 와서 "내가 길가를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거든요. "야, 이놈아. 둘이 아니라는 걸 너한테 네가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침을 놓는 건데 어떻게 해서 그래 남이 너를 주시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지, 이놈아. 왜 너는 너한테 만날 속아!" 이러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 마음 자체가 너무도 광대하면서도 묘하고 묘하면서도 신비하고 신비하면서도 위대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자리 하나가 그렇게 천만 가지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자기 끌고 가는 마음을 내가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내 팔자가 금방 가서 차에 치여 죽을 팔자라고 해도 "팔자를 가서 보니까 스님, 앞으로 닷새만 있으면은 꼭 이게 병이 들리지 않으면 죽겠답니다." 이러거든요. "허무한 소리 하지도 마라. 네가 생각하기에 달렸어. 이놈아, 그런 것 아예, 눈물 피 이런 걸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 흘리지 말고 살아. 편리하게 살아라. 종교는 편리한 거다. 인간이 고등동물로 태어나 90% 100% 이게 부처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거는 인간이 그렇게 물리가 터지고 지혜가 터지면은 그대로 도다. 그러니 편리하게 살아라." 이럽니다.

그럼 팔자 운명이나 이런 거 보는 사람 다 굶어 죽게 생겼죠? 그런 거 저런 거 우리가 따진다면은 스스로서 이 마음이 말입니다, 이거는 옳다 그르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를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옳다 그르다 하는 게 스스로 생기나.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주어진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구태여 그렇게 나쁜 데로 끌고 가려고 해서가 아니라 규정을 지어 놓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에 고정되게 그냥 자기의 방침대로, 자기가 보고 듣고 사는 대로 그냥, 본 대로 그냥 습대로 그냥 내놓는 거죠. 그런데 그 물리가, 글쎄 백지장 하나 사이도 안 되는 고 물리가 왜들 안 터집니까, 왜?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옳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쉬게 됐는데 신이 한 짝이 떨어졌더랍니다. 그래 신을 툭툭 털면서 그거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어떤 노인이 지나가다 하는 소리가 "너는 그 신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신을 버려 봐라. 신으려고 하지 말고 버려 봐라. 네 가죽신도 있는데 왜 버리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신을 놓치면은 내 발바닥이 아픈데 어떻게 가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따 하는 소리가 그 생각을 하자마자 자기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 발바닥이 아파? 발바닥이 아프고 그래서 그 신을 벗지 못하겠다고? 이놈아, 벗어 봐! 신이 저절로 생길 테니까."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치에 닿지도 않잖아요, 도대체, 그 사람으론.

그런데 얼마 거리가 멀지 않은 데에서 어느 노인네가 신을 잔뜩 만들어 놓고선, 미투리를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라 길 가고 오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얻어먹고 신도 얻고 노비도 얻고 아, 이러고 가게 되니까 그때서야 그 물리가 조금 터져 가지고선 '야, 나도 이 길로 산으로 올라가서 공부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길로 산으로 올라가서 공부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어느 스님한테 들은 얘긴데요, 우리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금방 지금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 의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건 죽게 됐다. 이걸로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러는 겁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하기를 말입니다, 자기가 끌고 다니려면 자기가 고쳐서 끌고 다니든지 자기가 그냥 부숴버리든지 맘대로 해라 하고선 맡겨 두니까 그것이 다 해결이 났고, 오줌으로 뭘로 다 그 나쁜 게 다 나가고 다 해결이 났답니다. 그것이 어디 나변에 있느냐 하지만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이렇게 볼 때 100% 하면 70%는 그래도 웃을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럼 왜 30%는 없는가? 30%는 마음이 닿지 않아서 못할 뿐 아니라 너무 기울어서 못하고 이런 수가 많습니다. 그럼 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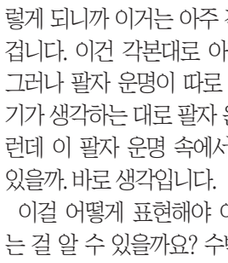
☞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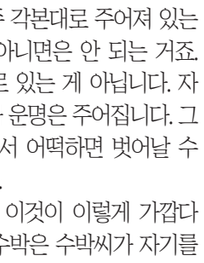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의심치 말고 못났든 잘났든 자기 주인공을 믿으세요

☞ 21면에서 계속

보고 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활이 과학인 줄 모르고 의학인 줄 모르고, 모든 게 이 생활이 진리인 줄 모르고 행하는 분들에 의해서는 기복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팡이죠. 자기가 그렇게 위대하고 정말 신비하고 그렇게 당당하다는 걸, 도도하다는 걸 모르거든요, 모두가.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세워 놓고 잘되겠다고 앨 쓰기 이전에 우리가 진실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그 여건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뭐든지 아니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할 수 없고, 아니 될 수 없고. 우리는 행복을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단, 우리가 만들어서 행복을 가져오고 또 고에서 빠져나오고 또 병고에서 빠져나오고 가난에서 빠지고, 우리는 계발하는 겁니다. 계발도 정신계발이 아니라 심성계발로서의 정신으로 오관을 통해서 다섯 가지의 구슬이 스스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계발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그 팔자 운명 이런 것도 각본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선(禪)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문) 참선 공부 하는 방법도 간화선이니 묵조선이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간화선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선에 좀 관심이 생겼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답) 요즘은 사람들이 모두 묵조니 간화니 하고서 모두 좌선들을 하고 화두들을 쥐고 이럭하고 있는데 외려 화두를 잡고 오히려 막고 있어요. 그게 끊어질까 봐 걱정, '이거 어느 스님한테서 받았는데….' 하는 그 착. 어느 스님이 따로 있나요? 내가 이 세상에 나오고부터 내가 화두요 내가 공했는데, 나로부터 생기는 거지 거기에다 덧붙여서 또 그놈의 게 끊어질까 봐 걱정, 결제하면 결제하는 대로 결제했다고, 하루 8시간이고 9시간이고 앉아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서는 것도 서는 게 아니고 앉는 것도 앉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나가서 일하고 앉아 있을 틈도 있었지마는 지금은 지금대로 뛰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이거든요. 그게 전부 참선이에요. 그렇게 돌리지 않는다면 생활 불교가 어떻게 되며 진짜 참선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스님네들만 공부하지 스님네들 아닌 사람들은 전부 공부 못하겠네요? 벌어먹어야 할 테니까. 벌어먹는 것이 전부 참선인데 말입니다. 이것저것을 다 일일이 따진다면 언제 길은 가겠습니까.

나는 예전부터 법당에 몰래 들어가서 밤을 새우고 새벽이면 몰래 나오고 그러기도 많이 했어요. 꼬박 그냥 앉아 있기도 하고, 밤을 새워서. 그것도 누가 앉으래서 앉았으면 못 앉았어요. 아, 다리가 굳어서 앉아 있겠어요, 밤새도록? 내가 앉고 싶으니까 앉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앉고 싶으면 앉고 서고 싶으면 서고, 내 마음은 결제 해제도 없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전체 놓고 돌아간다면 그 결제 해제가 없으면서도 결제 해제가 있고 있으면서도 없는 걸로 그냥 하는 겁니다. 너무도 아주 슬기롭게 넘어가거든요, 모두가. 유(有)의 법 무(無)의 법을 무시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평등하게 맞춰 가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화두가 아니다 기다 하기보다는 지금 현대의 과학문명이 발달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빨리, 십년이고 이십년이고 이렇게 걸려서 그것은 어렵거든요. 지금 시대가 너무 발달이 돼서 잘들 사람들이 안다고 할까요?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들고선 있으면 이 머리가 터질 거 같은 거예요.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들고 있어도 그대로 이거를 순수하게 이렇게 곧장 일직선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즉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나 하는 것을 모색해서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주인공이다 하고 이름을 세워 놓은 것도 방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방편이자 그건 실질적인 거예요. 이게 공이자 색이고, 색이자 공이니까. 그래서 기둥 주를 하나 세워서 공으로서 이걸 붙잡지 않으면은 거기 소용돌이까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내가 그 주인공이라는 걸 하나 세워 놓고, 일부러 세워 놓고 모든 것을 들이고 내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도 거기요 들어가는 것도 거기요, 일거일동을 항상 자기는 지켜보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진짜 의정이 머리를 들고 나온다 이겁니다. 진짜 화두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 지금 시대에 쉽게 하는 방법을 내가 토론하는 거지 그 화두를 드는 것이 잘못이다 잘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현대 이 변천해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는 즉시 들어가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들이고 내는 거를 의심치 말고 들이고 내라 이겁니다. 의심치 말고 자기 주인공을 자기가 믿어라 이거예요. 딴 사람이 화두 준 걸 믿지 말고 못났든 잘났든 자기 주인공을 믿어라 이겁니다. 이 세상이 생겼고 나로부터 바로 종교가 생겼고 나로부터 들이고 내는 것을 알게 된 거지,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가 바로 태초요, 그 태초의 근본이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이니, 바로 나로부터 화두인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의정이 생기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생활이 생기는 거고 만법이 생기는 거고 그런 건데 어디에서 그 만법의 이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몰락, 이 전체에 합일된 주인공에 몰락 놔 버리세요. 모든 거를 거기다 일임하고 놔 버린다면, 일거일동 일체 다 놔 버린다면, 놔 버리고 감사함도 믿음도, 들이고 냄도 그 한군데서 들이고 낸다면 바로 거기에서 의정이 진짜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시대로 봐서는 즉각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자기 주인공에 몰락,
이 전체에 합일된 주인공에 몰락 놔버리세요.
모든 거를 거기다 일임하고 놔버린다면
일거일동 일체 다 놔버린다면
들이고 냄도 그 한군데서 들이고 낸다면
바로 거기에서 진짜 의정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시대로 봐서는 즉각 들어갈 수 있 길입니다.

알 수 없는 꿈만 꾸게 되는데

문) 평소에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꿈에서라도 큰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자꾸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알 수 없는 꿈만 꾸게 되니 참 답답합니다.

답) 꿈에 모습으로 같이 다닌다고 해서 같이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즉 자긴데, 뭘 또 모습을 같이 이어서 보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자기가 지금 그대로 앉았는데, 거기에 자기가 둘이 아닌데. 이 모습은 집과 같은 겁니다. 한 집에 들어 있으면서 왜 바깥에서 그 모습이 자꾸 오길 바랍니까. 그거부터 벌써 둘이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데다 신경을 씁니까, 본래 그냥 같이 있는데. 본래 같이 있으니까 그 모습이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일일이 각각 보일 리가 없어요. 아, 그런데 본래 같이 있지 않으면 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둘로 보는 사람은 일일이 모습이 각각 보입니다. 자기가 살아나오는 습에 의해서, 인연에 따라서 그 모습으로 항상 보이거든요. 아는 사람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딴 사람의 부모로 보인다고 해서 '에이구! 조상들이 또 어떻게 됐나 보다.' 이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또. 그럭하지 말라 이겁니다, 인제는. 조상이 보이면 그 뜻이 뭐냐. 그건 부처님도 그게 될 수 있어요, 내 부처가 말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으로 화해서.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상대방끼리 항상 살던 그 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고조부라면 고조부 얼굴을 봤어야죠. 그래서 아버지 모습으로 또 보이는 거예요. 고조부가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어느 친구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세 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꼭대기에서 자기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부모로 보이고, 부처님으로 보이고, 윗분으로 보인다 이거야. 그리고 동등하게 보이고 또 아래로 보이고. 이것이 자기 인연이에요, 다. 모습만 바꿨을 뿐이지 모두가 바로 자기 본부에서 나온 것이니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나타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습 따라 끄달리지 마시라 이겁니다.

자식이 자꾸 빗나가요

문)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자꾸만 속을 썩이고 빗나가기만 합니다. 어떻게 자식의 마음을 잡아야 할는지요.

답)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을 리드하는 것도 그렇고 아내를 리드하는 것도 그렇고 좀 폭넓게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말로 얘기해서 공을 다 깨트리지 말고 안으로 굴려서 그 사람의 마음과 더불어 그저 무전으로 통할 수 있는, 서로 연결이 돼서 서로가 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행해야 합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자식도 뿌리를 깊이 박혀 줄 수 있는 거는 반드시 마음으로 해야지, 입으로 놀려서는 자꾸 빗나가요. 입으로 말을 해 가지고는, 저 왜, 밀가루 반죽해서는 그냥 그냥 요렇게 주무르고 조렇게 주물러서 남 나가려야 나갈 틈이 없게 만들지 마시고, 그 세대는 그 세대대로 있고 어른은 어른대로 세대가 있어요. 지금 발전해 나가는 애들의 생활과 어른의 생활과 또 노인네들의 생활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음을 활달하게 놔두면서 안으로 굴리게 되면 거기까지도, 내 전화를 돌리면 거기까지 버튼이 눌러지듯이 그 애는 모르지만 그 애 원소 자체는 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소 자체가 걔를 끌고 다니는데 아주 잘 끌고 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루 이틀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거기다만 넣으면 스스로 돌아져서 경험을 하고선 오히려 들어와서 안 나가요. 안 나가. 공부 잘한 거죠, 뭐.

이렇게 되는 이치를 여러분이 못 믿고, 자기를 자기가 못 믿어요. 자기의 그 턱밑에 있는 보배를, 자기가 자기를 못 믿고 항상 겉으로 끄달리면서 관세음보살, 무슨 보현보살, 뭐 강으로 나가서 물에다가 밥 띄우고 또 물에다가 고기를 사다 넣고 이런 행동들을 해서 무슨 소득이 있느냐 이겁니다. 항상 같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멀리 외국에서 전화가 와서 "스님, 급한 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랬을 때 내가 만약 몸으로 비자를 내 가지고 간다 하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죠? 이미 죽은 뒤에 가게요? 또 죽은 뒤에도 못 가죠, 늦어서.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기 때문에 수없이 수만 개가 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모습을 바꿔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다면 의사가 돼 주고, 가난하다면 관세음보살이 돼 주고, 일찍 죽는다면 칠성부처가 돼 주고, 지장이 돼 주고, 수없이 그렇게 바뀌는데, 한생각 한생각이 찰라찰라 그렇게 바뀌는데 왜 그것들을 모르고 끄달리느냐 이거예요. 자기를 이날까지 미생물에서부터 억겁을 거쳐서 끌고 온 자기의 주인을 왜 못 믿습니까?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남성용 여성용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불자 세상보기

한국어와 한글의 현실



권 영 민
문학평론가
단국대 석좌교수

한국어는 어느 정도 큰 언어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대개가 고개를 갸웃거린다. 유네스코의 보고에 따르면 지금 지구상의 여러 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대략 6,500여종이나 된다. 이렇게 많은 세계의 언어 가운데 한국어는 약 7,700만 명 정도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북한의 주민과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지의 해외 동포를 모두 합한 것이다. 이것은 세계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언어 가운데 13위 정도에 해당한다. 한국은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이지만 한국어는 결코 작은 언어가 아니다.

그런데 한국어의 현실을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남북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한자어와 외래어의 비중이 커지면서 고유어의 영역이 좁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대중 종교인 불교의 경우에도 그 용어는 대부분 난해한 한자어를 그대로 쓴다. 더구나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매체에서는 한국어의 규범을 무시하는 글쓰기 행태가 늘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공용방송에서조차 드라마의 제목을 '차칸 남자'로 시작했다가 다시 '착한 남자'로 고치고 시청자에게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한국어는 지역적으로 중국어와 일본어 같은 큰 언어 지역과 인접해 있어서 언어의 확산에도 제약이 크다.

경제 시장의 지구적인 통합, 정보 통신의 발달, 국제 교류의 증대 등으로 이어지는 세계화의 물결이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궁벽한 한국어를 버리고 영어를 쓰자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우리말과 한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어린애들에게 유치원에서부터 영어를 가르친다고 야단이고, 방학이면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난다고 법석이다. 어떤 대학 총장은 대학에서 개설하는 강좌의 절반 이상을 영어로만 강의하는 것이 목표임을 자랑하고, 중요 기업에서는 영어 성적만으로 신입사원 지원서를 접수하기도 한다. 방송이나 신문에도 영어가 넘쳐나고, 거리의 광고판에 영어가 판을 친다.

한국인들이 모두 한국어를 버리고 영어를 쓰기로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영어만 말하는 것이 정말 한국인들에게 행복한 일이 될까? 실제로 한국어와 한글을 이런 식으로 쉽게 바꾸어 버릴 수 있을까? 영어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민족어를 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공용어로 쓰게 된 것이 오늘날 인도 전자통신 사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부러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억이 넘는 인도 사람 가운데 영어를 말하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필리핀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국어와 한글 대신에 영어를 쓰기로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아마 인도나 필리핀과 비슷한 계층별 문화 지체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작은 나라 안에서 사회 문화적 통합도 이루지 못한 채 모두가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한국인들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어와 한글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왔고, 그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다. 한국인들의 생각과 행동은 모두 한국어와 한글의 구조와 성격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말과 글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 힘은 사람의 삶 속에서 잉태되어 오랜 세월을 두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어와 한글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한국어는 이제 한국 민족만의 언어가 아니다. 한국어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배우고 있는 '세계어' 중 하나다. 우리는 우리의 민족어인 한국어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어와 한글을 제대로 지키며 바르게 써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어가 세계어의 하나로 당당히 인정받고 그 언어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비구니 차별 산중총회법 통과

조계종 제191회 중앙종회 NGO 모니터링 결과

1. 종헌 개정안의 이월에 대하여

지난 중앙종회임시회에서 통과된 종헌 개정안을 원로회의에서 승인 거부하여 이번 회기에 다시 종헌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원로회의에서 어떤 이유로 부결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없었다. 입법기관인 중앙종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94년 종단개혁이후 처음 있었던 종헌 개정안을 원로회의가 승인을 거부할 때는 반대 이유를 분명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회기에서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안이 거부되었는데, 이에 대해 항의하기 보다는 원로회의의 눈치를 보면서 자진해서 법안 상정을 포기한 것이다.

이는 중앙종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중차대한 역할을 포기한 행위이므로 비판받아야 한다. 원로회의가 소위를 구성해서 종헌개정안을 종회에 제출하는 것은 종단의 어른으로 존경받지 못할 행위이다.

2. 산중총회법의 통과

교구본사주지선출제도가 그동안 금권선거, 부정 선거 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이번 산중총회법은 선거제를 포기하고 합의추대방식으로 바뀌었다. 선출과정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일이지만, 그간 수많은 본사주지선거에서 금권선거의 폐해를 생각하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또한 이번에 통과한 산중총회법은 명백한 비구니차별적인 법안이다. 산중총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비구니는 비구의 5분의 1로 제한한 것은 남녀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사회법보다 더욱 뒤쳐지는 것이며, 부처님의 평등사상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투표권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공정성과 적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3.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포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중요한 영역임은 분명하다. 해당 사찰들은 전년도 결산서와 차기년도 예산서를 총무원 재무부에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담금을 책정하게 되며 그 분담금은 종단활동의 주요한 재정적 기반이 된다. 포교를 위한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면 종단운영의 세입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각 사찰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대하고, 그 예산을 종도를 위해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종책질의 내용에 대하여

이번 회기는 다른 회기에 비해 종책질의가 31건으로 비교적 숫자가 많아 종회의원들의 종단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종책질의 가운데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는가 하면, 질문한 의원이 정작 답변을 들어야 할 때 결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종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각 부처는 나름대로 열심히 답변을 했지만, 일부 답변은 질문보다 짧아 답변이 매우 형식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만약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생각된다면 부서의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보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

5. 평균 출석률 66%

중대한 사안들을 다루는 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출석률은 낮았다. 회기 첫날인 9월 18일은 79명 가운데 61명이 참석해 77%의 의원이 출석했지만, 오후 4시에 58명이 참석했다. 다음날인 9월 19일 회기가 시작되는 오전 10시에는 79명 가운데 46명만이 출석했고, 오후 2시에는 54명, 그리고 오후 4시 35분에는 45명 만이 출석했다. 이틀간의 회기동안 종회의원들의 평균 출석율은 66%에 불과해 매우 저조했다.

6. 중앙종회 운영방식

중앙종회의원은 총 81명이 종단의 운영과 관련된 입법활동은 물론 총무원 각 부처의 운영 감독 등 그 역할과 위상을 볼 때 명실상부한 사부대중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원들은 회기 중에 대부분의 의원들은 성실하게 회의에 임하고 열띤 토론을 하는 등 회기가 넘어갈 때마다 점점 활기찬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종회 회의중에 이어폰을 착용하고 다른 일에 열중하거나 졸거나, 밖으로 자주 나가는 등 그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다. 또한 발언권없이 발언하거나 다른 의원이 발언 중에 끼어드는 등 종회의 질서나 의장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동들도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큰소리를 지르거나 혼자 화를 내거나, 소리내어 비웃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회의 분위기를 깰 뿐만 아니라 신중한 의사 판단을 방해하는 일이다. 의장의 진행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되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社說

근세 고승 학덕 조명하는 가을 축전

올 가을은 유독 한국불교 큰 스님들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가 많다. 우선 9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해인사 대장경천년관서 열리는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일대기 특별전이 그것이다. 또한 개화기 한국불교계 최고 지도자였던 석전 박한영 스님을 기리는 '석전 박한영 축전'도 10월 8~19일 동국대에서 열린다. 10월 예정이었다 11월로 연기된 경허선사 열반 1백주기 기념 학술세미나도 있다.

태고종 법륜사와 덕암화상문도회도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태고종 종정을 역임한 법륜사 중창주 덕암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한다. 관음종도 창종주 태허흥선조사 탄신 108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10월 10일 관음종 총본산인 서울 종로구 낙산묘각사에서 개최한다.

모두 당대에 한국불교계를 이끌던 최고의 선지식들이다. 이들을 기리는 행사들은 생전 당시 모습을 알 수 있는 유품전을 비롯해, 서예전, 사상과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학술 세미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항상 과거 속에는 우리가 곱씹어 만들어야 할 미래상들이 널려있다. 그런 점에서 올가을 풍성히 열리는 이 행사들은 우리 후학들에게 있어 천재일우의 기회다. 100년의 궤적속에서 살아있는 지혜를 생생히 만날 수 있고, 스님들의 청빈한 삶과 구도 역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월은 많이 흘러 큰 스님들은 우리 곁에 없다. 하지만 그 분들이 남긴 족적은 큰 울림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주최측에서는 이런 향훈들이 이심전심으로 전달 될 수 있게 알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자들도 스님들이 남긴 크나큰 지표를 이번 행사들을 통해 함께 고증하며 수행자로 일생을 산 선지식들의 진면목을 물씬 느껴야 할 것이다.

문화재 보존 다시 신경써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재 정책의 허술함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10월 5일 진행한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도난 문화재 현황, 재해관리 등 문화재 정책 전반이 문제가 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재 도난은 증가 추세지만 정작 이를 지킬 수 있는 폐쇄회로 TV는 5대 중 1대가 고장 중이다. 이를 위한 보수 비용도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집행되지 않았다.

고질적인 문제인 문화재 영문 안내판은 여전히 문제였으며,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풍수해 피해에는 어떠한 대비책도, 제대로 된 복구비용 집행도 없었다.

이중 도난 문화재와 풍수해 문화재 피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도난 문화재의 경우 한번 반출되면 회수하기가 힘든 만큼 불법유통에 대해선 철저히 단속과 관리를 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훔쳐 불법으로 유통시킨다는 것은 민족과 역사를 부정하는 부도덕한 범죄행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라 점점 풍수해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향후 풍수해 위기 대응 매뉴얼에 사전 점검 내용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매뉴얼을 갖춰 사전 검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행 문화재 영문 안내판도 오류가 많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을 생각할 때 이런 실수들은 부끄러운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해외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 이런 오류가 많다면 우리나라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꼴이 된다. 우선적으로 국보 안내판이라도 전수조사해 오류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전국에 산재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는 것은 단순히 문화재를 지정하는 데에 있지 않다.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과 적절한 보존 지원이 우리의 문화재를 후손하게 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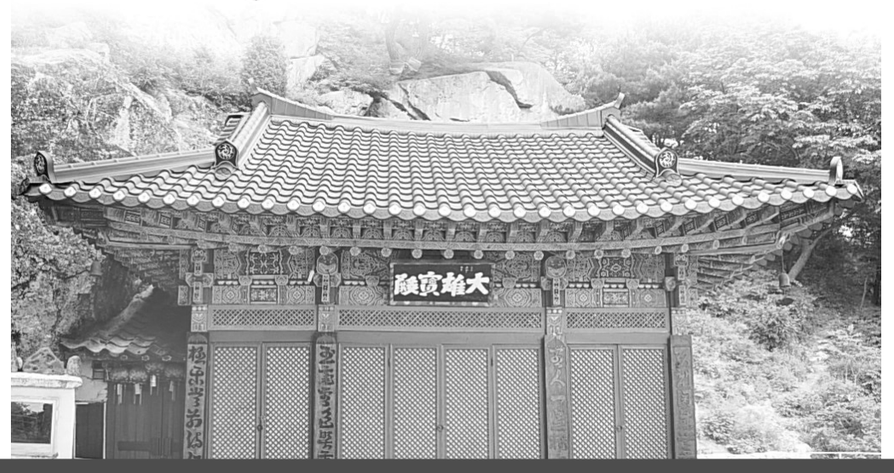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가을맞이 현불샵 상품 대잔치

원목 고탁자

상판과 다리를 두껍게 제작하여 견고성이 탁월하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원목 그대로의 나무결을 살려 나무 고유의 멋과 은은한 자연미를 선사합니다.
친환경적인 소재를 엄선 사용하였기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GS가구의 통원목 고탁자 입니다.
모던한 거실 풍경과 어우러진 모습은 보고만 있어도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즐거움을 드립니다.

원목 고탁자는 상판만 원목이며, 통판으로 제작되어진 제품입니다.
원목 통판으로 제작되어 여름과 겨울에 원목의 수축작용으로 갈라짐이 생기는데 이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갈라짐 현상은 제작상의 문제가 아닌 원목(나무)의 특성상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이니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식탁, 응접실테이블,책상,아이들 공부택상, 다과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멀티 테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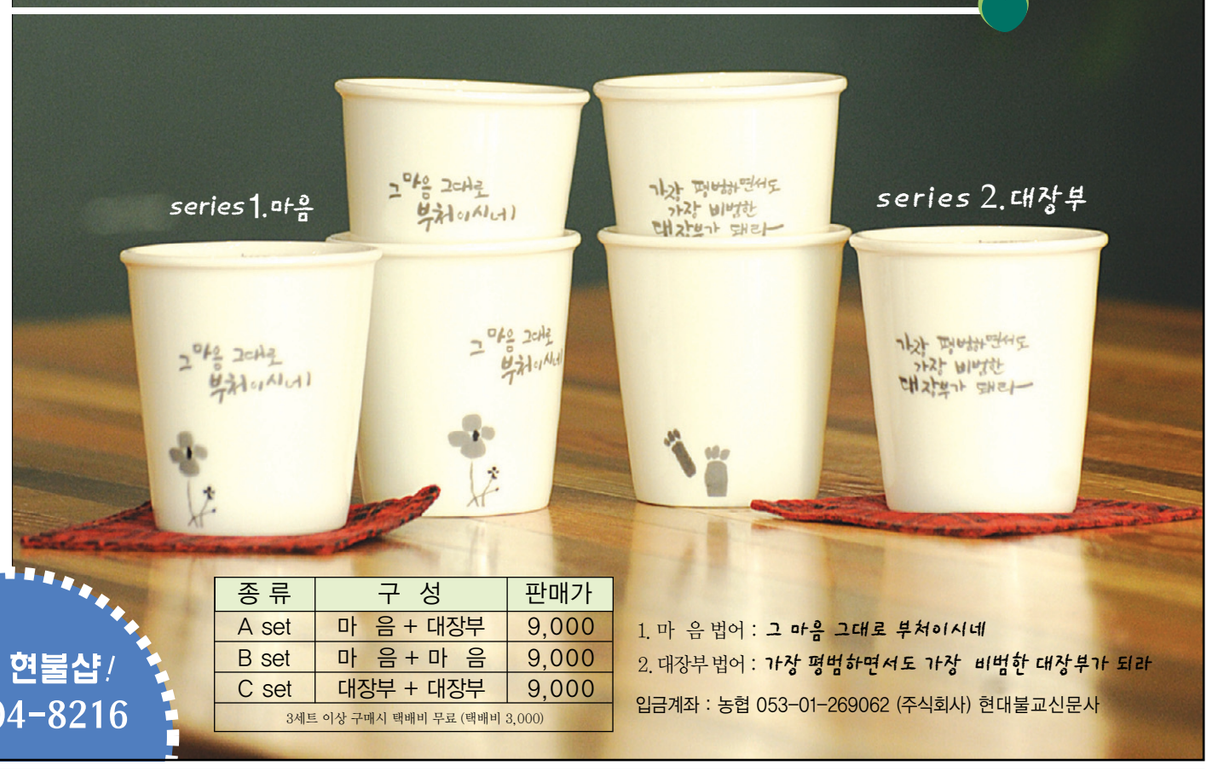
● 가격 : 180,000원
[계좌 : 053-01-269062 농협.(주)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지구 환경을 해치는 종이컵 대신 이제부터 (법어가 담긴 에코컵) 을 사용하세요. 늘 곁에 두고 음미하고픈 대행스님의 법어!

도자기
법어가 담긴 에코컵



종 류	구 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십장생 福 포대화상 도자기



십장생 복 포대화상 도자기를 모셔둔 家에는 언제나 밝은 웃음이 그치지 않고 하는일 마다 만사형통하여 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매산 김선원


청곡 이한동

천하를 다 포용하고도 남을 큰배와 언제나 밝게 웃는 모습으로 포대자루 속에든 복을 꺼내어 중생에게 나누어 주시는 포대화상 (앞면)

도자기 옆면과 뒷면은 십장생 그림으로 사슴이 불로초를 물어다가 거북에게 건네주는 신비한 장면이며 아래위 여백을 살려 시원하게 처리 하였습니다.

「KBS 진품명품」에서 해박한 지식으로 서예 감정을 하여 그 이름을 떨치신 **매산 김선원 교수**님의 글씨와 한국 화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미술원장을 맡고 계신 **청곡 이한동 화백**의 그림으로 합작하신 십장생 포대화상 도자기

※ (높이 37Cm× 둘레 100Cm 제조원 여주 다양도예 최고급 여주 백자 (손으로 일일이 만든 작품이라 약간씩 차이가 있음)

도자기 선물 SET

도자기 외 사은품 6종 가격
할인가 ₩ 99,800원

1 십장생 장수 반상기 세트 6P (밥그릇, 뚜껑, 국그릇, 2벌)



세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이 천가지 보약보다 낮다고 합니다.

중요한 시사를 하는 반상기(밥그릇, 뚜껑, 국그릇) 또한 소중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2 소품 연화 다기 5P



질은 약이나 차를 따라 드실 때 편리한 소품으로 된 약찻잔 5피를 청곡화백의 작품으로 연꽃이 들어간 예쁜 잔입니다.



3 용달마 순금카드 1점

달마 순금카드를 남편 지갑에 넣고 다니게하면 늘 남편을 지켜 줄 것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장미목 미니찻상





₩ 15,000원
가로 515㎜ × 세로 115㎜ × 높이 35㎜
3만원 미만 주문시 배송시 택배비 2,900원 별도.
[계좌 : 053-01-269062 농협 (주)현대불교신문사]

장미목에 우레탄 칠을 한 미니찻상입니다.
찻잔 받침없이 여러분이 담소 나누실때 매우 실용적입니다.

찻상이 오래사용해서 상처가 많이 나거나 찻상으로 쓰기 힘들때 화분받침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받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 (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과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